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제1200호

KB금융, LIG투자證 9월 공개매각

지주사법 상 손자회사 둘 수 없어… 올해 안 마무리
"대우증권 매각 타이밍 맞춰 시기 앞당긴 듯" 관측

KB금융지주가 KB손보(옛 LIG손보)의 100% 자회사인 LIG투자증권을 오는 9월 공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연내 LIG투자증권이 새주인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지난 22일 LIG투자증권 노동조합이 회사 매각과 관련, 질의한 공식 답변을 통해 오는 9월 LIG투자증권을 공개 매각하고 11월쯤 매각 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6월 말 KB손보 출범식에서 윤종규 KB지주 회장이 LIG투자증권 매각과 관련, "아직 대답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한 것보다 진전된 것이다.

LIG투자증권 노조 고위 관계자는 "자회사 관리 실무를 맡고 있는 KB손보 실무 라인에서 LIG투자증권 매각을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향후 인수 후보자들의 면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노조에서는 전 임직원의 100% 고용승계와 향후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금융사 등 기업체가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KB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그간 LIG투자증권의 행보에 대해 말을 아끼던 KB금융지주 측이 공개 매각에 적극 나서는 점을 볼 때, 이르면 8월에서 9월 매각이 공식화되는 대우증권 매각 타이밍에 맞춘 것 아니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에서 손자회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KB금융은 LIG투자증권을 기존 자회사인 KB투자증권과 합병할지, 재매각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손자회사 법상 KB금융지주가 LIG투자증권의 앞날에 대해 2년 내 결정해도 되는 문제"라며 "갑자기 이렇게 빨리 공개 매각에 나서는 건 결국 대우증권 인수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LIG투자증권은 지난 2008년 신생사로 출범했다. KB금융이 지난 6월 LIG그룹으로부터 LIG손보 지분(19.47%) 인수를 성료하고 KB손보 통합을 마무리하면서 LIG투자증권은 현재 KB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상태다.

김경아 기자 kakim@

'첫 졸업생 배출' SK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오른쪽 세번째),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오른쪽 두번째), 장동현 SK창조경제혁신추진단장(오른쪽 첫번째) 등이 23일 대전센터에서 열린 데모데이 행사에서 입주업체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SK그룹

18대 1 경쟁률 뚫고 입주한 벤처들 매출 6배 뛰고 33억 투자 유치 성과

자금지원·투자유치·멘토링 스타트업 성공신화 밑거름

SK그룹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10개월 만에 혁신을 이끌어갈 벤처기업 졸업생을 처음 배출했다. 대전센터는 23일 기술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창업을 지원한 입주 벤처기업의 성과 발표와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1기 드림벤처스타 데모 데이(Demo Day)'를 개최하고, 1차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준 미래부 1차관,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장동현 SK창조경제혁신추진단장,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 등 20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대전센터는 SK그룹과 대전시, 미래부가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해 지난해 10월 확대 출범했다. 당시 10개 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선발한 뒤 △1 대 1 멘토링 △사무공간 및 제작 설비 △사업 자금 △투자자 유치 △법무 및 노무 상담 △해외 진출 등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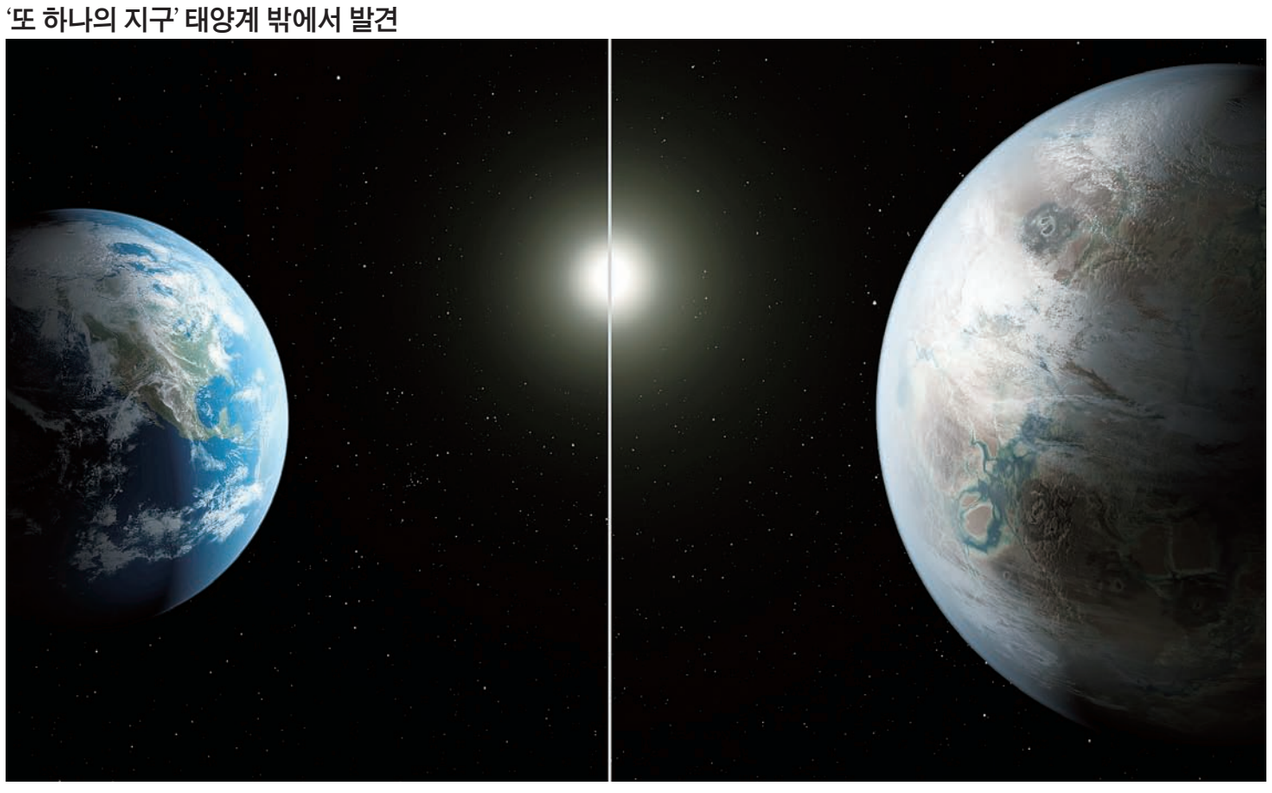
18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이들은 10개월간 지원을 받으면서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대전센터 입주 전 3억2000만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18억1000만원으로 5.6배 증가했다.

대전센터 입주업체 대표로 나선 ㈜테그웨이의 이경수 대표는 "1기 졸업생으로서 '벤처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씨메스는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인 콘티넨탈에 1억원 규모의 '산업용 3D 스캐너' 검사장비를 수출했으며,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이 성사 직전에 있다.

이들 입주 벤처기업이 유치한 투자금은 3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테그웨이, ㈜엑센, ㈜비디오팩토리는 한국과학기술지주 등 3곳의 창업투자사로부터 19억5000만원을 투자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입주 벤처기업은 현재까지 32억8000만원을 유치했고 글로벌 벤처캐피털과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만 기자 redpill@

'또 하나의 지구' 태양계 밖에서 발견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견한 또 하나의 지구 '케플러-452b(오른쪽)'의 상상도와 지구를 비교한 모습. NASA는 23일(현지시간) 백조 자리에서 지구로부터 약 1400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행성 '케플러-452b'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행성의 크기는 지구(지름기준)의 1.6배로 추산되고 있으며 태양과 같은 'G2'형의 항성 주위를 돌고 있다. 케플러-452b의 공전궤도는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있다고 NASA는 전했다. 지구의 크기와 비슷한 태양계 밖의 행성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AP연합뉴스

'무역 1조 달러' 4년 만에 무너지나

상반기 4911억 달러 전년대비 10.1%↓… 日 엔저공세에 밀려 亞지역 수출 고전

수출입 부진으로 올해 우리나라 교역액이 2011년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4년간 이어온 '연간 교역 1조달러'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달 1~20일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액은 각각 253억700만달러, 247억2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1%, 15.8% 감소했다.

또 상반기 통관기준 수출액은 2687억달러, 수입액은 2224억달러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15.6%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교역액은 4911억달러로 작년 상반기(5465억달러)보다 10.1% 감소했다.

이는 세계경제 불안, 저유가, 높은 원화가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우리의 최대 시장인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의 수출 부진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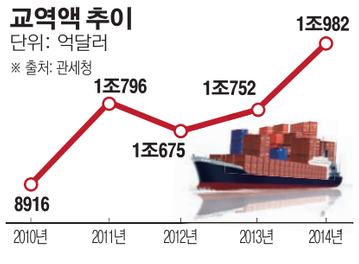
실제로 상반기 수출 증감률을 보면 중국(-2.1%), 동남아(-9.7%), 유럽연합(-14.7%), 중동(-5.1%), 일본(-17.6%) 등 주요 시장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 다만 경기회복세를 보인 미국만 5.5% 늘었다.

문제는 저가와 기술력 추격 공세인 중국에 이어 엔저를 무기로 동남아 시장의 수출세를 확장하고 있는 일본의 추격은 이 같은 수출 감소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6월 수출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를 기록했으며 특히 중국과 더불어 대(對)아시아 수출액(6월 10.1%증가)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그리스 위기와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저유가 장기화 등은 하반기 교역에도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국내 연구기관들은 이미 2011년부터 연간 1조달러를 웃돌던 우리나라의 교역액이 1조달러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간 연간 교역액은 2010년 8916억달러에서 2011년 1조796억달러로 처음 1조달러를 돌파한 뒤 2012~2014년에 각각 1조675억달러, 1조752억달러, 1조982억달러였다.

이와 관련,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4.7%, 수입이 14.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교역액은 9955억달러에 그친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도 각각 3.1%, 9.7%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김희준 기자 h9913@

얼어붙은 소비심리 찔끔 개선

7월 CCSI 1포인트 올라… '메르스 충격' 더딘 회복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서 7월 소비자심리가 찔끔 개선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현 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빠 메르스 충격 등으로 인한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공공요금 인상, 가뭄 등으로 15개월 만에 반등했다. ▶관련기사 3면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비 1포인트 상승한 100으로 기준점을 회복했다. CCSI는 지난 4월(104) 3포인트 반등한 후 5월(105)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5월 20일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6월(99)엔 2년 6개월 내 최저치로 추락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잦아들면서 이달 살짝 올랐다.

한편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7월 2.6%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올랐다.

이진영 기자 m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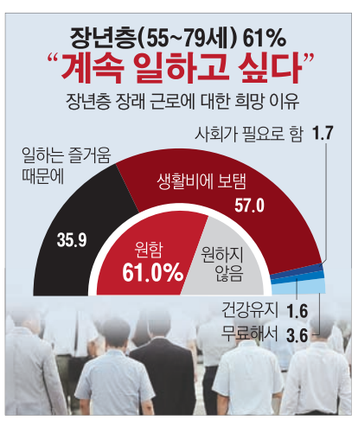
데이터 뉴스 Dat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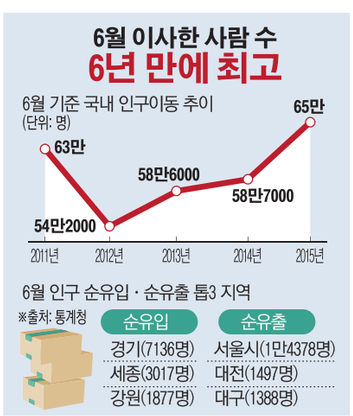
고령층 절반 이상 연금 못받아

고령층의 절반 이상은 연금을 받아 본 경험이 없으며, 60%는 생계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층의 절반 이상은 연금을 받지 않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고령층은 전체 고령층 인구의 45%(532만8000명)로 작년(45.7%)보다 소폭 감소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49만원으로 작년 5월 조사 때보다 7만원 늘었다.

박엘리 기자 ellee@





주택거래 활기, 이사 인구 늘었다

지난 6월에 이사한 사람 수가 6월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6월 국내인구이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이사로 이동한 사람은 65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8% 증가했다. 매년 6월 수치로만 따지면 2009년 6월 68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하루 한생각 從師不囿 (종사불유)
스승을 따르되 얽매이지 말라
▶ 12면

박삼구 회장 ▶2

정지완 회장 ▶13

Star 스페셜 ▶15~17
아이돌의 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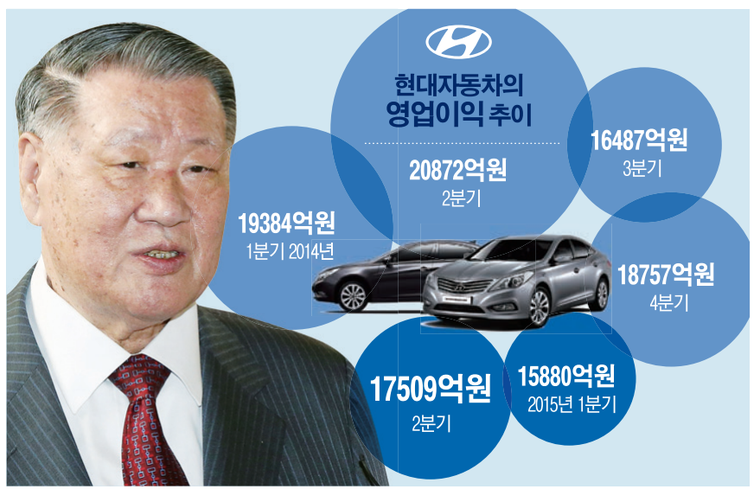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MK의 주주 받들기…이번엔 배당 확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창립 첫 중간배당 실시하고
배당성향 30%까지 늘리기로
작년 15%…지속적 확대 계획
신차 효과·환율 역시 우호적
하반기 실적개선 장밋빛 전망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3분기부터 "배당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는 한국전력 부지를 10조55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에 사들이자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현대차는 올해 약속을 지켰다. 이 회사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1000원을 중간배당했다. 배당금 총액은 2687억원 규모다. 현대차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몽구〈사진〉 현대차그룹 회장은 앞으로 배당성향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원희 현대차 재경본부장(사장)은 "지난해 한국 상장회사의 평균 배당성향이 15%"라며 "현대차도 단기적으로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글로벌 자동차업체의 평균 배당성향이 25%에서 30% 정도"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이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는 결산 배당금을 보통주 기준으로 3000원씩 지급했다. 배당성향은 11.1%였다. 현대차가 배당성향을 30%까지 늘리면 지난해 기준으로는 보통주 한 주당 배당금은 81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장 현대차의 올해 말 결산배당은 2000원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 사장은 "연말 배당은 최종 경영성과를 나오고 난 뒤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배당성향을 늘리는 것과 함께 실적이 바닥을 찍은 것이란 분석도 미래 전망을 밝게 한다.

현대차는 지난 2분기에 판매 123만2943대, 매출액 22조8216억원, 영업이익 1조750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액은 0.3% 증가했으며 판매와 영업이익은 각각 2.8%, 16.1% 감소했다.

그러나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로는 10.3% 늘어나며 'W'자 회복을 보여줬다. 하반기에 대규모 신차 출시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현대차의 실적 전망을 밝게 한다. 신형 투싼은 7~8월에 미국과 유럽, 9월에는 중국에 출시된다. 인도의 전략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크레타도 이달 출시됐다. 미국과 국내에서는 올해 말 신형 아반떼가 출격한다.

환율도 우호적이다. 지난해 3분기 평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25.80원이었다. 최근에는 이 환율이 1160원대 전후까지 상승했다.

이 사장은 "신차 효과로 실적이 개선되고 환율 역시 우호적이다"며 "하반기에는 큰 폭의 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원 롯데' 신동빈, 한·일 통합경영 첫발은 '태국 면세점'

한·일 롯데 8대2로 공동 출자
내년 3월 방콕에 2118평 규모
대형마트 규제·쇼핑 실적부진
아시아시장 공략에 역량 결집
내년 도쿄면세점도 동시 오픈



한국·일본 롯데 통합 경영에 나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첫 사업 시동을 '태국 면세점' 오픈에 걸었다.

2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은 지난달 태국 정부로부터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으며, 양사는 공동출자를 통해 내년 3월 태국 방콕 시내에 면세점을 연다. 지난 16일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로 취임한 후 첫 통합경영 행보다.

면세점은 연면적 약 7000㎡(2118평)규모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 현지 토산품, 다양한 한국·일본 화장품 등을 취급할 예정이다. 닛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면세점 운영에 대한 출자 비율은 한국 롯데가 80%, 일본 롯데가 20%가 될 전망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롯데그룹 관계자는 "과거 제과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 롯데는 거의 협력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신 회장이 일본 경영까지 맡은 뒤 양국 롯데가 시너지를 내는 차원에서 이번 태국면세점에 함께 진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태국 면세점 사업은 한·일 롯데의 통합경영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 롯데는 2012년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하타 공항을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미국령 괌 등에서 모두 5개의 면세점을 운영하는 등 35년간 축적된 면세사업 노하우를 지녔다. 일본 롯데는 1989년 태국 현지에 법인을 세워 26년간 제과 사업을 펼친 만큼 현지 사정에 밝다는 장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한·일을 통합시켜 해외 면세점 확대에 나서자 양사의 독자적인 성장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실적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중국 수익성 개선도 더뎌지고, 핵심인 롯데쇼핑의 실적도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롯데도 주요 수익부문인 껌 시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변변한 히트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롯데는 해외 판로 개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한·일 경영을 통합해 아시아 시장 공략에 그룹의 역량을 모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한 롯데의 2014년 글로벌 매출액은 6조5000억 엔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90%가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올린 것이었다.

한·일 롯데는 내년 3월 개관을 앞둔 도쿄 긴자거리의 롯데면세점에서도 협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3000억 더 부른 금호산업 채권단

고민 깊어져가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1주당 5만9000원씩에 달라"
채권단, 매각가로 1조원 통보
당초 예상액 7000억서 껑충
박 회장 조기인수 강한 의지
협상 통해 이견 좁힐지 주목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당혹해하고 있다. 금호산업 채권단이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매각가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23일 박삼구 회장과 진행 중인 매각 협상에서 금호산업 매각 금액을 1조218억원(주당 5만9000원)으로 결정하고 박 회장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는 실사를 통해 평가된 가격에 90%가 넘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금액이다. 앞서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로부터 금호산업 주식의 적정 가격을 주당 3만1000원으로 보고받은 채권단은 여기에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는 프리미엄으로 주당 2만8000원을 얹은 셈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채권단이 7000억~8000억원 정도로 매각 가격을 정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훨씬 비싼 금액이 제시돼 박 회장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지분인 50%+1주를 매입한다 해도 무려 1조218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 4월 말 금호산업 매각 본입찰에서 단독 응찰한 호반건설이 제시한 6007억원보다 수천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관건은 박 회장의 인수자금 조달 여부다. IB(투자은행)업계 전문가들은 박 회장이 1조원을 넘는 금액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이 도움을 청한 우군인 NH투자증권은 인수금융의 일정 부분 지원을 결정했지만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설상가상으로 당초 유력하게 점쳐진 금호고속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까지 제동이 걸린 상태다. 앞서 박 회장 측은 자금 확보를 위해 그룹에 재편입한 금호고속을 칸서스PEF에 재매각해 3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채권단은 "금호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채권단이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앞으로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박 회장이 금호산업 재인수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봐서는 채권단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높다. 박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2015년 하반기 임원 전략경영세미나'에 참석한 임원 156명에게 "채권단과 잘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앞으로 강하고, 힘있는 금호아시아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9월 중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채권단은 이후 6개월간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 매각을 추진한다. 제3자 매각 역시 불발되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www.childfund.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당신의 하루에는
미래가 보이나요?
누군가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을 하지만 누군가는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일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로 당신의 하루하루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보세요.
어린이를 도울 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어린이를 돕는 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세요.
우리, 진짜 어른일까?
정기후원 | 1588-1940

경계치에 선 소비심리 '100'… 폭탄세일로 달굴 수 있을까

〈7월 CCSI〉



롯데백화점이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마련한 '롯데 블랙 슈퍼쇼' 전시장이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면세점 등 세일 현황

	업체명	기간	할인 현황
백화점	롯데백화점	26일까지	200억원 규모 세일 80% 할인
		8월16일까지	250여개 명품 브랜드 최대 90% 할인
	현대백화점	8월16일까지	800억원 규모 해외패션대전
	신세계백화점	8월 16일까지	500억 규모 해외 브랜드 최대 80% 할인
마트	이마트	29일까지	데이즈 60% 할인
	롯데마트	29일까지	여름침구 30% 할인
	홈플러스	8월 12일까지	신선신품, 가공식품 등 최대 50% 할인
아웃렛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 아울렛	31일까지	봄 여름 시즌상품 최고 70% 할인
		8월 2일까지	역시즌 프로모션 최고 70% 할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26일까지	해외패션 브랜드 최대 80% 할인
면세점	롯데면세점	9월 3일까지	30여개 해외 브랜드 최대 80% 할인
패션 및 화장품	제일모직 에잇세컨즈	31일까지	봄 여름 시즌 세일 최대 50%할인
	네이처리퍼블릭	재고소진시까지	1+1 증정 이벤트, 일부 제품 최대 50% 할인
	토니모리	31일까지	1+1 증정 이벤트

소비자 지갑 열기 나선 유통가

경기침체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까지 덮친 삼중고로 잔뜩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이번 달 들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4일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이달 소비자심리지수가(CCSI)가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해 100을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달을 빼면 2012년 12월 이후 아직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지난달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유통가는 불씨가 살아난 소비를 살리기 위해 폭탄세일에 나서는 등 꽁꽁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 열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롯데百 2백억원 규모 출장세일에 첫날 11만명 발길 14억 어치 판매
현대百·신세계 '해외 브랜드' 세일
마트·아웃렛·면세점도 잇단 행사
"정부·기업 맞손… 내수진작 기대"

◇메르스 재고 대방출… 출장 세일까지 나선 백화점 = 여름 정기세일을 끝낸 지 불과 1주일. 올 봄 출장세일로 대박을 쳤던 롯데백화점은 23일부터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재고 털기에 나섰다. 서울 양재동 세텍(SETEC)보다 4배 넓은 공간(1만3000㎡)을 빌려 2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준비했다. 불황과 메르스로 협력사들의 재고 누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유례 없는 초대형 대관행사를 올해에만 두번째로 기획한 것이다.

첫날 '롯데 블랙 슈퍼쇼'에는 11만명이 다녀갔고 판매액은 14억원이다. 목요일 평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지난 4월 세텍에서 진행했던 '블랙쇼핑위크'의 첫날 판매액은 7억원이었다.

현대백화점도 900억원어치의 해외 패션 브랜드 이월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현대 해외패션 대전'을 오는 30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한다. 상품 규모를 작년의 두 배인 8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현대백화점이 진행한 명품 할인 행사 가운데 가장 크다. 행사 제품도 봄·여름 상품 비중을 2배 이상 늘렸다. 지난해 행사의 경우 가을·겨울 시즌 이월상품 비중이 70% 이상이었다.

신세계 역시 23일부터 본점을 시작으로 업계에서 가장 빠른 명품대전 '해외 유명 브랜드 대전'을 연다. 신세계백화점 패션본부장 손영식 부사장은 "이번 여름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어치 물량을 준비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도 떨이… 아웃렛·면세점도 동참 = 대형마트도 1000억원 규모의 창고 대방출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마트는 29일까지 개점 이래 최대인 1000억원 규모의 할인 행사를 기획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캠핑용품, 아웃도어 등 여름상품을 늘려서 발주해놨는데 소비가 얼어붙어 재고가 산더미인 상황"이라며 "물류창고를 추가로 임대해야 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각각 50%가량의 세일을 하고 있다.

아웃렛과 면세점도 그랜드 세일에 동참했다.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은 오는 31일까지 총 70여개 브랜드의 봄·여름 시즌 상품을 최고 70% 할인해 선보이는 '썸머 라스트 클리어런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은 26일까지 100억원 규모의 해외패션 스페셜 세일을 연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9월 3일까지 '서머 시즌오프'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 프라다·미우미우·토리버치·에트로·코치 등 30여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패션·뷰티 업계도 반값 세일에서 최대 70% 할인, 1+1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소비자 지갑 열기에 나섰다. 제일모직의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는 오는 31일까지 50% 이상 할인에 나섰고,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로드숍들은 1+1 등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 등이 내수 진작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번 세일을 기점으로 소비심리가 완전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철규·이선애·김혜진 기자 yoonck@

김포~제주 편도 1만900원… 괌·사이판 국제선 최대 72% 할인

여행 항공권도 초특가 프로모션

메르스 여파에 따른 시장 회복을 위해 항공업계 역시 저렴한 항공권을 쏟아내고 있다. 때마침 휴가철과 맞물려 특가 항공권 공급에 따른 수요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을 중심으로 특가 항공권을 통한 모객 작업이 한창이다. 메르스로 국내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줄어 들자 경영 활로 대책 차원에서 더 저렴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제주항공은 오는 26일까지 국내선 전 노선을 최대 90% 할인한다. 김포와 부산·청주·대구에서 출발하는 제주노선을 편도 1만900원부터 판매한다. 제주도 항공권은 리조트와 렌터카, 카페 등과 연계한 할인 프로모션으로 진행한다.

괌·사이판·오사카 등 휴가철에 인기가 많은 여행지로 향하는 국제선은 여름 성수기에 임시증편 특가 프로모션을 적용해 최대 72%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인천-괌 노선은 편도 18만8700원부터, 사이판은 16만4400원부터 구입 가능하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초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 이는 초특가 가격의 항공권을 미리 구매할 수 있는 얼리버드 항공권으로 국내선 여행기간은 12월1~31일, 국제선은 12월1~22일까지다.

국내선 총액 최저 편도 운임은 김포·대구·광주에서 제주까지 주중 1만8300원부터 판매한다. 국제 편도 항공권은 인천에서 사가까지 6만원, 오이타까지 7만6000원, 후쿠오카까지 7만8000원, 삿포로까지 10만9000원이며, 김포~타이베이는 11만9400원부터 판매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24일 인천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인파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스타항공도 오는 27일까지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내선은 제주발 김포·청주·군산 노선 항공권(편도)을 1만5900원(항공운임총액)부터 선착순 판매한다. 국제선은 중국은 오는 28일까지 청주-선양(심양) 8만3400원, 청주-푸동(상해) 7만3400원, 청주-옌지(연길) 11만3400원, 청주-하얼빈 10만3400원, 청주-다롄(대련) 7만3400원, 인천-지난(제남) 7만3800원부터 판매한다. 또 이스타항공 모바일웹(WEB)으로 예약 시 국내선 2000원, 국제선 5000원을 추가 할인해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워터파크 반값''숙박 할인'… 카드업계도 가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카드사들이 팔 걷고 나섰다.

신한카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존 회사 보유 콘도 외에 추가로 지방에 위치한 호텔, 리조트 등 직원들이 선호하는 관광지의 휴양소를 확보했다. 임직원들이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내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또한 신한카드는 휴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숙박료도 회사에서 일부 지원키로 했다.

삼성카드 역시 임직원 대상 휴가사용 및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주 여행상품 특가 제공이나 전국 숙박 할인 혜택 등 국내여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제휴해 관계사 임직원에게 국내여행 상품을 최대 5%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카드사들은 올해 해외보다는 국내에서의 여름 이벤트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휴가철에 자주 찾는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선보이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KB국민카드 고객들은 8월 말까지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등 전국 30개 워터파크를 이용시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하나카드는 전국 유명 8대 워터파크에서 하나카드로 결제시 최대 50% 할인 혜택 제공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전국 주요 워터파크 입장시 최대 20~40%를 현장에서 할인해 주는 '썸머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카드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전국의 워터파크에서 기간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BC카드는 전국 17개 워터파크에서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추경 합의한 여·야, '법인·소득세 정비' 문구 삽입키로

결국 '대기업 증세'로 가닥?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부대의견'에 세입 보전 방안 중 하나로 '소득세법인세 정비'를 못 박으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부대의견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이 함유됐는 만큼 향후 법인세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알뜰한 살림살이'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 된다.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간 협상을 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추경액 규모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대신 세수결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야는 합의문에 '정부가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조항을 부대의견으로 넣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서 기업 세금 부담을 늘릴 공산이 커졌다. 내년부터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이 직접적인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보다는 기업의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하는 등 대기업 중심으로 집행돼 온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금까지는 자산규모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R&D 비용이 과거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40%까지만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증가분의 30%까지만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주요 세액공제의 분위별 비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총액	2조8494억원	7185억원	1조224억원	2조6044억원
상위 1%	64.4%	58.1%	84.3%	72.4%
10%	82.0%	85.8%	96.0%	94.6%

R&D 세액공제 비율 줄이고
법인세 공제액 감면 축소 검토
세부담 늘어 기업경영 위축
"중장기 증세논의 필요" 지적도

R&D 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인세 공제감면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6.7%에서 2013년 76.9%로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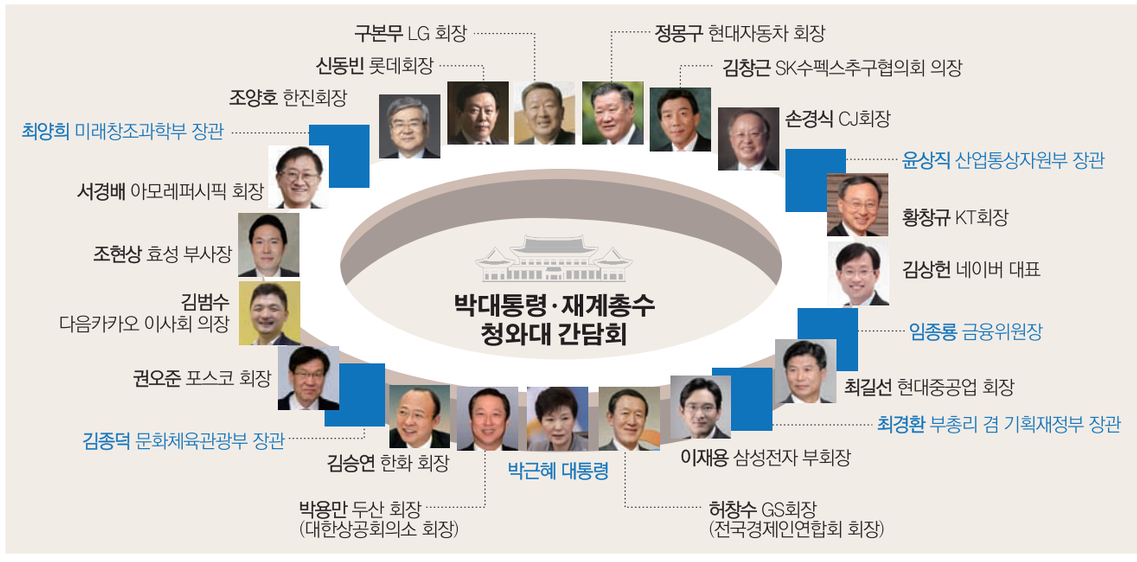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 소득세 관련 세액공제 전환 등의 제도 개편으로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증세를 추진해왔다.

법인세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R&D 세액공제 한도 인하,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의 인상,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부과 등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게 법인세 감면 축소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들어오는 세금이 4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비과세·감면으로 걷지 못한 세금은 32조9810억원에 달했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2013년과 2014년의 세법 개정에서 다수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새로운 비과세·감면 조항이 추가됐다.

재계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이 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그동안 기업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한 것은 사실상 법인세를 증세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려면 오히려 법인세율을 내려야 맞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직접적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먼저 손본 뒤 중장기적으로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는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나마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오게 해 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투자·일자리-광복절 특사 '빅딜' 이뤄질까

朴대통령, 재계 총수 17명과 청와대 간담회
17곳 창조경제혁신센터 방향·성과 등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전국 17개 시·도에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 지원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찬을 갖는다.

참석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대구 및 경북센터),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대전 및 세종),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전북), 권오준 포스코 회장(포항),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광주), 구본무 LG그룹 회장(충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부산), 황창규 KT 회장(경기),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경남),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강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충남), 허창수 GS그룹 회장(전남),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제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제주),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울산), 손경식 CJ그룹 회장(서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인천) 등 17명이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많은 대기업 수장을 한 자리에 모은 건 취임 후 처음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나아갈 방향, 아쉬운 점, 지금까지 나온 성과 등을 공유하고 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더 큰 관심을 모으는 건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의지와 내달 광복절에 있을 대규모 특별사면의 '빅딜' 가능성이다. 정치권과 재계에선 기업의 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비례해 특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최근 1년 새 3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4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도 창조경제를 비롯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 동참 등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나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중 기자 zerg@

추경 '법인세-소득세' 문구 포함 일지

19일
- 최경환 경제부총리: "법인세 인상 안하는게 바람직"
- 안민석 의원: "법인세율 인상 등 야당 의견에 대한 정부수용 의지가 추경 변수"

21일
- 이종걸 원내대표: "여당 법인세 거론 안하려해… 추경 수용할 수 없다"

22일
- 최경환 경제부총리: 여야지도부 면담
- 문재인 대표: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높여야"

23일
- 여야: 추경안 잠정합의… 법인세-소득세 정비 문구 포함

과표구간 조정 따른 간접 세수확대 가능성

여야 '인상' 해석 엇갈려 향후 진통 빚을 듯

여야가 23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조건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정비' 문구를 넣기로 하면서 내달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 등 향후 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세율의 인상보단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간접확대를 추진할 공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추경액 11조6000억원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하는 대신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앞서 야당은 "세입경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은 재정건전성을 허문만큼 '정책실패→세수펑크→세입경정→국채발행→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소득세 또한 최고세율 구간 신설까지 언급했지만 결국 여야의 주장이 담긴 '인상', '감면' 등의 표현을 모두 빼고 '정비'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합의문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상이란 표현이 생략됨에 따라 애초 전망됐던 1~3% 규모의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확대보다는 과세구간 정비에 따른 간접세수확대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법인세는 정부가 수차례 인상은 없다는 뜻을 밝힌 만큼 법인세 과세체계 조정으로 야당과 정부간의 불협화음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법인세 과세체계는 3단계 과표구간에 최저 10%~최고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단계로 축소하며 최저세율 구간을 변동하거나 단일과세 체계로 변동하면 상대적인 세수증대 효과가 있게 된다.

특히 법인세 3단계 세율체계를 2단계로 바꾸겠다는 방안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언급된 내용인 만큼 정부로서도 상대적인 부담이 덜하다. 이 때문에 내달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정비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소득세 또한 같은 맥락에서 과표구간의 정비를 통한 세수확대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여야가 '법인세-소득세 정비' 문구를 놓고 인상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도 예고된다. 김희준 기자 h9913@

제주에 전기차 1호 충전소



23일 제주시 연삼로 라이온스 회관에서 열린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창립 개소식 및 제1호 충전소 준공식'에서 박정하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왼쪽부터), 조환익 한전 사장,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충전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자본 경영권 위협 방지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을"
전경련, 설비투자 위축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경영권 위협을 막기 위해 차등의결권,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재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우리나라만의 획일적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재검토하고,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 83개 기업을 분석해보니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배당이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계 투기 펀드가 단기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며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는 삼성물산 지분 5% 취득 후 경영진을 압박하다 돌연 지분을 전량 매각해 38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2006년 칼 아이칸은 KT&G와 경영권 분쟁을 일으켜 15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높아지는 해외 비관세장벽…民·官 공동대응

中 이어 아세안에 현지반 구축
기업 해외인증 정보조사 강화도

정부가 중국에 이어 아세안 지역에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현지 대응반을 꾸린다. 국내 업종별 단체와 손잡고 민관합동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정보 조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장벽은 허물어지고 있지만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은 점점 높아지는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출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우선 현재 중국에만 설치됐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현지 대응반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중국 주요 지역 5곳에 해외공관과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현지작업반을 구성한 바 있다. 비관세장벽협의회 포털(www.ntb-portal.or.kr)에 정리된 비관세장벽 현황을 보면 전체 49개 중 중국 비관세장벽이 27개로 가장 많고, 아세안 국가에서 속하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도 각각 4개, 3개나 된다.

산업부는 또 비관세 해소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자 업계 영향이 큰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양자나 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 수출기업의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조사도 강화하고 해외 공관, 무역관, 기업 지·상사를 중심으로 현지 대응체계도 확대한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각국이 FTA에 사활을 걸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만들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비관세 장벽이 속속 등장하면서 수출업체의 해외 통관 분쟁은 2011년 376건에서 지난해 40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만 258건이 발생해 작년 1년간 분쟁건수의 63%에 달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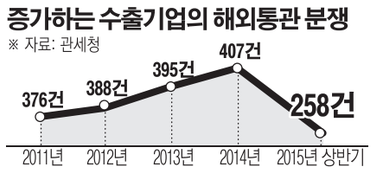
국가별 비관세장벽 현황

총 : 49개 ※ 자료: 비관세장벽협의회 포털

중국	27개	미국	6개
일본	5개	인도네시아	4개
베트남	3개	인도	2개
러시아	1개	EU	1개

증가하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분쟁

※ 자료: 관세청



이날 협의회에서는 비관세 장벽 해소에 성공한 사례도 공유했다. 인도·터키·태국 등의 스마트워치 무관세 적용, 중국 수출용 화장품 정보 스티커 금지 규제 철회, 중국 흰우유 수출재개 등이 구체적 성과다. 전민정 기자 puri21@

"3%대 성장률보다 구조개혁 집중해야"

전문가, 고령화·가계부채·디플레 우려…부양책 한계 지적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수출과 투자 부진에 회복 조짐을 보였던 소비까지 다시 침체하면서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애초 정부가 내세운 3%대 성장률 달성은 힘들다고 보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노동 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성장률 0.3%를 끌어올려 3%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대외 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은 이상 3%대 달성은 어렵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현재 소비가 부진한 것은 고령화와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양책도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만큼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2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요인은 메르스와 가뭄보다는 한국경제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수출이 늘어나고 민간소비도 살아나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성장률 3%대를 달성하려고 급급하기 보다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장기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포항 영일만항 공사 입찰 담합
SK·포스코·현대건설 벌금 확정

대법, 3사에 총 1억4000만원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SK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법인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개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확정된 벌금은 SK건설 6000만원,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은 4000만원이다. 재판부는 담합행위를 주도해 함께 기소된 SK건설 최모(52) 국내영업팀장과 포스코건설 민모(53) 국내영업그룹장, 현대건설 이모(57) 영업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각각 10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SK건설 등은 2009년 12월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과 순서를 사전에 미리 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격 경쟁으로 수주 공사비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과 함께 입찰률을 제한하기도 했다. 결국 이 공사는 SK건설이 2010년 2월 1924억 2900만원에 수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합계 25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건설사와 담당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담합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고발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다.

좌영길 기자 jyg97@

투표 이렇게 하는 거죽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린이유치원 원생들이 '팡팡! 신나는 선거이야기'를 통해 선거 투·개표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모님 직업·재산도 스펙"
구직자 10명 중 6명 응답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실력보다 부모님의 여건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은 구직자 9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가 '부모님의 지위, 재산 등 여건이 본인 실력보다 취업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모님의 능력으로는 42.1%가 '직업 등 사회적 지위'를 선택했다. 뒤이어 '인맥'(25.4%), '경제능력'(23.5%), '가정환경'(5.2%), '정보력'(2.2%) 등이 있었다.

기업의 노사협약 내에 자녀들에게 우선채용 기회를 주는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83.8%가 반대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라서'(6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채용은 실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해서'(45.7%),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45%), '청년 구직자들에게 박탈감을 주어서'(42.1%), '회사 발전에 도움되지 않아서'(22%), '입사해도 어차피 낙하산 취급을 받아서'(15.2%)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또, 76.6%는 이러한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박탈감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취업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했다'(37%, 복수응답) 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의류 위수탁 점주가 점포이전 거부하자 제품 강제회수

공정위, 세정그룹 '갑질' 전면조사 나서

여성의류 위수탁 관리자 대표가 점포 이전을 거부하자 의류를 강제 회수하는 '갑질'을 한 세정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3일 부산 덕천점에 영업부 직원을 보내 의류 3950점(추정판매가 5억9000만원 상당)을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회수한 세정그룹에 빠른 시간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의 소명자료와 고발인의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방침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지검도 최근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내려 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이런 말이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서는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며 "세정그룹 회장이 초기에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관계자 사과 및 원상복구, 손해배상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현대重 노조 파업 가결

현대중공업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23일 전체 조합원 1만6748명을 대상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1만713명(투표율 63.7%) 가운데 9966명(전체 조합원 대비 59.5%, 투표자 대비 93.03%)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파업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가결된다.

노조 측은 당장 파업하지 않고 회사 측과 협상을 계속 벌인 뒤 여의치 않으면 여름휴가철인 8월 이후에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 측에 올해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현대중공업 측은 업황 부진 등의 이유로 경쟁사들도 노조 측에 임금 동결을 제시한 상황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빼앗은 주유소서 유사석유 판매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두목 기소

수도권 일대 주유소 26곳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두목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봉천동식구파 두목 양모(48)씨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휴기등공갈),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봉천동식구파는 1990년대 초 결성돼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에서 활동했던 조직이다. 오락실, 유흥업소, 아파트 재개발 공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세력을 키워왔으며 2005년부터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자금을 조성해왔다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주유소 26곳을 운영하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총 기자 kec@

1000억 기부 공익재단 통해 보상 '백혈병 조정안'

삼성 "어려운 사항도…고민되는 것 사실"

"조속해결 취지 입각 신중검토"
일각선 '지나친 희생 강요' 시각



조정위가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 등 협상 3주체와 만남을 갖고 조정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 위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23일 발표됐다.

조정위의 권고안은 지난 6개월간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한 흔적이 엿보였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 일부 포함된 만큼,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는 조정위가 삼성전자에 지나친 희생을 강요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삼성전자 측도 이번 권고안에 대해 "오늘 조정위가 제안한 권고안에 대해 가족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기본 취지에 입각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권고안 내용 중에는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정위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 등 협상 3주체와 만나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삼성전자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 △조정권고안 실행 주체로서의 공익법인 설립을 두 축으로 한다.

조정위가 제안한 삼성전자의 기부금 액수는 1000억원이다. 다만 협회의 기부금 규모는 협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

보상 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 기준 그 이전 근무자 가운데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로 제한한다. 질환은 백혈병, 림프종, 유방암, 내종양 등 12가지다. 퇴직 후 최대 잠복기는 질환 종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14년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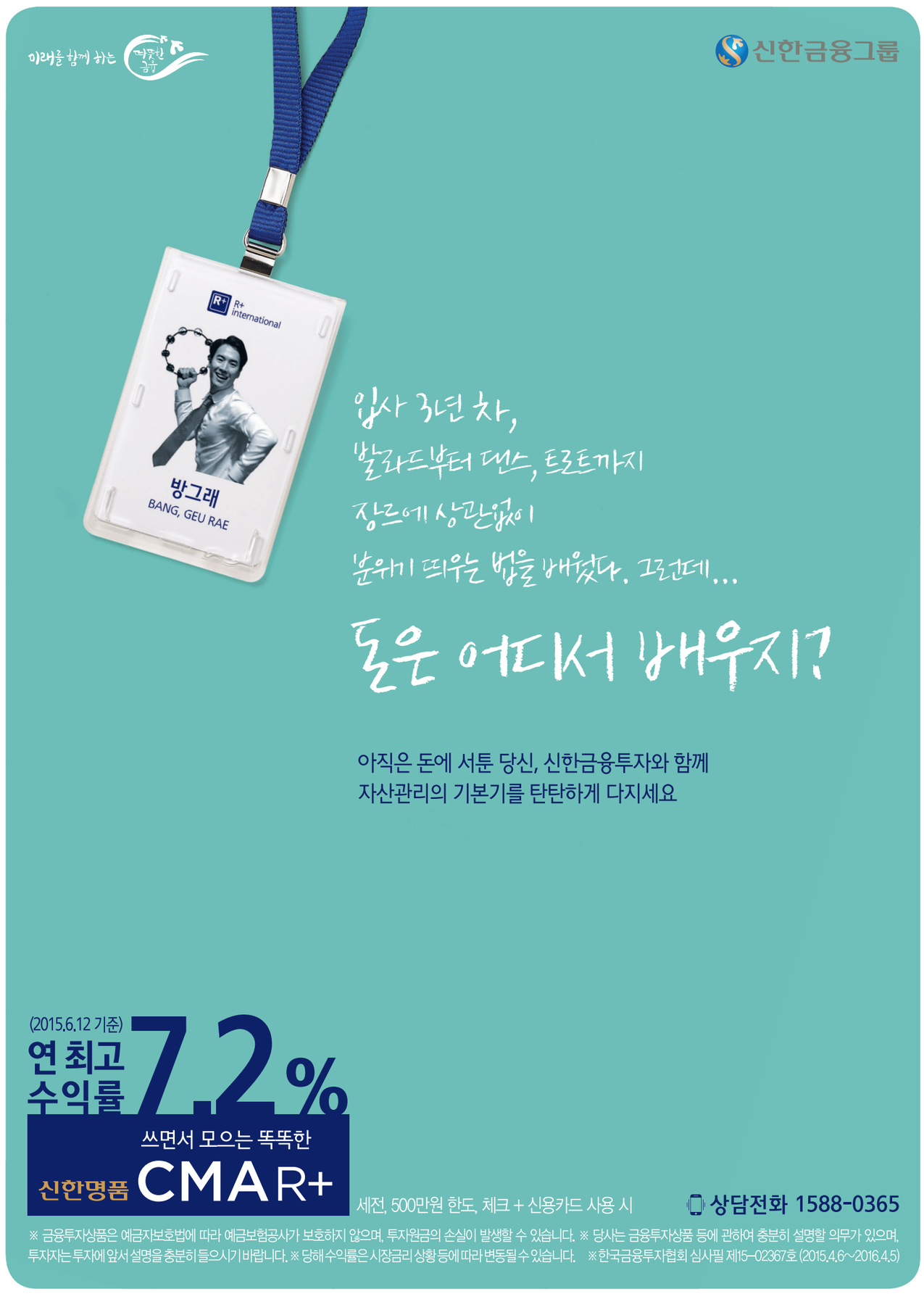
보상액은 최소한 질병 요양에 소요된 치료비 보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질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별도로 일정액의 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공익법인이 심사, 보상금을 지급한다.

재발방지책은 △지속가능성 △쌍방향성 △균형과 조화 등이 고려됐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 및 공익법인의 확인·점검을 위한 공익법인 선정·위촉한 3인 이상의 옴부즈만 시스템 구축 병행을 제안했다. 더불어 재해예방대책 관련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등이 권고됐다.

사과는 협상 3주체 공동으로 '노동건강인권선원'을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조정위는 사과 방식으로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기자회견과 개별 사과문 발송의 두 가지를 권고했다.

한편 협상 3주체는 이날부터 열흘 동안의 숙려기간을 갖는다. 조정권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특정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 제안을 서면으로 표명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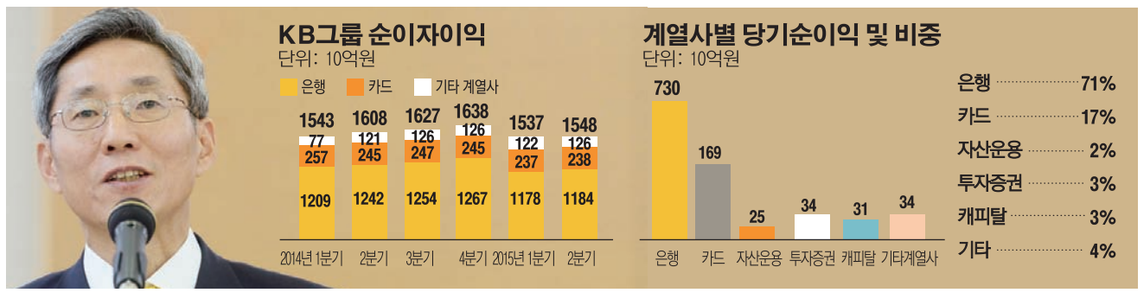
김지영 기자 gutjy@



우울한 실적에도 미소짓는 윤종규 회장

〈KB금융〉

KB금융 2분기 당기순익 3396억으로 44%나 '뚝'
희망퇴직 비용 포함하면 '리딩뱅크' 신한금융 넘어
국민은행은 37.2% 늘어



KB금융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성적표를 내놨다. 희망퇴직 비용이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3390억원에 머물렀다. 전분기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웬일인지 나쁘지 않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경상적 수준의 분기이익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KB손해보험 시너지와 영업력 강화를 통해 거둬들일 하반기 이익에 더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2분기 3396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거뒀다. 전분기(6050억원) 대비 43.9% 감소한 규모다.

효율성 개선을 위해 시행한 1122명의 희망퇴직 관련 비용 3454억원이 2분기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실적에 부담을 줬다. 만약 일회성 비용이 없었다면 KB금융은 2분기 6000억원 정도의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상반기로 따지면 1조2000억원 수준이다. 리딩뱅크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한금융 (1조2841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KB금융 관계자는 "하반기 부터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이번 희망퇴직 비용은 향후 3~4년에 걸쳐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944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전년동기 대비 7515억원 증가했다. 같은기간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순이자마진(NIM) 하락 영향으로 2.1%(663억원) 감소한 3845억원을, 순수수료이익은 신탁이익과 펀드판매수수료 개선으로 16.6%(1106억원) 증가한 776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대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30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37.2%(1천978억원)나 급증한 규모다.

저금리 영향으로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에 1.61%를 기록, 전분기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16.31%(잠정치), 기본자본(Tier1)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모두 14.00%(잠정치)로 집계됐다.

KB금융 관계자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중심의 영업체계를 구축해 국민으로부터 최고로 신뢰받는 리딩금융그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우리銀 가치 높여라" 이광구, 자사주 샀다



〈우리은행장〉

작년 이어 1만주 추가 매입
보유 물량 2만1251주 달해
순자산비율 0.35배 저평가
"성공적 민영화 의지 표현"

정부로 부터 기업가치 제고의 특명을 받은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자사주 1만주를 매입하는 등 주가 부양을 위해 선봉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행장은 지난 22일 자사주 1만주를 장내 매입했다. 주당 매입가는 8910원이다. 이로써 이 행장의 자사주 보유 물량은 2만1251주로 늘었다. 취득 후 지분비율은 0.0031%다.

이 행장은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의 소수지분 입찰에서 우리사주조합이 4%(2700만주)를 낙찰받을 때도 직원들과 함께 자사주를 사들인바 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행장은 취임 때부터 줄곧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기업가치를 올려야 한다"며'강한 은행론'을 표방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주장해 왔다.

특히 그동안 기업금융이 많은 우리은행에 대한 우려로 꼽혔던 건전성 개선에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올해 1·4분기 우리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은 1.9%대를 기록, 지난 8개 분기 이후 처음으로 2%대 이하로 떨어졌다. 향후 이 비율을 1.5%까지 낮춘다는 게 우리은행의 목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5배로 여타 시중은행에 대비해서도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라며"이러한 시기에 은행장의 자사주 매입은 기업가치를 높여 시장에서 인정받아 반드시 민영화를 이루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하는 다섯번째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내놨다.

주가 수준이 가장 중요한 방식중 하나다. 공자위는 매각안 발표에 앞서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태핑)을 실시했으나 해외 사모펀드(PEF) 외에는 선뜻 나서는 투자자가 없어 매각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의 주가는 4월 초 매각 기대감이 커지면서 1만1000원대까지 올랐지만 최근 민영화 장기전 돌입 우려감에 매물이 쏟아지며 8000원대까지 떨어졌다. 박선현 기자 sunhyun@

GS자산운용 인수한 BNK금융 계열사 11개 중견 금융그룹 부상

총 51.01% 지분 확보 최대주주
다음주 8번째 자회사 정식편입

BNK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로 부터 GS자산운용의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BNK금융은 자회사 8개, 손자회사 3개를 거느린 중견 금융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특히 은행과 비은행간 불균형을 개선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마련됐다.

GS자산운용은 2008년 설립된 증권펀드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총자산 약 73억원(3월 기준), 운용자산(AUM)은 3조1400억원 규모이다.

BNK금융은 자산운용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GS자산운용 개인주주지분 인수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51.01%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해 왔다.

김일수 BNK금융 부사장은"그동안 그룹 신규 수익원 발굴과 계열사간 시너지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업 진출을 검토해 왔다"며"이번 GS자산운용 인수를 통해 은행·비은행 계열사간 불균형을 개선함은 물론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세환 회장

김 부사장은 이어 "회사 인수 과정에서 자본금을 확충한 만큼 강화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영업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부산은행, 경남은행 및 비은행 계열사의 영업망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BNK금융은 일정기간 동안 2대 주주와 공동경영을 통해 자산운용업 역량을 업그레이드한 후 최종적으로는 지분 100% 를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BNK금융은 24일 관련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오는 27일 GS자산운용 임시주총을 통해 사명을 BNK자산운용으로 변경한다. 이후 28일 BNK금융의 여덟번째 자회사로 정식 편입할 예정이다.

김우람 기자 hura@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왼쪽)과 조용병 신한은행장(오른쪽)이 '베트남 개인금융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SGI서울보증

서울보증·신한은행, 베트남 진출 업무협약

보증보험 담보 개인대출 내달 출시

SGI서울보증은 신한은행과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에서 베트남 개인금융시장 공동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과 신한은행은 현지 맞춤형 상품·서비스 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로 베트남 현지인 대상 보증보험 담보부 개인대출 상품을 공동 개발해 오는 8월 출시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개인금융이 활성화 되지 않아 현지 개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자동차 등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거나, 제2금융기관인 파이낸스사를 통해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은 신용이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10% 초반의 차별화된 금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은 "해외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 간 협업을 통해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lmj@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줄입점' 농협금융, 내달 광화문·부산서 스타트

금융지주사당 3개이내 시범운영
KB·신한·하나, 연내 목표 잰거름

8월부터 복합점포에 보험 입점이 허용된 가운데 농협금융이 광화문과 부산의 복합점포에 계열 보험사가 입점한다. KB·신한·하나금융 등도 연내 입점을 위해 계열 보험사들과 협의중에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다음달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광화문 NH금융플러스센터'에 입점하고 10~12월 부산에 위치한 복합금융점포 총 2곳도 입점할 예정이다.

서울 복합금융점포는 국내 최초로 은행·증권간 칸막이를 없앤 실질적 복합금융점포 '광화문 NH금융플러스센터'에 농협생명 지점이 입점하는 형태로 문을 연다.

농협생명이 복합점포에 입점하기로 결정한 것은 금융당국이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을 허용한지 한 달도 안 돼 내려진 결정이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의 복합금융점포를 오는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여간 금융지주사당 3개 이내로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 역시 복합점포 입점을 검토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의 경우 연내 복합점포 입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생명과 신한생명은 복합점포 입점을 놓고 하나금융지주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복합점포 입점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금지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이재현 기자 nfs0118@

※ 이 광고에 사용한 모든 서체는 KBIZ한마음체입니다



저작권 걱정 뚝!
중소기업 전용서체 무료배포

사용하는 문서프로그램의 서체에 이용 가능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로 법적조치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BIZ한마음체를 배포합니다.
저작권 고민 없이! 광고, 상표, 인쇄물,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BIZ한마음체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료배포하는 중소기업 전용서체
KBIZ한마음체 종류는? 고딕체, 명조체
KBIZ한마음체 사용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방문 〉 메인화면의 '무료서체 배너' 클릭 〉 다운로드 〉 설치 후 사용
KBIZ한마음체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093~4 *자세한 사용방법 및 라이선스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KBIZ 중소기업중앙회

개인연금,
대신증권으로 옮기면
특판RP 연 3.50% 혜택!

(3개월예치시/세전, 2015.07.01기준/개인고객/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RP 수익률 적용)



**개인연금 이동금액의 10배,
최대 5억 원까지
특판RP 연 3.50% 혜택!**

**이제 대신 연금저축계좌로 옮기세요
대신이니까, 크게 드립니다**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특판RP 수익률은 기본수익률 적용
※ 온라인(홈페이지, HTS)에서도 이전신청 가능

고객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RP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이 손실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P의 만기일 이전 중도환매할 경우 당초 약정수익률보다 낮은 중도해지수익률로 지급됩니다. *대신[밸런스]연금저축계좌의 납입요건,연금수령요건 및 한도,중도해지시 과세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바랍니다. *세액공제의 기준 및 과세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4868호(2015.07.13~2016.07.12)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제일모직, 자사주 250만주 매입한다

오늘부터 총 4400억 규모
자사주 지분율 15.95%로
주주가치 친화정책 강화
주주 권익 위원회 5명 구성

제일모직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일모직은 지난 6월말 열린 IR 간담회에서 합병법인의 주주친화 추진방향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주주 친화정책을 펼치기로 밝힌 바 있다.

제일모직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250만주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은 지난 17일 삼성물산과의 합병 승인을 계기로 보다 신속한 주주 친화정책을 펼쳐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일모직은 보통주식 250만주를 24일부터 장내 매수하며,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2일 종가(17만6000원) 기준으로 4400억원 규모이다.

이번 매입이 완료되면 제일모직의 자사주 지분율은 기존 14.10%에서 15.95%로 1.85% 늘어나며, 합병 삼성물산 기준으로는 12.33%가 된다.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24일 장 초반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제일모직과 합병예정인 삼성물산도 오름세로 매매됐다.

제일모직은 이번 자사주 매입 결정을 시작으로 합병 삼성물산이 밝힌 △30% 수준의 배당성향 지향 △사외이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 위원회 신설 △CSR 위원회 신설 및 주주간담회 운영 등 다양한 주주친화 추진방향을 신속히 실행해 나가고, 주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이후 '합병 삼성물산'의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 주주와의 정기적인 소통, 사회공헌기금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위원회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인원을 총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거버넌스 위원회가 사외이사로만 구성될 경우 주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외이사 3명 외에 외부전문가 2명을 추가로 선임한다.

또 사회공헌 기금을 영업이익의 0.5% 규모까지 확대해 운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CSR(기업의 사회책임)위원회의 운영안도 구체화했다.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회사의 경영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주주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LGD, 영업익 13분기째 흑자
2분기 4800억… 200% 증가

〈전년 동기 대비〉

중소형 제품 수요 꾸준
43·49형 비중 확대 계획

LG디스플레이가 전세계적인 수요 부진 상황 속에서도 13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갔다. 하반기에는 주력 제품인 대화면 패널의 비중을 늘리고 OLED 투자 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올 2분기 매출 6조 7076억원, 영업이익 4881억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5조 9790억원) 대비 1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631억원) 대비 199% 증가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세트 업체들의 구매 조정에도 TV의 대면적 트렌드 지속 및 AIT(Advanced In-Cell Touch) 기반한 중소형 제품의 고객 확대 덕분에 13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반면, 시황 부진에 따른 IT 수요 감소 및 판가 하락의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4%, 34% 감소했다.

LG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 UHD, AIT 등 프리미엄 제품과 함께 주력으로 생산하는 43·49인치 사이즈 제품 비중을 확대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대형 OLED 라인 추가 전환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높이고, OLED TV 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3년가량의 강도 높은 검토를 통해 최근 구미공장 내 플라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POLED) 제품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1조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날 실적을 발표한 LG하우시스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24억원으로 전분기대비 73.1% 늘고 전년동기대비 2.7% 줄었다고 밝혔다. 건설업의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주택 개보수 시장 활성화에 따른 건축자재의 판매 확대, 인조대리석의 글로벌 매출 증대로 전 분기와 비교해 실적이 향상됐다.

LS산전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534억원, 39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36% 늘었다. 이라크 사업 등 글로벌 사업 외부환경 악재가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던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4%, 영업익은 무려 129% 증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롯데면세점 글로벌 3위
작년 매출 4조4500억

롯데면세점이 2014년 세계 면세 시장 3위를 달성했다.

영국의 글로벌 관광·유통 전문지 무디리포트(www.moodiereort.com)가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33억4600만유로(약4조4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2013년 4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스위스 듀프리(Dufry)와 미국 DFS에 이어 3위를 차지해 글로벌 면세 사업자들과 대등한 국제 경쟁력을 갖췄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7월 괌 공항점 그랜드 오픈, 9월 일본 간사이공항점을 오픈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으며, 잠실 월드타워점 이전 오픈을 통해 국내 면세점 최초 매출 4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북경, 상해 등에 위치한 중국 8개 현지사무소를 통해 13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이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630만 명 중 20%를 차지한다.

롯데면세점 이홍균 대표이사는 "2014년 글로벌 TOP 3 달성은 롯데면세점의 세계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면세점 운영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한국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LG유플러스, 홈 IoT 서비스 월 7000원에



LG유플러스는 핵심 IoT 서비스인 에너지미터, 스위치, 플러그, 열림감지센서와 IoT 허브까지 5종의 서비스를 월 7000원(부가세포함 7700원)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10월말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서비스 제공가 1만1000원에서 약 36% 할인된 가격이다. 판촉 기간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IoT 기기비와 설치비도 면제된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LG, OLED TV 유통 전문가 1500명 육성

LG전자가 OLED TV 유통 전문가를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LG전자는 양판점, 할인점, LG베스트샵 등 모든 판매점에 걸쳐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올 연말까지 1500명의 OLED TV 유통 전문가를 육성한다고 24일 밝혔다.

LG전자 제품 판매사원이 OLED TV의 패널 생산부터 제품 판매까지의 과정을 견학하고, OLED의 화질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OLED TV를 찾는 고객들이 크게 늘면서 판매사원이 고객들에게 진정한 프리미엄 TV의 가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LG전자는 최근 LG베스트샵 대표 10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 최대의 올레드 TV 패널 생산기지인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견학을 진행했다. LG전자는 화질의 정의와 구성요소, OLED TV의 특징 등을 소개하고, LCD TV 등 다른 제품들과의 화질 비교를 통해 OLED TV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LG전자는 소비자 행동, 소비심리, 비즈니스 매너까지도 교육과정에 추가할 계획이다. LG전자는 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LG 올레드 TV 명장' 뱃지를 수여해, 판매사원의 자신감과 고객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올레드 TV 대중화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한국HE마케팅담당 허재철 상무는 "판매사원 스스로가 단순한 판매 역량을 키우기보다 진정한 프리미엄 TV의 가치를 전달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수입차, '최대 격전지' 부산 공략 나선다

등록대수 지난달 10만대 돌파… 전체 자동차 10대 중 1대꼴
벤츠 내달 팝업스토어 운영… 피아트·지프 서비스센터 열어

수입자동차 업계가 최대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공략에 분주하다. 판매점 개설을 넘어, 소비자와의 접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

24일 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시의 등록된 수입차는 10만5579대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섰다. 동시에 전체 자동차 시장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를 넘어서면서 수입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입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차는 지난해 말 9만559대에서 불과 6개월 사이에 1만대 이상 늘어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섰다.

부산의 수입차 증가세에 수입차 업계에선 부산 소비자 공략을 위해 신규 서비스센터 설립과 팝업스토어 개장 등 소비자와의 스킨십 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벤츠는 2030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8월 한달간 팝업스토어 '메르세데스 미(Mercedes me)'를 운영키로 했다. 벤츠는 이미 지난해 서울 강남 신사동에 메르세데스 미를 열고 2030세대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당시 단 6일만에 1만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팝업스토어를 찾아 성공적인 마케팅을 거둔 바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관계자는 "메르세데스 미 부산점은 통해 젊은 층이 쉽게 벤츠를 직접 만져보고 시승해 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30~40대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벤츠 브랜드에 대한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출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피아트와 클라이슬러 지프를 취급하는 FCA 코리아도 부산 해운대에 서비스센터를 열었다. 총면적 1302m2(약 394평) 규모인 이 서비스센터는 5개의 워크베이를 통해 하루 최대 25대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편의 시설도 갖춰져 있다. 서비스센터 1층과 2층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 인터넷, 최신 매거진, 비디오와 오디오, 바텐딩 서비스 등을 즐길 수 있다.

폭스바겐도 2030 세대를 타깃으로 서비스 센터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올해 초 새롭게 오픈한 지상 11층 규모의 해운대 전시장에서 24일부터 내달 9일까지 윤은석 작가의 작품 전시회를 연다.

김범근 기자 nova@

넷마블, 美 게임사 SGN 인수

1500억 투자 최대주주로… 북미·유럽시장 공략

넷마블게임즈는 23일 미국 모바일게임사 '에스지앤(SGN)'에 1500억원을 투자하며 최대주주로 올랐다고 밝혔다. 글로벌 게임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북미·유럽시장을 공략하고, 에스지앤은 아시아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방준혁 의장

에스지앤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마이스페이스'의 창업자인 크리스디울프와 에이버휘트콤, 폭스사 임원출신 조쉬 구아도가 설립한 모바일 게임회사다. EA와 소니엔터테인먼트, 맥시스, 징가 등 전세계에서 유명한 게임사 출신의 경력 개발진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유럽 지역 매출 10위권 내에 올라있는 게임 중 쿠키잼, 판다팝, 북오브라이프, 주스잼 등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게임 다운로드 5억건, 월 평균 이용자 수 30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캐주얼?퍼즐 게임 장르에서 영국의 킹(King)사에 이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에스지앤의 경영은 창업자이자 현 경영자 3인이 독립성을 갖고 계속 경영한다.

넷마블은 에스지앤과 중국·아시아 파트너십을 공유하고 기술교류 등을 통해 에스지앤 게임이 아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는 "에스지앤은 서구 캐주얼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 받은 개발력과 매출 상위게임들을 서비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풍부한 글로벌 마케팅 경험도 갖추고 있어 서구 시장 본격 진입을 원하는 넷마블에게 최적의 파트너"라며 파트너십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방준혁 의장은 앞서 15일 열린 '1st NTP(Netmarble Together with Press)' 행사를 통해 해외 게임업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준혁 의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해외 게임업체 M&A를 추진하고 있다"며 "넷마블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구글플레이 게임위크' 개막

구글코리아는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사와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 '구글플레이 게임 위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3일부터 5주간 진행되는 구글플레이 게임 위크는 구글, 게임 개발사, 유튜브 게임 크리에이터, 게임팬이 함께 하는 온·오프라인 이벤트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와의 팬미팅과 이색 대결, 구글플레이 게임 아이템 증정 등 게임팬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로 꾸며질 예정이다.

구글플레이 게임 위크에는 국내 게임 개발사인 넥슨·넷마블·와이디온라인·컴투스와 유튜브 게임 크리에이터 채널인 도티·액시스마이콜·잠뜰·태경이 참여한다.

조성준 기자 tiatio@

개인방송 전성시대… 연예 기획사도 뛰어들어

'1인 미디어' 봇물… 아프리카TV·다음카카오 등 '샅바싸움'

'백주부(백종원-마이리틀텔레비전)', '4대 여신(김이브·박현서·엣지·꽃빈-아프리카TV)' 등 일반인부터 요리사, 게이머, 연예인까지 수많은 스타가 1인 미디어에서 새롭게 발굴되고 있다. 연예 기획사 마저 1인 미디어 플랫폼을 보유한 IT 기업들과 손잡고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1인 미디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TV, 다음카카오, 네이버, 판도라TV 등이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이들 가운데 1인 미디어의 시초 격인 아프리카TV가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TV는 전날 가수 윤종신이 대표로 있는 미스틱엔터테인먼트와 공동출자해 합작법인 '프릭'(Freec)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카카오가 MBC와 함께 내놓은 연예인 중심의 개인방송 '마이리틀텔레비전'이 예능프로그램 전반을 뒤흔드는 성공을 거두자, 일반인 BJ로 잔뼈가 굵은 아프리카TV 역시 스타 발굴 노하우가 풍부한 연예기획사와 손잡고 전문성 확보에 들어간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동영상 유통 플랫폼에서 가장 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콘텐츠 제작사와 활발한 제휴를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다음tv팟'으로 유통된다. 이는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인 '카카오TV'로도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 샵' 검색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해 콘텐츠 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이뤘다는 평가다.네이버는 '브이(V)'라는 이름의 1인 방송 플랫폼을 출시하고 다음달 초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네이버 역시 다음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연예인을 개인방송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글로벌 진출에 초점을 맞춰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K팝 한류를 이끄는 가수를 대거 기용했다.

판도라TV도 모델과 배우 전문 엔터테인먼트사인 클라이믹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시장에 뛰어 들었다.

박성제 기자 psj@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3차)

본 삼성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5년 7월 2일 조합정관 제52조에 의거 조합해산이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되었고 동년 7월 15일 해산 및 청산인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본 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계를 본 조합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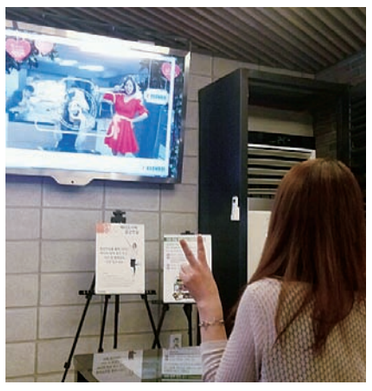
2015년 7월 24일

삼성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4길 34
대표 청산인 김 준 우

세븐일레븐 명동 중국대사관점 가보니

'스마트 테이블'서 유튜브 보며 이색 한끼

ICT기술·지역 맛집·도시락카페 접목 '창조경제형 편의점'으로 새로운 진화
'스마트 선반' NFC 기술로 쿠폰 다운 증강현실서 걸스데이 혜리와 인증샷





"걸스데이 혜리의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세븐일레븐 중국대사관점으로 오세요. 가상공간에서 혜리와 사진도 찍고 춤도 추세요."

쇼핑 명소로 자리잡은 명동에 24일 오픈한 '세븐일레븐 도시락카페 2호 중국대사관점'은 걸스데이 혜리 홍보에 한창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요커가 집결한다는 명동에 유명 걸그룹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매장이라고 하니 귀를 솔깃하게 했다.

세븐일레븐은 이날 SK텔레콤과의 제휴를 통해 구성한 스마트 공간과 편의점, 지역 맛집까지 한데 통합한 복합 편의점을 오픈했다. 일명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으로,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지향하는 매장 방식이다.

1층 편의점 매장을 둘러보니 각 매대 위에는 '스마트 선반'이라고 적힌 직사각형 기계가 설치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스마트 선반에는 3~4개 화면을 통해 광고가 나오고 옆에는 NFC기술을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세븐일레븐과 제휴에 나선 SKT의 김용상 기업솔루션부 부장은 "세팅된 광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매대에 놓여진 제품 광고가 나온다"며 "세븐일레븐 회원이 지나가면 안내방송이 나오고, 가위바위보 게임 등의 콘텐츠 기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의 스마트 선반은 오는 8월부터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며, 앞으로 SKT와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합 구조인 2층에서는 편의점이 아닌 카페 공간과 어묵식당 '고래사'가 입점해 기존 도시락카페와 다른 숍인숍 매장을 구현했다.

특히 카페공간에 설치된 6개의 '스마트 테이블'은 이번 세븐일레븐 중국대사관점의 가장 큰 차별화 요소다.

스마트 테이블에서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세븐일레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도 응모가 가능하다.

본지 기자가 23일 세븐일레븐 중국대사관점 2층에서 스마트 테이블을 통해 걸스데이 혜리와 사진을 찍고 있다. 세븐일레븐과 SKT가 제휴를 통해 만든 스마트 선반은 각 매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화면을 통해 광고 및 이벤트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그중 1개는 바로 혜리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증강현실 기능이 탑재돼 있다. 테이블에 앉아 '혜리와 함께 한다' 버튼을 선택하면 앞에 놓여진 대형 화면에서 혜리가 춤을 추며 등장한다. 갑자기 혜리가 사진을 찍는 포즈를 취하고 5초 후 혜리와 함께 기념사진이 찍힌다. 이후 스마트 테이블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문자메시지 형태로 바로 전송된다.

이재성 세븐일레븐 커뮤니케이션 부문 팀장은 "편의점도 앞으로 ICT와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를 함께 갖고 가야 하는데 이번 세븐일레븐 중국대사관점이 이를 지향해서 시범 운영에 나서게 됐다"며 "이번 창조경제형 편의점을 시작으로 다양한 협력 모델을 시도하고 향후 편의점의 새로운 진화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여름철 내 아이 건강 지켜줄 상비약은?



소염진통·해열제부터 소화제까지 먹고 바르기 쉽게…생약이라 안심

국내 제약회사들이 각종 사고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여름을 겨냥,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염진통제·해열제 등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며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30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겔타입 소염진통제인 '둥근머리물팝스겔'를 올해 출시했다. 둥근머리물팝스겔은 국내 최초로 dl-캄파·살리실산메틸·l-멘톨 등 소염 및 진통에 효과적인 총 6가지 성분을 복합적으로 함유하고 있다. 또 야외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타박상·근육통·삠에 효과적이다.

광동제약이 출시한 어린이 해열진통제 '키즈앤펜시럽'은 알약을 삼키기 힘든 어린이를 위해 시럽을 소포장한 제품으로,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3~6세 어린이의 1회 복용 권장량 5ml 기준으로 개별 스틱형 파우치로 포장돼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계열 약물 중 해열 진통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진 이부프로펜이 주성분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오렌지 향을 첨가해 거부감없이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녹십자의 '백초 시럽'은 순수 생약 성분으로 처방된 어린이 소화정장제로, 백삼·감초·계피 등의 생약 성분이 소화 및 정장과 지사·진정 및 진경의 작용을 도와 아이들의 소화불량·식욕부진·복통·설사 등을 완화시킨다. 백초 시럽은 설사를 멎게 하는 성분을 포함하거나 장을 자극해 변비를 치료하는 제품들과는 달리 위와 장의 기능을 증진시켜 치료하기 때문에, 설사나 변비 증상 모두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체질 차이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복용이 가능하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건강 수칙을 숙지하고 상비약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면서 "상비약을 구매할 때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인효 기자 kangih@

중국은…'이종석 텀블러·이민호 치킨'앓이중

락앤락, 보온·보냉병 中 매출 23.5% 껑충
교촌은 글로벌사업 탄력 태국 4호점 오픈
빈폴 김수현 바람막이 사러 유커 방한도



한류스타의 광고모델로 기용한 브랜드들이 모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브랜드들의 매출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4일 락앤락에 따르면 이 회사의 보온·보냉병 신제품이 지난해 12월 기용한 모델 이종석과의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1분기 보온·보냉병 매출이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23.5% 성장했고, 한국은 63.8% 증가했다.

최근 출시된 '텀벨보틀'도 이종석 효과에 힘입어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다. 락앤락 '텀벨보틀'은 유산소 및 근력 운동 시 자주 사용하는 운동기구인 덤벨의 디자인을 물병에 차용한 제품으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다.

락앤락 커뮤니케이션본부 이경숙 이사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스타 이종석의 팔색조 같은 매력이 락앤락에 밝고 젊은 이미지를 부여해 보온·보냉병, 물병 등을 중심으로 젊은층의 매출 비중이 높아졌다"며 "하반기에도 텀블러, 캐릭터 제품 등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는 만큼 이종석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촌치킨은 지난해 3월 기용한 모델 이민호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글로벌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에 재계약을 마무리짓고, 올해 그 여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중국은 물론 범아시아권까지 글로벌 영역을 아우르는 이민호의 스타파워와 교촌치킨의 적극적인 해외매장 경영방침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폭적인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태국 4호점 오픈식에 이민호의 행사 참석이 알려지면서 구름 인파가 몰렸고, 올해 필리핀 3호점 오픈식에도 1만여명의 현지 고객이 현장을 찾았다.

김수현 효과는 유통업계에서 이미 유명하다.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곳은 제일모직의 빈폴아웃도어. 빈폴아웃도어는 론칭과 함께 김수현을 모델로 앞세워 첫 해 380억원 달성했고, 2013년에는 1100억원, 지난해에는 1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김수현 패딩·바람막이 등의 아이템이 히트를 치면서 중국인들이 해당 상품을 사러 방한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선애 기자 lsa@

여름보다 핫한 '망고빙수'

망고 얼음에 생망고 통째로 '웰빙 디저트'
카페·베이커리부터 호텔까지 신제품 봇물





올 여름 유통가의 핫한 디저트는 '망고빙수'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얼음에 망고를 얹었다는 똑같은 방식인데 카페, 베이커리부터 전문점에 이어 호텔까지 망고빙수 신제품 출시가 줄을 잇는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지난 4월 망고를 활용한 빙수와 주스 등 신메뉴 6종을 선보이며 스타트를 끊었다. 신제품 '코니망고눈꽃빙수(1만1800원)'는 생망고를 통째로 얹었으며 얼음도 노란 망고얼음이다.

망고식스는 브랜드 명에 뒤지지 않게 망고빙수만 10종(1만~1만3000원)을 출시했다. 생망고빙수부터 생망고청포도빙수, 생망고딸기빙수 등 다양하다. 또한 뚜레쥬르와 마노핀 등 베이커리에서도 올 여름 망고빙수는 물론이며 망고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내보였다.

특히 망고를 활용한 빙수제품만을 파는 브랜드인 '로이즈 빙수'도 최근 매장수를 늘리고 있다. 메뉴는 '생망고 목화 빙수', '생망고 우유 목화 빙수' 등 단 2개. 로이즈 판교점을 기점으로 지난해부터 서울에도 입성, 올해엔 로이즈 제2롯데월드몰점, 여의도 IFC몰 등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상권에 입점하고 있다.

유통가의 망고빙수 열풍에 호텔에서도 파티쉐의 손길이 닿은 망고빙수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은 지난 22일부터 최고층인 41층에 위치한 로비라운지 바에서 망고와 망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다양한 과일을 한 번에 맛 볼 수 있는 '망고 빙수(3만8000원)'를 선보였다.

식음료 업계 관계자는 "웰빙 열풍과 달콤한 망고맛이 소비자를 끄는 매력인 것 같다"며 "최근 망고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업계에서도 망고를 활용한 메뉴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배부른 건설사, 高분양가 '배짱'

주택시장 호황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장 섰을때 팔자" 가격 올리기 본격화
동탄2 '사랑으로'·풍무 '푸르지오2차'
시세보다 평당 200만~300만원 비싸
수요자들 "아무리 저금리지만" 불만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김포풍무 푸르지오2차' 조감도.

최근 수도권에서 공급된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김모(33)씨는 부동산시장 호황기를 맞아 내 집을 장만하고자 은행 대출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김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거 같다"며 "빚내서 집 산 보람도 없이 행여 나중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올해 들어 분양시장의 호황으로 건설사들의 분양가격 올리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적용되면서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명분도 생겼다. 이로 인해 올 봄부터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내 집 마련에 기대를 걸고 있던 수요자들이 이제는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동탄2사랑으로 부영', '김포풍무 푸르지오2차' 등은 시세보다 3.3㎡당 200만~300만원 높은 가격으로 고분양가 논란을 낳고 있다.

우선 부영주택에서 내놓은 '동탄2사랑으로 부영'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된 다른 아파트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져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말을 종합하면 부영주택에서 내놓은 동탄2신도시 A23블럭 분양가는 전용 84㎡의 경우 기준층 기준 3억6840만원에 책정됐다. 이는 A23블록 인근에서 2013년 공급된 '반도유보라2차' 분양가인 2억9990만원에 비해 7000만원 정도 더 비싸다.

'반도유보라2차'의 경우 분양가에 비해 4000만~5000만원 가량 프리미엄이 붙은 3억4000만원 안팎에 시세가 형성된 상태다. 그러나 '동탄2사랑으로 부영' 가격은 기존 아파트 분양가와 현재 시세에 비해서도 2000만원 정도 더 높게 책정된 것이다. 이 아파트는 또 분양가가 3.3㎡당 평균 1110만원으로 인근 '동탄2 푸르지오' 분양가(910만원)에 비해 200만원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 결과도 좋지 않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동탄2 사랑으로 부영'(A23 단지) 1순위 청약에서 84㎡ 전 타입이 미달됐다.

일각에서는 부영주택이 서민주거 안정을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분양가격이 시세 대비 저렴하지 않지만 평균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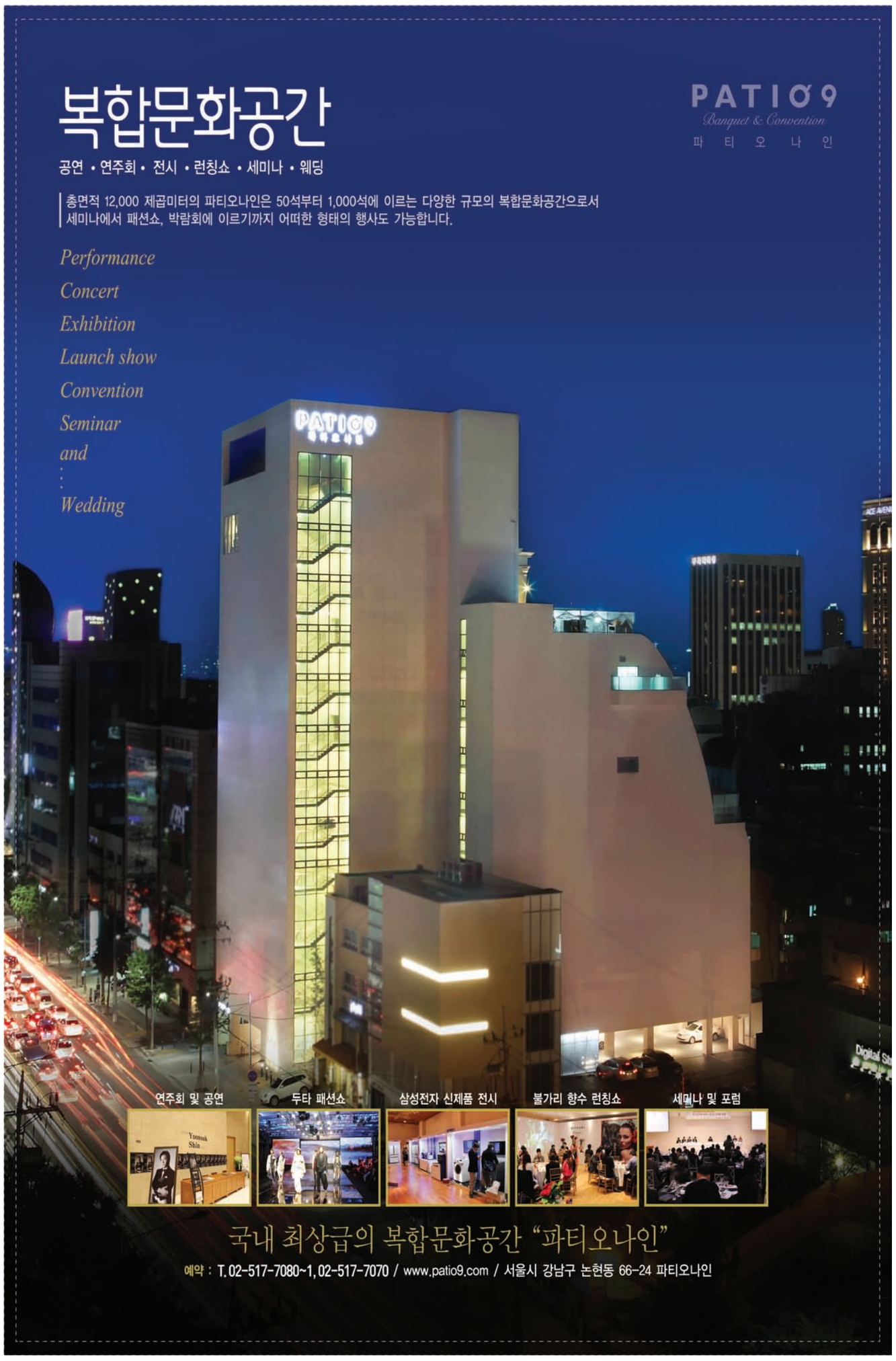
분양에 들어가는 '김포풍무 푸르지오2차'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 중후반대로 예상된다. 1년 전 1차 분양가보다 200만원 더 오른 것이다. 전체 분양가로 환산하면 2차 물량이 1차분보다 6000만원 넘게 상승했다.

건설사들은 신규 단지 분양가격 책정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요자들은 몇 달새 치솟는 값에 불만이 커지는 양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장이 선 만큼 팔 수 있을 때 다 팔아야 한다"면서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거주 중인 한 수요자는 "시장이 호황인 것은 알겠지만 평당 몇백만원씩 올리는 것은 너무하다. 현재 단지 부지 인근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 프리미엄까지 미리 예상해 시세와 맞춰 내놓으면 저금리 기조라도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태진 기자 tjpippo@



그래서? 미분양 40%가 대형사 물량



5월 기준 2만2141가구 중 9200여 가구
인천·용인 등 수도권 지역 쏠림현상 심화
두산重 1000가구 최다…GS·현산 뒤이어
서울 대다수 재개발·재건축 단지서 발생
'아현역 푸르지오'는 절반 가량이 미분양

대형사 미분양 가구 수가 전체 미분양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용인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대다수가 주택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미분양 가구수는 2만2142가구에 달한다. 이 중 대형 건설사의 미분양 가구수는 9200여 가구로 이 중 88%인 8100여 가구가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대형사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는 곳은 경기도로 5992가구가 대형사 미분양 물량이다. 최근 주택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667가구, GS건설이 856가구로 각각 1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용인행정타운에 공급한 두산위브 단지에서 1000가구가 넘는 미분양이 발생했다.

이들 미분양은 주로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로 공급된 단지에서 발생했다. 용인행정타운의 두산위브, GS건설의 용인 수지 성복자이는 각각 1293가구, 1502가구 규모다. 경기도 미분양 가구 중 14% 비중을 차지하는 GS건설은 이 중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미분양 가구수가 이 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인천지역도 마찬가지다. 인천 미분양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영종하늘도시45블록 역시 총 분양 가구수는 1628가구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이 단지에서만 331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대표적 고분양가 재개발 단지인 아현역 푸르지오는 3.3㎡당 2040만원대로 책정됐다. 전용59㎡당 4억9700만원인 이 단지는 인근 북아현동 두산 아파트(전용 59㎡ 기준 최저 2억7000만원)보다 시세가 최고 1억원이 높다. 이 단지는 총 315가구가 분양됐지만 5월 기준으로 139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서울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 사업장은 총 14개로 이 중 12개 사업장이 재건축·재개발 단지이다. 미분양이 발생한 전체 물량은 865가구로 이 중 5가구를 제외한 860가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정경진 기자 jungkj@

현대건설 컨소시엄 '개포8단지' 품었다

현대ENG·GS와 1조1908억 단독 응찰
2000가구 규모 3.3㎡당 4000만원 전망



서울 강남구의 개포 8단지 공무원아파트 단지 사업시행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2일 개포 8단지 공무원아파트 일괄매각 입찰 시행결과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독으로 응찰해 1조1908억5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건설사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응찰가가 1조5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하지만 1조원이 넘는 가격에 향후 사업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입찰 보증금만 최소 600억원에 달하는 등 건설사들로서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하게 됐다.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세 건설사의 지분율은 △현대건설 40% △GS건설 33.3% △현대엔지니어링 26.7%로 파악됐다.

개포 8단지는 토지 면적 7만10946㎡, 용적률 120.7%에 12층 아파트 10개 동 1680가구 규모로 지난 1984년 3월 31일 준공됐다. 또한 9단지는 5만5153㎡ 규모로, 1983년 12월1일 준공됐다. 용적률은 63.2%로 5층 아파트 20개동이 세워져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앞으로 개포8단지를 허물고 용적률 230%(기부채납시 250%), 건폐율 60%를 적용해 35층 높이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착공은 잔금납부 이후인 2017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으며 이 시기에 일반분양도 시작될 전망이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개포8단지를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측은 개포 8단지 매각으로 인해 줄어든 임대주택 공급량을 현 690가구에서 20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해 기존 공급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SH '정부3.0' 정책과제 달성에 역량 모은다"

변창흠 사장, 정기적 정책추진 모니터링
"정보 공유·개방…참여모델로 발전해야"



서울시 SH공사는 소통과 협력의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3.0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보공개와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22일 공사 2층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부3.0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현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전사적인 역량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변창흠〈사진〉 사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에게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공사의 존재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공사가 정보공개와 공유, 참여모델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사는 정부3.0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정부3.0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사전정보공표 및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 분석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정책 핵심 추진과제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또 '정부3.0' 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으로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통한 정책 이해와 아이디어 제안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정부3.0'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3.0' 정책 추진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FT 품은 닛케이… 글로벌 미디어 '3强체제'로

〈英 파이낸셜타임스〉 〈日 니혼게이자이신문〉

1.5조원에 인수… WSJ 다우존스·블룸버그와 경쟁

'글로벌 보도 강화·디지털 사업 성장' 동시에 추진

인터넷·모바일 보급으로 미디어업계 재편 가속도

일본 닛케이와 영국 FT의 결합

닛케이		FT
1876년	설립연도	1888년
316만명	전체 유료독자	73만명
43만명	온라인 유료독자	50만명

※ 출처: 닛케이

양사 주요 개요

닛케이
- 중외물가신보로 창간해 일본 최대경제지로 발전
- 2010년 닛케이 전자판 창간
- 2013년 가을 아시아 정보 영어로 보내는 닛케이아시안리뷰 창간
- 지난해 봄 아시아 취재 거점 태국 방콕에 신설

FT
- 영국 교육그룹 피어슨이 1957년 인수
- 1995년부터 인터넷판 창간 등 일찍부터 디지털화 진행
- 현재 유료 독자의 70%가 온라인
- 전체 가입자 3분의 2가 영국 밖

글로벌 미디어 업계에 역대 최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139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최대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7년 전통의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수했다.

FT의 모회사인 영국 교육·미디어그룹 피어슨은 23일(현지시간) FT를 닛케이에 8억4400만 파운드(약 1조5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에는 FT가 보유한 현금 1900만 파운드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닛케이가 지불하는 금액은 8억2500만 파운드다. 피어슨이 지분 50%를 가진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거래는 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 4분기께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의 FT 인수는 일본 미디어 업체의 해외기업 인수 사상 최대 규모이며, 닛케이는 구독자 수 기준 세계 최대의 미디어 그룹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피어슨은 주력 사업인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꾸준히 자산을 매각해왔다. 이에 FT를 둘러싼 인수·합병(M&A)설도 끊임없이 나돌았다.

닛케이는 세계 굴지의 가치를 지닌 FT를 등에 업고 글로벌 보도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사업 등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76년 창간한 닛케이는 현재 신문과 온라인을 합한 유료 구독자 수가 316만명, 1888년 창간한 FT는 현재 구독자 수가 73만명에 이른다. 특히 FT의 온라인 유료 독자 수는 약 50만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닛케이도 인터넷판 독자가 43만명에 달하고 있다. 양사의 인터넷판 유료 독자는 약 93만명으로 미국 뉴욕타임스(NYT, 91만명)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게 된다. 신문 발행 부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 146만부)의 2배에 이른다.

닛케이와 FT의 통합으로 글로벌 종이 매체에서는 WSJ를 산하에 둔 미국 다우존스그룹과 함께 2강 구도로 좁혀졌다. 통신사인 블룸버그통신까지 포함시키면 세계 3강 구도를 구축하게 되는 셈이다.

닛케이가 FT를 인수하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 언론사의 과제인 '디지털화'와 '국제화'가 있다. FT와 NYT, WSJ 등 세계 주요 언론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디지털 퍼스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FT는 온라인 유료 독자 이외에 무료 독자도 640만명에 달해 디지털화에 가장 성공한 미디어로 꼽히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종이 매체의 판매 부수와 광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글로벌 미디어업계의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나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국시장에 묶일 필요가 없다. 이는 특히 업계의 세계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2007년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프는 다우존스를 인수했으며 2013년에는 미국의 저명 정치지인 워싱턴포스트(WP)가 제프 베조스 아마존 설립자의 품에 안겼다. 구미시장에서 강점을 지닌 FT와 아시아 중심의 닛케이 역시 지리적으로 보완하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AP/뉴시스

그리스 2차 개혁안 승인

24일 3차 구제금융 협상

내달 20일 32억 유로 채무 이행해야

그리스 의회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채권단과 약속한 2차 경제개혁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내달 20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32억 유로의 채무 이행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스 의회는 23일 국제채권단이 3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내건 2차 경제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에는 은행 도산 시 채권자와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는 유럽연합(EU)의 은행회생 정리지침 준수와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등 2개 법안이 상정됐다. 그리스 의회는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30명, 반대 63명으로 2차 경제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리스는 채권단이 요구한 3차 구제금융 협상 조건을 충족, 이와 관련한 공식 회담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은 24일 그리스 아테네에 모여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시작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3차 구제금융 협상 역시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랄프 브링크하우스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원내부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협상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리스 의회가 개혁안을 실행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IMF의 게리 라이스 대변인도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진전되려면 (그리스의) 정책 개혁 방안과 그에 대한 의지, 그리고 자금조달 방안을 비롯한 실행 계획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협상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단 측은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고자 브릿지론의 재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한 달 뒤 돌아오는 ECB 채무 상환 기한 전까지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지 않으면 그리스는 다시 디폴트에 직면한다.

서지희 기자 jhsseo@

아마존 '어닝서프라이즈'

세계 최대 소매업체 등극

2분기 매출 27조원 20% ↑… 시총 2600억 달러로 월마트 제쳐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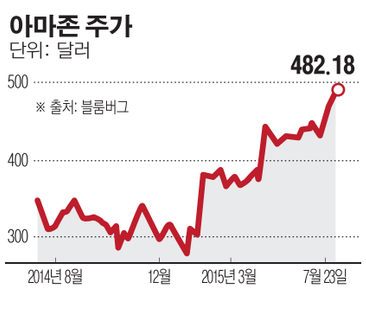
아마존은 23일(현지시간)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급증한 232억 달러(약 27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224억 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9200만 달러, 주당 19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2600만 달러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하고 시장 전망인 주당 14센트 순손실도 뛰어넘었다. 회사는 이번 3분기 매출이 233억~2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월가 전망은 239억 달러다.

아마존 주가는 나스닥에서 이날 1.25% 하락한 482.18달러로 마감하고 나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최대 19%까지 폭등했다.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시간외 거래에서의 폭등으로 아마존 시가총액이 2600억 달러를 넘어 약 2335억 달러인 월마트를 제치고 시총 기준 세계 최대 소매업체로 등극했다고 전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아마존은 설립 당시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전자제품과 가정용품 등으로 영역을 넓혔으며 공격적인 투자로 꾸준히 사업영역을 확대해왔다. 아마존의 지난 분기 영업비용은 227억 달러로 전년보다 17% 늘었지만 매출 증가율보다는 낮았다.

마이클 팻처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은 온라인 소매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제 세계 최대 소매업체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에 대한 경쟁사들의 도전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월마트는 아마존 프라임에 대항해 새 회원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마존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기치로 내건 온라인 소매 스타트업 제트닷컴이 이번 주 출범했다.

아마존은 핵심인 온라인 소매 부문은 물론 다른 사업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는 지난 분기 18억2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보다 81% 급증한 것이다.

브라이언 올사브시키 아마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리는 경쟁에 익숙하다. 그러나 초점은 역시 고객이다. 실적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中주식 사재기' 나선 재팬머니

폭락장세에도 中경제 여전히 6%대 성장 매력적

지난해 매수 규모 15조원… 전년보다 67% 급증

일본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국 증시로 쏠리고 있다. 최근 중국증시의 폭락 여파로 개별 종목들의 시세가 떨어지자 저가매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까지 가세하면서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투자자들이 지난해 사들인 중국 주식 규모는 1조6000억 엔(약 15조원)으로 집계됐다고 일본은행(BOJ)이 최근 발표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67%나 급증한 수준이다. 일본 투자자들에게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지만 갈수록 중요한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WSJ는 중국증시에 관심을 보인 대표적인 기업 사례로 일본 생명보험사인 다이이치생명보험을 꼽았다. 다이이치생보는 지난 2006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 본토의 주식 및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적격외국기관투자(QFII)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주식시장에 공을 들여왔다. 회사는 지난달 중순 중국증시가 정점을 찍고 폭락장세를 연출하자 중국 주식을 사들였다. 올해 초 주가가 급등하면서 마련된 현금으로 저가 매수 기회가 생긴 중국증시에 투자한 것이다.

이와부치 코야 다이이치생보 책임 매니저는 "중국 경제가 정체기라고 해도 성장률은 여전히 6% 수준에 이른다"면서 "중국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중국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지만 일본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더욱이 중국당국이 증시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에서도 일본 투자자들은 중국증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투자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다.

닛코자산운용의 탄응텍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헬스케어, 자동차, 기술 등 일부 종목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중국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면서 "오히려 지나치게 급락했다고 판단되는 주식이 이 점이 있다고 판단해 관심을 갖고 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WSJ는 아직도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증시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도 전했다. 중국 본토시장에서 거래가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무라이 도시유키 미쓰이스미토모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국증시에서 많은 기업이 거래를 정지한 것을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국증시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웰컴, 오바마"

케냐 나이로비 시내에서 23일(현지시간) 오토바이를 탄 시민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이 박힌 환영 깃발을 달고 달리고 있다. 24일부터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2박3일 간 '아버지의 나라'인 케냐를 방문한다. 케냐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케냐에선 '금의환향'으로 여기고 환영하고 있다. 나이로비/AP연합뉴스

이탈리아 명차 페라리

연말 뉴욕서 기업공개

이탈리아 명차 페라리가 올 연말께 미국 뉴욕에서 기업공개(IPO)를 실시한다.

페라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PO 시점은 올 연말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페라리의 이번 IPO 신청은 모회사인 피아트 크라이슬러(FCA)로부터의 분사 계획을 밝힌 지 9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FCA는 IPO를 통해 페라리 보유지분 10%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또 10%는 페라리 창업자인 엔초 페라리의 아들 피에로 페라리가 유지한다. 나머지 80%의 지분은 페라리가 보유하게 돼 이 과정에서 페라리의 분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페라리의 자산 가치는 90억 달러(약 10조44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IPO 시 발행되는 주식규모는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페라리가 연간 생산량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사실상 차량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페라리의 기업가치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페라리는 총 7255대를 제작했고 이들 차량 대부분의 가격은 대당 100만 달러를 웃돌았다. 2014년 FAC의 페라리 부문의 매출은 27억6000만 달러, 순이익은 2억6500만 달러였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中 위안화 IMF SDR 편입 연기되나

IMF "금융시장 개혁 더 필요"

국제통화기금(IMF)는 중국 위안화가 국제준비통화의 지위를 얻으려면 금융시스템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위안화를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시키려고 노력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IMF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위안화 SDR 편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국의 금융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것 먼저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MF의 이런 발언에 대해 "중국 위안화 준비통화 추진에 대한 미국의 의견을 IMF가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IMF가 위안화를 준비통화로 편입할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 금융시장 개혁"이라며 "우리는 올 연말까지 중국에서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IMF는 그동안 중국 시장과 연계된 연구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앞으로도 비공식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IMF의 중국 금융시장 개혁 주문에 따라 위안화 편입 여부는 당초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시장에선 올 10월이나 11월쯤 중국 위안화 편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WSJ는 "IMF가 그간 여러 논의를 거치는 등 위안화의 준비통화 편입에 대한 신호는 보였지만, 이날 IMF가 중국 금융시장 개혁 등을 강조함에 따라 위안화 편입 여부는 내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라이스 대변인은 "위안화의 편입 여부는 자유로운 통화 사용 가능성에 있다"며 "최근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위안화 SDR 편입 문제와의 다른 이슈"라고 설명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NASA "크기·궤도 등 지구와 유사"

'또 하나의 지구' 케플러-452b

1400광년 거리… '지구 2.0' 후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또 하나의 지구'가 태양계 밖에서 최초로 발견됐다고 23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밝혔다.

해당 행성은 지구에서 1400광년(1경 3254조km) 떨어져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 가운데 크기와 궤도 등이 지구와 가장 비슷해 '지구 2.0'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날 NASA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 브리핑을 통해 항성 '케플러-452'와 그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 '케플러-452b'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행성 케플러-452는 백조자리에 있고 분광형으로 볼 때 태양과 같은 'G2'형이라고 NASA는 설명했다.

온도는 태양과 비슷하고 지름은 10% 더 크고, 밝기는 20% 더 밝다. 행성의 나이는 우리 태양(45억년)보다 15억년 더 많은 60억년이다.

지구 크기와 비슷한 외계 행성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케플러-452b는 지금까지 발견된 '거주 가능 구역' 행성들 가운데 가장 크기가 작다. 공전주기는 385일로 지구보다 약 5% 길고, 이 행성과 그 모항성 케플러-452의 거리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보다 5% 멀다.

아직 이 행성의 질량과 화학적 조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연구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행성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바위로 이뤄져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수학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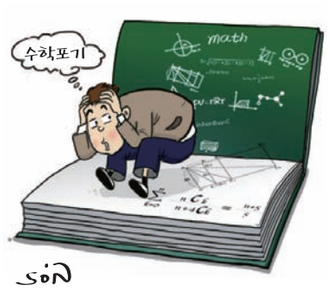
(1) 11x11=4, 22x22=16, 33x33=?

(2) 3초 안에 답을 대시오. 아빠가 43세이고 아들이 13세라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빠의 나이는?

(3) 123,456,789+123,456,789-123,456,789÷123,456,789x123,456,789=?

1번 문제는 수학이 아니라 무슨 수수께끼 같다. 몇 달 전에는 정답을 알았는데 지금은 생각나지 않는다. 2번 문제의 답은 30세 아닌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왜 냈지? 무슨 함정인가? 3번 문제는 123,456,789라는 답을 알았지만, 생각해 보니 '수학의 오묘함'을 알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숫자 장난이었다.

최근에 읽은 이런 '문제'나 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어떤 고등학생 너석의 글이다. "이번 수학 시험 문제는 근래 보기 드물게 참 좋았다. 그래서 훼손하지 않기 위해 그대로 두고 나왔다."



이 말에 공감하는 것은 내가 수학 때문에 망한 너석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학의 신비나 쓸모를 알 만한 실력을 갖춘 일도 없고, 앞으로 그럴 의사도 없다. 수학(수학문제)과 관계없이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들이 정말 많은 모양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5월 7-21일 전국 초·중·고교생, 수학교사 등 9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드러난 현실이다.

22일 발표된 결과를 보면 "수학이 너무 어려워 공부를 포기했다"는 비율이 초등생 36.5%, 중학생 46.2%, 고교생 59.7%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포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84.6%, 중학생은 52.9%, 고교생은 34.5%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

조사를 실시한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9월에 발표하는 교육과정 개편에서 수학은 분량 20%를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학의 학생 선발에서도 지나치게 수학 성적을 중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하와 벡터, 미분과 적분처럼 대학에서도 배울 수 있는 영역은 아예 고교과정에서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이 단체는 줄여서 '사걱세'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스스로 약칭을 만든 건지 기자들이 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이름이다. 이들의 주장 중 대학 신입생 선발에서 수학 성적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데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수학이 다냐?

수학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언젠가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보다가 나는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다. 요즘 아이들이 정말 안쓰러웠다.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하려고 '이야기 수학'을 도입하고 학습 방법도 개선한다고 했지만 그야말로 별무신통인 것 같다. "수학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아우성과 외침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다.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리기 위해 이번엔 진짜 수학 문제 하나를 인용한다.

"벌의 5분의 1은 능소화로 날아가고 3분의 1은 장미꽃으로 날아갔다. 그들 차이의 3배가 되는 벌은 나팔꽃으로 날아갔다. 나머지 벌 한 마리는 여기저기 오가다가 허공에서 헤매고 있다(아마 이 마지막 한 마리 벌은 수포자인가 보다). 그러면 벌의 숫자는 모두 합쳐서 몇 마리??"

이게 문제로 성립하는지, 답이 몇 마리인지 나는 모른다.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貨殖具案
화식구안



하 태 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인재 채용, 칸막이를 없애라

중국의 최초 통일국가를 이룩한 진시황(秦始皇)에게는 이사(李斯)란 출중한 참모가 있었다. 그는 시황제(始皇帝)를 보필하여 도량형을 통일하고, 문자를 통일하는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가 시황제에게 올린 유명한 글이 바로 '간축객서(諫逐客書)'이다. 사기(史記) 중 이사열전(李斯列傳)에 수록되어 있는 글을 아래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태산(泰山)은 (비록 다른 나라의 흙이라도) 한 줌의 흙을 사양(辭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황하(黃河)와 바다는 (여러 지역에서 흘러드는) 조그만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는 고로 깊은 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왕(君王)도 (나라가 다르다 해서) 백성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군왕의 덕(德)을 천하에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진(秦)나라가 천하를 병합해가는 과정에서, 점차 천하의 많은 인재들이 진나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진나라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염려한 수구세력이 외부로부터 모여드는 인재들의 충성심을 문제 삼아 이들을 모두 추방하자는 주장을 펴게 된다.

이때 이러한 배타적인 분위기에 직면하여 추방을 당하게 된 초(楚)나라 출신 이사가 '인재를 쫓아내는 것에 대한 간함'이란 제목의 '간축객서'라는 유명한 상소를 올려, 천하통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나라만의 인재를 생각하는 좁은 안목에서 벗어나야 함을 유려한 문장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였다. 그 결과로 그는 시황제에게 발탁되어 천하를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지금 지구상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는 G1, 즉 미국이다. 미국의 국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경제력에서 나온다. 이러한 최강국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축이 바로 실리콘밸리와 월가이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와 월가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능력만 있으면 받아들이는 그들의 개방된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중국 역대 왕조 중 가장 강성한 국가로 손꼽히는 국가는 당(唐)나라이다. 당시 당나라는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라면 과거를 통해 선발한 뒤, 고급 관료로 채용하는 열린 인사정책을 폈다. 그 결과, 당시 신라 출신이었던 최치원(崔致遠)은 빈공과(賓貢科)란, 외국인 대상의 과거시험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역순관(館驛巡官)이라는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다.

또한 신라 말엽의 장보고(張保皐)는 일찍이 당의 서주(徐州)로 건너가 뛰어난 무술 실력을 바탕으로 군인으로서 출사해 무령군중소장(武寧軍中小將)이란 벼슬을 하였다.

우리나라뿐인가? 일본의 경우도 아베노 나카마로(阿倍仲麻呂)란 사람이 최치원과 마찬가지로 당나라에서 유학한 후, 과거시험을 통해 장안(長安)에서 벼슬을 하였던 기록이 남아 있다. 즉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적을 초월하여 인재를 발탁하는, 열린 인사정책이 필요 조건임을 역사는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인재 채용정책은 어떠한가? 비근한 예로, 박근혜 정부 초기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벤처기업인인 김종훈씨라는 인물을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발탁한 예가 있었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결국 국적문제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 부족 가능성 등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견디지 못하고 낙마하는 불행한 경우를 우리 모두는 목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곳곳에 배타적인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목격하고 살아간다. 직능별, 직업별로 거대한 칸막이가 쳐져서 각자 각자의 칸막이 안에서 소위 '렌트' 또는 '지대'를 누리며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배타적인 자신들만의 이너 서클을 구축한 채 거의 평생토록 그 안에서 안주한다.

교수들은 어떠한가? 교수사회도 결코 공무원 사회에 못지않다. 언론계는 어떠한가? 아마도 앞서 얘기한 두 부류의 직업에 비해 더하면 더할 것이다. 다른 나라 국적의 인재 채용은 고사하고, 칸막이라도 걷어내는 인재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금융가의 경우, 한 직장에서만 오래 근무한 경력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부끄러운 경력이 되고 있다.

하루 한생각 **7월 24일**

從師不囿(종사불유) 스승을 따르되 얽매이지 말라

한문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의 교재인 소학(小學)은 스승을 존경하고 따를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군자가 되려 한다면 어찌 스승을 따르지 않으리오?"[欲爲君子 何不從師], "스승을 어버이처럼 섬기며 공경하고 존경하라."[事師如親 必恭必敬], "스승의 가르침을 거스르지 말고 반드시 스승의 인도에 따르라."[勿逆師敎 必從師導], "네 스스로 아는 게 아니면 오직 스승이 가르쳐주신 것"[非爾自知 唯師敎之], "네 스스로 행동하는 게 아니면 오직 스승이 인도하신 것"[非爾自行 唯師導之], "그 은혜와 공은 하늘 땅과 같다."[其恩其功 亦如天地], 이런 말을 외우기 좋게 네 글자 단위로 만들었다.

소학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책 상자를 지고 스승을 좇는다"[負芨從師 不遠千里]는 말도 있다. 타향으로 공부하러 가는 것을 부급(負芨)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 택사삼년(擇師三年), 스승을 고르는 데 삼년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스승을 따르되 얽매이지 말라는 말도 잘 새겨들어야 한다. '장자' 직양(則陽)편에 이런 대목이 있다. "옛날 탕왕은 사어이자 문윤인 등항을 등용해 스승으로 삼고 좇았다. 그러나 그에게 속박되지 않아 만물의 생성변화에 자신을 맡길 수 있었다."[湯得其司御門尹登恒 爲之傅之 從師而不囿 得其隨成] 사어는 수레 담당관, 문윤은 수문장을 말한다. 여기 나온 囿(유)는 제왕들이 금수를 기르거나 연회를 즐기려고 조성한, 담이 있는 동산이다. 맹자 양혜왕(梁惠王) 편에도 이 말이 나온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자가 종사이불유(從師而不囿)를 할 수 있게 스승이 자율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게 아닐까? 종사이불유를 '스승을 따라 걸림이 없게' 행동한다고 새긴 책도 있던데, 아무래도 잘못된 해석 같다.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온라인 와글와글

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빌릴 때 사진 찍어놔야 하나



렌터카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결과, 렌터카 피해 접수는 2013년 131건, 지난해 219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77건으로 나타났다. 예약금 환급, 대여요금 정산 거부 등이 가장 많은 피해 사례였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차량 인도할 땐 꼭 전후좌우 사진 찍어 놓으세요", "차 반납하고 다음 날 연락 와서 차에 뭐가 묻어 있다더라. 광택해야 한다고 말해서 50만원줬는데 아직까지 찜찜함. 이거 당한 건가요?", "개인 렌터카 사업하는 인간 중에 사기 치는 인간들 많더라. 하루 빌렸는데 흠집났다고 30만원 물어줬지. 긁은 기억도 없는데", "차 받자마자 동영상 촬영 필수로 해야 함. 그게 안 당하는 방법이다", "여행 상품에 패키지로 묶인 렌터카들 위험함. 꼭 빌려야 한다면 믿을 만한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하길 바람"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오늘의 BAE 배국남 .com
www.baekn.com

글로벌 프로젝트 '한중드림팀' 채연

배국남닷컴은 23일 가수 채연을 만났다. 이날 채연은 KBS 예능 '출발드림팀'의 글로벌 프로젝트 제1탄 '한중드림팀'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한중드림팀'은 중국심천위성TV와 손잡고 만든 스포츠 버라이어티로, 루이, 이앤이콴, 푸신보 등 중국 스타들과 경기를 펼친다. 채연은 "아직 상대방에 대해 실력을 잘 모른다. 처음 경기는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라이벌 의식이나 경쟁 의식이 있기에 경기를 거듭할수록 아마 더욱 더 지기 싫어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승부욕이 생겨서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연은 이어 2PM 닉쿤, 2AM 조권, 신화 전진 등 출연진 가운데 활약이 기대되는 멤버로 EXID 하니를 꼽았다. 채연은 "하니가 굉장히 운동신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복병이 될 것이다. 남자 출연자끼리는 실력이 비등비등하다. 때문에 여자 출연자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성적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주문생산 전문업체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광고에 게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당신의 등에 불을 붙여보라"…그렇게 30년을 달렸다

릴레이 기고
나는 왜 기업을 하는가 ⑫



정 지 완
솔브레인 회장

기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3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의 삶을 기업가로서 정신 없이 보내고 있으나 막상 학창 시절에는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창 시절에는 운동을 좋아하고 또 잘하기도 하여 잠시나마 운동선수를 꿈꾸기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과 축구도 하고 농구도 같이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랬던 내가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다. 당시만 해도 공과대학을 나오면 대기업에 들어가 관리직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그러면 또래들이 부러워할 만한 급여 수준에 시간이 지나면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당시 10·26과 5·18 등 시대적인 상황으로 취업 환경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매년 대기업에서 수천명씩 뽑던 신입사원 채용도 이 해에는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려 당시 졸업생들 스스로 저주 받은 학번이라고 자조 섞인 한탄을 할 정도였다. 이 무렵부터 대부분의 동기들처럼 무난하고 위험이 없는 직장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사업가가 되는 나를 상상하기 시작하였다.

나만의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준비로서 무역상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당시 사업가로서 야망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역업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무역업은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으니 맨손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적합하기도 하였다. 무역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입사한 무역회사에서는 단순히 수출입 업무만 배운 것이 아니라 운명처럼 반도체라는 것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은 나 스스로가 했지만 반도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 때에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나에겐 엄청난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덕에 남들보다 일찍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 빨랐으며 관련 업무를 하면 할수록 반도체가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결국 기업가로서의 출발은 반도체와 관련한, 특히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반도체 케미칼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약 4년 반 직장생활을 하며 기본적인 업무 지식을 쌓을 수 있었으며 시기적으로도 국내에서 반도체 시장과 기술이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던 무렵이어서 미련 없이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테크노무역이란 개인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하루라도 빨리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사무실이 있던 여의도에서 반도체 공장이 있던 부천, 기흥, 이천 등을 매일같이 쭉 돌고 오면 하루에 3백km 이상을 운전하기가 예사였으며,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는 경우도 드물었다. 그렇게 반도체 업체를 찾아다니며 반도체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반도체 장비 등을 물색하는 게 주된 업무였다. 반도체 케미칼 사업에 그 목표가 있었으나 이제 막 출발한 조그만 무역상 입장에서 바로 케미칼 사업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반도체 장비사업을 통하여 회사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1-2년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반도체 업체에서 관련 제품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반도체 시장도 성장함에 따라 사업도 서서히 본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반도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사업에 뛰어든 것이 역시나 적중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여가 지나서는 회사의 규모도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반도체 케미컬 제조업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내 목표를 위하여 나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내가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당신의 뒤에 불을 붙여 보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불에 데지 않으려면 앞만 보고 뛰어야 하니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라는 의미였다. 사실 당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사업 환경이 수월하지도 않았으며 무역업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보니 주위에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내가 갖고 있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결국 나를 제조업으로 이끌게 되었다.

무역상사 입사 4년여 실무쌓고
반도체장비 분야 첫 사업 시작
주위 만류 딛고 케미칼 제조업
도전의식이 가장 큰 원동력

잠시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잠재되어 있던 위협이 현실로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기업경영 통한 사회공헌 자부

회사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었던 시기는 90년대 후반이었는데 반도체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LCD용 소재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이다. 80년대 후반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90년대 후반에는 LCD산업이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다각도로 시장을 검토하고 고민한 결과 LCD산업도 반도체 산업이 그러하였듯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또 한 번 도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현재 솔브레인이 중요한 기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IT산업은 워낙 기술의 변화, 시장의 변화가 빨라 그 특성상 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기업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노키아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며 국내에서도 그러한 예를 무수히 찾아볼 수 있다. 멀리 돌이켜볼 필요도 없이 최근에도 초일류 기업이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니 칭찬 받다 산업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한순간 도태된 예를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잠재되어 있던 위협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 싶다. 특히 세계를 무대로 시시각각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IT 시장에서야말로 변화와 이를 위한 도전이 없으면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담보할 수 없지 않을까 싶다.

도전의식은 회사의 경영자만 갖고 있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회사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듯하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에게 새로운 것에 도전할 것을 부탁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도전하는 직원을 높이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나 도전한다고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혹은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데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투자가 소요되곤 하는데 그때마다 직원 개개인에게 성공을 강요하거나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과감히 도전하고 밤낮없이 이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직원들이 고맙기 때문이다.

회사의 사명을 지난 2011년 9월 테크노세미켐에서 솔브레인으로 바꿨는데 이러한 사명 변경을 통하여 회사가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것이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솔브레인이란 사명을 들으면 뭘 하는 회사일까 궁금해할 듯 한데 솔브레인은 '기술과 감성, 상상과 실현 등 이질적이지만 공존할 때 더욱 강력해지는 역량의 결합'을 의미한다. 애플과 같이 산업의 변화,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기업으로 솔브레인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사명에 담았다.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기업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자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다. 나는 아직도 회사의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회사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한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기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가지 희망이 있다면 우리 회사가 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회사가 되었으면 하며 오늘도 그 목표를 위하여 새로운 꿈을 꾸려고 한다.

정지완 회장은

- 1956년 11월 9일 출생(성균관대 화학공학과 졸업)
- 1986년~현재 솔브레인㈜ 경영
- 2013~2014년 코스닥협회 회장

솔브레인 연혁

- 1986년 5월 테크노무역상사 설립
- 1991년 4월 공주공장 완공
- 1996년 12월 연매출 100억원 돌파
- 1998년 4월 LCD제조용 Etchant 공장 완공
- 1998년 11월 1000만달러 수출탑 수상
- 1999년 10월 테크노세미켐으로 사명 변경
- 2000년 1월 코스닥 상장
- 2002년 6월 CMP Slurry공장 완공
- 2002년 11월 2차전지 전해액 공장 완공
- 2006년 12월 연매출 1000억원 돌파
- 2007년 6월 엠씨솔루션 설립
- 2009년 3월 솔브레인이엔지 인수
- 2010년 1월 솔브레인MI 설립
- 2011년 9월 솔브레인으로 사명 변경
- 2013년 9월 솔브레인나눔재단 설립
- 2014년 4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



오상민의 현장 문화팀장

'골프 부부' 박인비와 남기협



"평범한 사람이요. 그냥 월급 받는 회사원이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적령기인 한 여자 프로골퍼의 말이다. 그는 자신의 배우자 희망 직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프로골퍼는 수입이 불안정하잖아요. 남편 수입이라도 일정해야 생활이 되죠."

고수익에 선망 받는 직업인 프로골퍼라도 결혼관은 의외로 소박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상당수의 여자프로골퍼는 배우자의 희망 직업으로 '평범한 샐러리맨'을 꼽고 있다. 반면 골프선수와 그와 관련된 직업은 인기가 없다. 하지만 "평범한 회사원 월급이 얼마인 줄 아냐?"라는 현실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흐린다. 결혼 적령기에 놓인 여자프로골퍼들의 비현실적인 결혼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프로골퍼는 경제관념이 흐릿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어릴 적부터 대기업 임원과의 라운드가 잦고, 주는 것보다 받는 데 익숙하다. 대회당 총상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한방에 인생 역전도 가능하다.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한 여자프로골퍼는 "택시요금으로 5000원을 내야 하는데 실수로 만원짜리 다섯 장을 냈다"며 투덜댔다. 국내 골프선수들 사이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배우자로 평범한 샐러리맨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여자프로골퍼들의 현주소다.

그런 면에서 여자프로골퍼는 결혼이 쉽지 않은 직업일 수도 있다. '아내=내조'라는 오랜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한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렇다. 프로골퍼는 연중 전국 또는 전 세계를 돌며 많은 대회에 출전한다. 대회마다 규모는 다르지만 보통 3~4라운드를 치른다. 프로암과 연습라운드, 대회장 이동일까지 감안하면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시즌을 보내야 하는 혹독한 직업이다. 사실상 가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일까. 국내 여자프로골퍼들은 스스로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생 꽃다운 나이의 모든 열정을 필드에 쏟아내는 사이 결혼은 먼 나라 이야기가 돼버린 것이다. 다른 운동 종목과 달리 여자선수들의 결혼 소식이 가뭄에 콩 나듯 하는 이유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결혼에 대한 모든 편견을 보기 좋게 깨버린 사람도 있다. 박인비(27·KB금융그룹)·남기협(34) 부부다. 필드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사랑을 키웠고, 서로의 이성 친구이자 코치(제자)로서 신뢰를 쌓았다.

박인비는 스윙코치이자 남편인 남기협의 외조를 등에 업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 덕에 2008년 US여자오픈 우승 후 혹독했던 슬럼프도 극복할 수 있었다. 2013년 메이저 대회 3연승 신화와 세계랭킹 1위 기쁨도 남편 남씨와 함께 나눴다. 박인비는 시즌 중에도 그런 남씨의 헌신적 외조를 수차례 언급해 감동을 줬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경심이 만들어낸 결과다. 대다수의 여자프로골퍼들의 비현실적인 결혼관과는 분명 거리감이 있다.

세상의 온갖 편견을 깨고 일과 결혼, 그리고 성공이라는 세 토끼를 잡은 두 사람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고의 스타플레이어 콤비에서 필드 밖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기까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경심,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golf5@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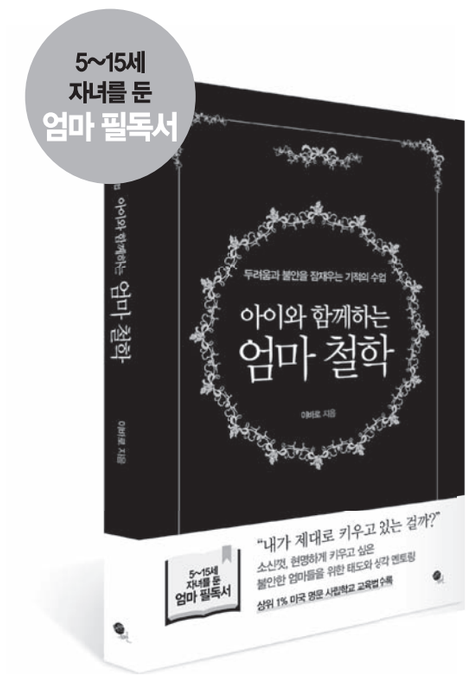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스마트폰에서 〈QR코드리디〉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선택한 단 하나의 베스트셀러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는 기적의 수업



보스턴 컬리지 출신 철학자
이바로 지음 | 312쪽 | 13,000원

아이와 함께하는
엄마 철학

좋은 대학은 보내야 하고, 남들 하는 만큼은
다 시켜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걸까?"
불안한 엄마들을 위한 태도와 생각 멘토링!

무한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제자들과 뜻모아 장학재단 만든 최운열 교수

〈서강대 경영학과〉

스승의 날 모임서 "논문집 대신 어려운 학생 돕자" 제안
'열사모' 회원 십시일반 1억 모아… 소액후원 활동도 지속



최운열〈사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다음달 정년퇴임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1억원을 모아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강대에서 퇴임을 앞둔 교수가 제자들과 함께 장학금을 조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교수는 지난 5월 '스승의 날' 즈음해 가진 제자들과의 연례 모임에서 '돈을 모아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을 내고 호텔에서 행사를 열자'는 제안을 받고는 '그럴 돈으로 차라리 어려운 제자들을 돕자'고 역제안했다. 그러자 최 교수의 제자들이 모인 '열사모(최운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나서서 최 교수의 뜻대로 십시일반으로 3500만원의 장학금을 모았고, 여기에 최 교수가 똑같이 3500만원, 서강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최 교수와 인연을 맺은 김승남 조은시스템 회장이 3000만원을 쾌척하면서 장학금은 1억원이 됐다.

최 교수와 '열사모'에 속한 대학원 대표 황승규 씨(경영 78학번), 이진호 씨(94학번), 학부 대표 홍종원 씨(91학번)·최대한 씨(09학번)는 지난 23일 서강대 총장실에서 유기풍 총장과 만나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2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좋은 일은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웃음)"라며 "이번 장학금은 대학원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모은 것이고, 앞으로는 학부 제자들이 정기적으로 1만,2만원씩이라도 소액후원하겠다고 밝혀 지속적으로 장학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렇듯 장학기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최 교수가 서강대 강단에 선 오랜 기간 동안 제자들과 끈끈한 정을 나누고, 이에 '열사모' 제자들도 늘어난 덕분이다. '열사모'엔 황승규 씨, 홍종원 씨처럼 최 교수와 조교나 지도학생으로 연을 맺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최 교수와 '열사모' 제자들은 포털사이트에 까페를 만들어 온라인모임을 갖는 동시에 매년 정례적으로 최 교수와 만남을 이어왔다.

한편 최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한 후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재무관리 박사학위를 받고 1982년 서강대 부교수로 부임했다. 1995~2002년 한국증권연구원장, 2001~2002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2002~2003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2006~2009년 서강대 부총장 등을 지냈다.

김미영 기자 bomnal@

"어느새 30대… 내년엔 엄마 일·가정 '두 토끼' 자연스럽게"

'저격수'로 돌아온 전지현
영화 '암살' 독립군 완벽 변신



배우 전지현이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배우 전지현이 22일 개봉한 영화 '암살'(제작 케이퍼필름, 배급 쇼박스)로 돌아왔다. '암살'은 '타짜' '도둑들'을 통해 흥행 감독으로 거듭난 최동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이정재·하정우·조진웅·오달수 등 충무로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암살'의 개봉 하루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전지현은 시나리오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최동훈 감독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녀는 "시나리오가 완벽했다. 최동훈 감독은 정말 천재다. 저를 100%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믿고 맡길 수 있었다. 연기하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지현은 '암살'에서 한국 독립군 제3지대 저격수 안옥윤 역으로 변신했다. 질끈 잘라 묶은 머리부터 안경까지 전지현은 완벽하게 안옥윤이 되었다. 그녀는 "독립군 최고의 저격수 역이었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명중할 수 없다는 극 중 설정이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안옥윤이 가진 감정이 여러 면이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전지현은 이어 "정말 잘하고 싶었다"며 "욕심낼 만한 캐릭터였다. (충무로에) 여배우의 활약이 두드러진 작품이 거의 없다. '암살'은 여자 주인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암살'은 개봉과 동시에 47만여명(이하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전지현의 전작 '도둑들'은 1000만 관객을 넘었고, '별에서 온 그대'는 한국을 넘어 중국에서 한류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에 전지현은 "몇 년간 작품 운이 좋았다. 관객의 관점과 제 관점이 일치했다"며 "저는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 최근 몇 년간 흥행 성적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대박이 날 수는 없다. 작품 선택할 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한다. 좋은 감독, 작가와 호흡을 맞추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녀가 출연한 '엽기적인 그녀'도 벌써 14년 전 이야기다. 전지현은 어느새 30대 여배우가 됐다. 결혼도 했고, 내년에는 엄마가 된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든다는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했다. 진심이다. 결혼하고 저에 대한 시선과 평가가 부드러워졌다. 이제 저를 보는 시선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더 편해졌다. 일도 가정을 꾸리는 일도 뭐든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그레이엄 의원 '휴대폰 부순 동영상' 공개 트럼프는 '젭 부시' 비난 발언 막말 퍼부어

막장으로 가는 2016 美 대선전



미국 그레이엄 의원이 휴대전화기를 공중에 매달아 놓은 뒤 목검으로 후려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2016 대선후보 경쟁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막말과 기행에 정계 안팎의 인사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의 실제 전화번호를 공개한 트럼프는 22일에는 CNN 간판 앵커인 앤더슨 쿠퍼에 막말을 퍼붓는 등 기행을 이어갔다.

그는 CNN 뉴스쇼 '앤더슨 쿠퍼의 360'에 출연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쿠퍼와의 인터뷰는 시간낭비였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그건 여론조사라 할 수도 없는데 당신이 이 결과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나는 전반적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는데 당신은 내가 본적도 없는 여론조사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 솔직히 매우 편파적인 질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사람들은 당신을 믿지 않으며 CNN도 믿지 않는다. 정치 매체의 60~70%는 정말 정말 정직하지 못하다"며 "내가 정치권에 뛰어들기 전 경제매체들이 나에 대해 매우 공정하고 정확히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경쟁 후보인 그레이엄 의원이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경선에서 빠지든 남든 상관하지 않지만 제발 '멍청이(jackass)' 짓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2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블러프턴 타운에서 열린 캠페인에서 그레이엄 의원에 대해 "바보(idiot)"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그레이엄 의원의 실제 전화번호를 공개해버렸다.

그러자 그레이엄 의원은 22일 뉴스웹사이트 IJ리뷰에 '린지 그레이엄과 휴대전화 부수기'라는 동영상(사진)을 띄웠다. 동영상 속 그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비장한 음악이 흐르는 속에서 휴대전화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식칼로 절단 내거나 믹서기에 넣고 갈고 있다. 골프채로 휴대전화를 날려버리는가 하면 기름을 부어 불에 태우기도 했다.

그레이엄을 자극한 트럼프의 기행은 23일에도 이어졌다. 그는 공화당이 아닌 제3당 후보 출마 가능성을 공개로 거론하며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1370년 전의 最古 '코란'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22일 한 조사관이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마호메트) 생애 후반 및 사망 직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가는 것으로 판명된 최고의 코란 양피지 책자를 펼쳐 보이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방사성 탄소 측정 결과 코란 일부인 18~20장이 필사된 이 책은 최소한 137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자들은 양피지가 568년부터 645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확률이 95%라고 말했다. 무함마드의 생몰 연대는 570~632년으로 알려져 있다. AP/뉴시스

"친절한 서비스 감사" 밥값 50배 팁 낸 美 남성

미국의 한 음식점에서 고객이 음식값의 50배를 봉사료(팁)로 남겨 화제다.

미국 일리노이 주 프랭크포트에 있는 음식점 '스모키 바비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브렌든 모틸(19)은 최근 한 남자 손님이 밥값의 50배를 팁으로 지불해 깜짝 놀랐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밝혔다. 해당 고객은 밥값이 20달러인데 팁으로 무려 1000달러를 지불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식대의 15~20%를 팁으로 놓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다.

해당 고객은 "친절한 서비스에 감사한다"는 인삿말과 함께 친절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리고 싶었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영수증 옆에 놔뒀다고 한다. 그는 메모에 "세상이 너무 부정적이고 폭력적일 때가 있다. 사람들이 서로를 좀 더 평화롭게 대했으면 좋겠다"며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풂으로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후한 팁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효성, 임직원 여름나기 '쿨쿨 간식 타임'

중복 맞아 삼계탕 등 특식 제공



23일 효성 산업자재PG(사업 부문) 임직원들이 마포 본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간식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

효성은 23일 중복을 맞아 본사를 비롯해 각 지방사업장 임직원들에게 시원한 간식을 전달하는 '쿨쿨(Cool Cool) 간식 타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효성은 지난 7월 초부터 구미, 울산, 언양, 용연, 창원, 전주 등 각 지방 공장에서 무더운 근무환경에서도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위해 아이스크림, 수박, 미숫가루 등 시원한 간식과 함께 삼계탕, 오리 불고기 등 영양 특식을 제공하고 있다.

효성은 임직원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휴가비 지급과 함께 5일간의 하계 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구미, 울산, 용연, 전주 지역의 지방사업장에서는 공장 인근 계곡 등에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하계 휴양소를 운영해 임직원 및 가족들이 무료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창원공장에서는 이달 말 임직원 자녀 100여명을 초청, 경주 일대에서 하계 캠프를 개최해 즐거운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 손홍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우기붕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승진〉 △창조행정담당관 이수명 △예술정책과장 이정우 △인문정신문화과장 고욱성 △관광정책과장 최상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승진〉 △광주식약청장 서갑종 〈전보〉 △기획조정관 조기원 △서울식약청장 유무영 △대전식약청장 김광호 ◇과장급 전보 △고객지원담당관 양창숙 △운영지원과장 우영택 △통합식품안전정보망구축추진단 정보기술운영팀장 김영남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김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기관 〈승진〉 △도시성장촉진과 정래화 △도시특화경관팀 김주식 △녹색에너지환경과 조금래 △공공시설건축과 김태백 〈전보〉 △운영지원과장 권진섭 △도시특화경관팀장 서정열

◆국립중앙과학관 ◇과(팀)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동섭 △시설창조관리과장 정동찬 △교육문화과장 이동방 △전시기획과 전시관운영팀장 윤용현 △경영기획과 홍보마케팅팀장 김승주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 김금남

◆금융결제원 ◇부서장 △경영기획부 류재수 ◇부서소속실장 △핀테크업무실 김종찬 ◇팀장 △경영기획부 이도기 △금융결제연구소 장인수 오은숙 △전자금융부 전병관 △IT운영부 정호원

◆신한금융투자 ◇부서장 △투자금융부 장호식

◆수협은행 〈승진〉 ◇부장급 △경영지원실 양기욱 △경남지역금융본부 사공대창 ◇팀장 및 지점장급 △종합마케팅부 송병길 △중부기업금융센터 백형락 △강서시장지점 장구인 △순천지점 신민호 〈전보〉 ◇본부 부서장 및 팀장 △여신관리부장 김범진 △국제금융실장 송노일 △카드사업실장 조광래 △수도권여신관리센터장 최학기 △금융기획부 성과관리팀장 김갑석 △금융기획부 재무기획파트장 양승철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장 김문수 △경영지원실 MPR팀장 신동열 △경영지원실 자산관리파트장 김명수 △자금부 자금운용지원파트장 전경국 △자금부 자금운용팀장 최창용 △여신정책실 여신기획팀장 최종대 △신탁사업실 퇴직연금사업파트장 홍기정 △종합마케팅부 마케팅지원팀장 이재문 △준법지원실 내부통제팀장 정기호 ◇영업점장 △중부기업금융센터장 정영성 △공덕역지점장 박장환 △길동지점장 김시억 △동탄지점장 최계정 △마포지점장 금창윤 △서초동지점장 고일 △송파역지점장 최민성 △수내동지점장 박경민 △안양지점장 조정호 △양재역지점장 임동훈 △양평동지점장 이영학 △역촌동지점장 한재권 △영등포지점장 김정만 △응암동지점장 박수범 △중화동지점장 백경현 △홍대역지점장 임규창 △둔산지점장 양복환 △전북지역금융본부장 임한관 △서대구지점장 이문식 △감천항지점장 박종억 △해운대신도시지점장 김성완 △일도지점장 전양수 △뚝섬역지점장 성기환 △신설동역지점장 김상철 △삼성동지점 부지점장 서봉교 △여의도증권타운지점 부지점장 김혜곤 △경북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전철규 △공덕역지점 부지점장 이명규 △역삼동지점 부지점장 한준우 △제주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라훈 △중부기업금융센터 JRM 김민철 △경남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박준호 △강남기업금융센터 RM지점장 안종흠 △중부기업금융센터 RM지점장 오창현

부음

▲조덕현(국민권익위원회 과장·전 서울신문 공공정책부 차장)씨 장모상 = 23일, 경기 이천 효자원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8시 30분, 031-631-4411

▲최형관(전 목포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영남(NH투자증권 상품총괄 상무)씨 모친상, 우성하(전 외환은행 지점장)·고재정(현대자동차 부장)·조재경(기술신용보증기금 부지점장)씨 장모상, 최유석(현대미포조선 대리)씨 조모상 = 23일, 전남 목포 참사랑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8시, 061-244-4400

▲김기호(삼화콘덴서 부장)씨 부친상, 우종학(서울시청 사무관)·심순선(삼성전자 전무)씨 장인상 = 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02-3410-6919

▲윤일경(코스콤 청산결제업무부 차석)씨 모친상 = 22일,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053-956-4416

▲심규석(강남캠프 대표)·화영(과천청계초 교사)씨 부친상, 한삼희(조선일보 논설위원)·나주홍(다빈미디어 대표)씨 장인상 = 23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31-539-9461

▲문정근(한화생명 보험심사팀장)씨 부친상 = 23일, 전북 남원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 063-635-4456

▲이종수씨(전 검찰청 합수부 근무)별세, 이준한(LG CNS 부장)·유정·영한씨 부친상, 안재현(UAE원전주식회사 기술이사)·전성률(서강대 경영대 교수)씨 장인상, 정재연(킹버드어학원 부원장)씨 시아버지상 = 23일 오후 4시, 서울성모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2-2258-5940

▲방종근(국제신문 사회2부 부장)씨 부친상 = 23일 오전 4시, 진주전문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7시, 055-759-4141

▲이한듬(매일일보 산업부 기자)씨 조모상 = 23일 오전 2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발인 25일 오전7시, 031-940-9370

현대車 직원이 가장 속상해 하는 말은?

"너 이것밖에 안돼?" 무능함 지적할 때

사보팀, 임직원 대상 설문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속상해 할까.

24일 현대차그룹 사보팀이 임직원 15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가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라며 무능함을 탓할 때 가장 속상하다고 답했다.

"너 다이어트 해야겠다. 안 무겁니?"라며 외모를 지적하는 말과 "넌 성격 빼고는 다 괜찮아!"라며 성격을 비하하는 말이 싫다는 답변이 각각 10%와 5%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네가 한 거 아니야?"라며 내일도 아닌데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말, "괜찮지?"라며 안 괜찮은 거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말도 속상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현대차그룹 임직원들이 가장 욱하게 되는 순간은 '출근길 정체'와 '컴퓨터 고장'이 각각 25%와 24%로 가장 많았고, '오늘도 야근'(21%), '층간 소음'(15%) 순이었다. '열심히 수정 사항 다 반영했더니 아까 그게 맞는 거 같다고 할 때', '퇴근 시간 10분 전에 회의나 업무 지시할 때' 욱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현대차그룹 직원들은 화가 났을 때 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괜찮다, 괜찮다. 자신을 위로한다'(36%)와 '생각은 생각을 낳는 법.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자 노력한다'(3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평소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활동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마음의 여유를 즐긴다'와 '취미 활동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응답이 각각 28%로 뒤를 이었다.

김범근 기자 nova@



아이돌 그룹의 경제학

억소리 나게 키운 아이들 '돈값'하거나 'X값'되거나

여자친구, 원펀치, 러버소울, 씨엘씨, 디아크, 써스포, 오마이걸, 로미오, 몬스타엑스, 베이비부, 어썸베이비, 세븐틴, 비티엘, 엔플라잉, 플레이백…. 올 상반기 데뷔한 아이돌 그룹 중 한 팀이라도 이름을 들어봤거나 멤버들의 얼굴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가요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지난해 약 65개 이상의 팀이 가요계에 데뷔했고, 올해도 상반기 15개 팀이 데뷔했다. 특히 올해에는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씨엘씨, FNC엔터테인먼트 엔플라잉,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몬스타엑스, 플레디스의 세븐틴 등 대형 기획사에서 내세운 아이돌 그룹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아이돌 그룹들은 기획사의 철저한 계획 하에 혹독한 교육과정을 거친 후 데뷔한다. 이제는 연습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그 회사의 규모와 미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5월 데뷔한 그룹 엔플라잉의 멤버 권광진은 쇼케이스에서 "FNC에서 연습생 기간을 10년 보냈다"며 "24세가 되면서 조바심이 난 건 사실"이라고 길었던 연습생 기간을 언급했다. 같은 달 데뷔한 세븐틴도 멤버별 평균 연습기간이 4년이라고 밝히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데뷔 임박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꿈꿨다가 데뷔가 미뤄질 때"였다고 말했다.

연습기간, 교육 과정, 인원수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아이돌 한 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투자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외부에 비용 내역을 유출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인 비용 산출은 힘들지만 보컬, 댄스, 외국어 트레이닝, 몸매와 외모 관리, 숙소비용 등과 더불어 음반 제작, 뮤직비디오, 마케팅 프로모션, 의상과 헤어 등을 합치면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처럼 억 소리나는 비용을 들여 매년 수많은 아이돌이 데뷔하지만 대부분은 소리 소문없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신인들은 자신의 이름 석자와 팀을 알리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특히 최근 대형 기획사는 자신들이 가진 인프라와 소속 가수들의 고정팬을 이용해 연습생 시절부터 신인들의 이름 알리기에 주력한다. 신인그룹 엔플라잉도 소속사 선배 그룹인 씨엔블루, FT아일랜드와 함께 콘서트 무대에 섰으며, 자신들의 데뷔기를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tvN '청담동 111-엔플라잉 스타가 되는 길'을 통해 데뷔 전에 얼굴을 알렸다. JYP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신인 걸그룹 멤버 오디션을 다룬 프로그램 엠넷 '식스틴'을 통해 데뷔 전부터 신인 걸그룹 멤버의 얼굴과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는 효과를 누렸다.

> 작년 65개·올 상반기 15개 팀 데뷔
> 보컬·외모관리·음반제작·마케팅 등
> 한 팀당 수억원의 투자 비용 들어
> 데뷔 후엔 이름 알리기 치열한 경쟁
> 대부분 팀들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 스타 되기까지 멀고 험한 가시밭길

대형 기획사들처럼 체계화된 홍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형기획사는 길거리 공연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신인들을 홍보한다. 4월 데뷔한 걸그룹 오마이걸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데뷔 전 티저영상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팀 이름을 올렸으며,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1만3000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으는 홍보 효과를 누렸다. 2월 데뷔한 힙합그룹 러버소울도 홍대에서 꾸준히 버스킹을 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한상덕 대중문화평론가는 "현재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의 도입은 일본의 매니지먼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과거에 아이돌 멤버가 되는 것이 타의적이었다면 현재는 자의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업이 되어버린 대형기획사가 중·소형기획사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흐름"이라며 "중·소형기획사도 이름에서 나름대로의 마케팅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기획사를 견제하는 중·소형기획사의 모습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걸그룹 비하인드 스토리

EXID 하니·씨스타 효린·시크릿 송지은 JYP 연습생 출신… 다른 기획사서 데뷔



걸그룹 EXID의 하니, 씨스타의 효린, 시크릿의 송지은. 세 명은 현재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걸그룹의 멤버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JYP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이라는 점. 세 명은 함께 연습생 시절을 보내며 베스티의 유지와 함께 걸그룹을 준비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니를 시작으로 4명은 결국 흩어졌고 다른 소속사로 영입돼 지금의 다른 그룹을 통해 가수의 꿈을 이뤘다.

하니는 최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1대 100'에 출연해 "과거 JYP 연습생이었는데 1년 만에 제일 먼저 제명이 됐다"며 "당시 많이 위축돼 있고 소심한 아이여서 제명 이후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니가 중국으로 유학을 간 사이 2009년 송지은은 현 소속사 TS미디어로 영입돼 시크릿의 멤버로 데뷔했다. 효린 역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해 2010년 씨스타의 멤버가 되어 가수 생활을 시작했다.

하니는 한국으로 돌아와 2012년 유지와 함께 EXID의 멤버로 데뷔했다. 그러나 하니, 유지, 정화, 해령, 다미, LE로 구성된 당시 EXID는 타이틀곡 '후즈 댓 걸(Whoz That Girl)'을 발표해 활동했지만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결국 6명의 멤버는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와 신생소속사인 YNB엔터테인먼트로 각각 3명씩 나눠져 활동하게 됐다.

YNB엔터테인먼트로 둥지를 옮긴 유지, 해령, 다미(혜연)는 새 멤버 다혜를 영입해 2013년 4인조 걸그룹 베스티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신사동 호랭이의 팀으로 들어간 하니, 정화, LE도 연습생 출신 혜린과 보컬 트레이너 솔지를 영입해 새로워진 EXID로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EXID는 지난해 발표한 곡 '위아래'가 차트 역주행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대중의 주목을 받는 걸그룹이 되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노래·춤·외국어는 기본… 연기·화술까지 완벽 교육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육성 방법

엑소(EXO), 빅뱅은 현존하는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최정상을 달리고 있다. 발표하는 앨범마다 온라인 음원차트 1위는 기본이고 해외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입었던 패션은 유행을 선도하고, 이들이 하고 나온 액세서리는 온라인에서 불티나게 팔린다. 또 멤버들이 머물렀던 장소는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다.

하지만 엑소, 빅뱅이 한순간에 반짝 스타가 된 것은 아니다. 엑소의 수호는 6년, 시우민과 찬열은 4년 등 짧으면 1년 길면 6년 동안 연습생으로 지냈다. 빅뱅의 지드래곤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5년간 연습생으로 있다가, YG엔터테인먼트로 옮겨 2~3년 더 연습생으로 생활했다. 빅뱅의 다른 멤버들도 평균 3~4년 동안 연습생으로 지내다가 데뷔했다.

이들은 소속사의 체계화된 시스템에서 철저히 교육을 받고 나온 아이돌이다. 한마디로 만들어진 스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개별적인 노력과 인내가 더해졌기 때문에 다른 아이돌보다 더 빨리 스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아이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아이돌 육성 시스템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보컬, 댄스, 외국어 등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아티스트를 키우는 게 목적이다. 연습생들은 타이트한 스케줄 속에서 레슨과 개별연습을 반복한다. 학교를 다니는 연습생이 있다면 주로 오후 시간을 활용, 연습한다.

하지만 데뷔 6개월을 앞두고 상황은 달라진다. 매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피나는 연습이 계속된다. 기존 커리큘럼대로 보컬, 춤, 외국어 공부는 하되, 개인연습 시간을 늘리는 회사가 많다. 보컬이나 안무 실력이 떨어지는 연습생은 추가 레슨도 받고, 반복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실력을 키운다.

데뷔 전 평균 연습생 기간만 3~4년
지드래곤, SM 5년·YG 3년 연습생
유기적 훈련시스템으로 철저한 관리
연기 수업·다이어트·말하기 교정까지

이 시기에는 보컬보다 안무에 시간을 더 할애한다. 한 무대에서 여럿이 퍼포먼스를 하다 보면 '합'이나 '동작'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연기 수업도 필수다. 4분 동안 무대에서 연기를 하듯, 노래와 퍼포먼스로 대중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연기 수업은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아이돌 멤버들이 연기 수업을 통해 자신감도 찾고, 무대 매너도 익혔다고 말한다.

매달마다 이뤄지던 평가는 매주로 당겨진다. 평가는 점수화되어 수치로 나타난다. 일정 이상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데뷔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다이어트는 필수다. 데뷔를 앞두고 비주얼 외모와 날씬한 몸매를 갖추기 위해 운동을 거르지 않는다.회사에 녹음실이 있다면 사전에 레코딩 경험도 쌓는다. 무대 경험을 쌓기 위해 같은 회사의 선배 공연에서 백댄서로 참여하거나 데뷔 앨범에 작사, 작곡자로 합류해 이름을 알린다. 화술 교육도 받는다. 연예인은 인터뷰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력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한국 아이돌 육성 시스템은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수준이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이미 관심을 갖고,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거나 MOU 체결을 통해 선진화된 시스템을 배우려고 한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



보컬·댄스 등 매달 레슨비 천만 원… 성형수술도

아이돌 한팀 데뷔까지 투자비용

유명세 타면 1년 매출 30억~100억 선

2015년 현재 음반 제작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무조건 아이돌을 제작한다. 간혹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고 트로트나 보컬 가수를 제작하지만, 아이돌과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7월 기준으로 SBS '인기가요'에 출연을 원하는 가수들은 약 150여개 팀. 이 중 아이돌의 비중은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음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아이돌 제작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장기적인 비전과 트렌드 반영도 있지만, 성공했을 때 가져다주는 금전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성공한 아이돌의 1년 매출은 30억원에서 100억원 선이다. 투자금의 몇 십 배를 벌 수 있고, 아이돌 멤버들이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평생 수익을 약속한다.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 아이돌, 과연 한 팀이 데뷔할 때까지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아이돌 한 팀에 투자하는 비용을 산출하기는 쉽지 않다. 투자비는 회사마다 대외비로 분류되는 만큼 외부에 쉽게 유출되지 않는다. 상장사인 경우는 대략의 비용을 알 수 있지만, 개인회사라면 순수하게 아이돌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 산출 기준에 따른 비용 투자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중견 기획사 A가 발굴하고 키운 아이돌 B(6명)를 사례로 아이돌 데뷔까지 투자되는 비용을 살펴봤다. 물론 연습생의 연습 기간과 회사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졌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아이돌 멤버의 영입은 대개 오디션이나 지인의 소개, 관계자의 '픽업'으로 이뤄진다. 혹은 다른 기획사의 연습생이지만 제작하려는 팀 색깔과 맞아서 전속금(계약금)을 치르고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 대개 계약금은 200만~2000만원 선이다.

아이돌은 보컬, 댄스, 외국어 수업을 받고 기본기를 다진다ㅈ. 보컬 비용은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달에 200만원 안팎이다. 댄스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다. 한 달 기준으로 250만~350만원이 든다. 글로벌 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외국어도 필수다. 이때도 200만원 안팎으로 비용이 든다.

몸매를 가꾸는 데도 돈이 든다. 연습생 시절에는 피트니스 협찬을 받기가 어렵다. 또, 개별적으로 트레이너에게 PT(Personal Training)를 받아야 돼서, 대략 한 달에 300만원이 소요된다. 식사비도 한 달에 30만원 안팎. 밴드가 아니라도 악기는 배울 필요가 있다. 레슨비는 100만~200만원 선이다.

데뷔 전 합숙을 한다면 집을 얻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찮다. 지역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지지만 강남을 기준으로 전세는 3억원대, 월세는 150만~200만원이 드는 빌리나 아파트를 선호한다.

피부과, 성형외과도 빠질 수 없다. 대외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대개 협찬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비용의 50~60%는 절약할 수 있다.

이동수단도 필요하다. 대개 신인 아이돌 그룹은 카니발 리무진을 타고 다닌다. 2015년 기준으로 차량가는 3530만~3710만원이다. 한 달에 들어가는 유류비도 100만원선이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

튀어야 산다… 아이돌 이색 홍보전쟁

엑소 '럭비 퍼포먼스'·걸스데이 '여름 운동회' 쇼케이스 등 선봬

쏟아지는 아이돌 홍수 속에서 그들만의 이색 홍보 전쟁은 매일매일 치열하게 펼쳐진다.

음악방송 녹화 현장으로 향하는 출근길은 아이돌에게 놓칠 수 없는 홍보 기회다. 걸그룹 소녀시대는 이번 앨범 타이틀곡 'PARTY' 모양의 머리띠를 쓰고 발랄하게 등장했다. 엑소(EXO)는 럭비 유니폼과 럭비공으로 뮤직비디오에서 뛰쳐나온 것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인지도가 낮은 신인 아이돌은 이름 알리기에 주력한다. 몬스타 엑스, 스피드 등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의상을 착용하고 나타났다. 틴트, 방탄소년단, 소년공화국 등은 그룹의 특징이 담긴 의상에 팀 이름을 새겼다. 출근길을 이용하는 차량에 특색 있는 랩핑을 씌워 그룹을 홍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아이돌의 홍보는 거리 공연으로 이어진다. 최근 '링마벨'로 그룹에 컴백한 걸스데이 민아는 지난 3월 솔로 활동 당시 명동 한가운데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었다. 팬이 찍는 직캠과 SNS 등의 홍보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엑소 뉴시스

최근 아이돌은 거리로 나가지 않더라도 팬과 만날 다양한 기회를 찾는다.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한 쇼케이스와 별도로 팬만을 위한 이색 쇼케이스를 준비한다. 걸스데이는 6일 데뷔 5주년과 2집 발표를 기념해 팬과 함께 여름 운동회를 열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팬과 직접 소통하기도 한다. FT아일랜드는 4월 'FT아일랜드 UP' 채널을 열었고, 빅뱅은 6월 30일 네이버 스타캐스트를 통해 뮤직비디오 공개 방송을 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데뷔해도 무명설움 '여전'… 떴다해도 불화·탈퇴 '휘청'



왼쪽부터 선예·소희가 탈퇴한 원더걸스, 강지영·니콜이 탈퇴한 카라, 설리의 탈퇴로 논란을 자아낸 에프엑스.

아이돌의 척박한 현실

인지도 쌓는 그룹 극소수 불과
올해 갓세븐·마마무만 알려져
멤버교체로 존폐 위기 맞기도

90년대 H.O.T, 젝스키스, S.E.S의 등장은 아이돌이란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을 알렸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가요계는 아이돌 그룹으로 대변된다.

7월 셋째 주 KBS 2TV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 출연진은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걸스데이, 씨스타, 인피니트, 에이핑크, 틴탑, AOA, BTOB 등 아이돌 일색이다. 윤혁·DK의 남성 듀오 디셈버와 솔로로 나선 카라 멤버 구하라를 제외하면 17개 출연자 중 15개 팀이 아이돌 그룹이다.

아이돌 전성시대는 역설적으로 수많은 아이돌의 도전과 실패를 말한다. 매년 수십 개의 아이돌 그룹이 가요계에 데뷔한다. 지난해만 해도 총 66개 팀이 출사표를 던졌다. 2012년에는 무려 67개 팀이 데뷔했다. 인원으로 보면 약 300여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하지만 그중 성공의 단맛을 보는 아이돌은 극소수다.

올해 데뷔한 아이돌 그룹 13개 팀 중 여자친구를 제외하고 인지도를 쌓은 그룹이 없다. 지난해 66개 팀 중에서도 갓세븐과 마마무를 제외한 아이돌 그룹은 무명에 가깝다. 화려한 아이돌 전성시대 속에 데뷔 무대조차 갖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현실이다.

김진호 대중문화평론가는 "매년 수많은 아이돌이 데뷔한다. 그만큼 아이돌의 생명력은 짧다. 수년간 연습생으로 청춘을 보내고 데뷔 후 버려지는 아이돌이 부지기수다. 아이돌 그룹에 대한 선호도는 그만큼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낳고, 기계적 제작은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그룹으로 활동하는 아이돌의 특성상 멤버 간의 불화, 멤버 교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그룹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최근 카라 니콜·강지영, f(x) 설리, 원더걸스 선예·소희 등이 탈퇴를 선언한 것처럼 아이돌 멤버의 교체는 아주 흔한 일이다. 대형 기획사의 경우 멤버의 탈퇴에도 금세 회복이 되지만 중소 기획사의 아이돌 그룹은 멤버의 탈퇴가 곧 그룹의 존폐 위기로 이어진다.

'위아래'로 큰 인기를 얻은 걸그룹 EXID의 멤버는 본래 하니, 정화, 엘리 외에 해령, 혜연, 유지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 3명이 연기, 학업, 부상을 이유로 탈퇴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급하게 새로운 멤버로 교체해 'I Feel Good', '매일밤'으로 연이어 컴백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동영상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한 '위아래'의 재조명이 아니었다면 EXID 역시 지금의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이돌 그룹 한 팀을 만드는 데 매달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도 멤버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5인조 그룹을 기준으로 볼 때 숙소, 안무 연습실, 식대, 안무·보컬 강습료, 미용 성형비 등의 비용이 수개월간 들어가며 음반 발매가 확정되면 제작비 역시 만만치 않다.

한 아이돌 그룹 소속사 관계자는 "아이돌 세계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승자다. 결국 충분한 자금의 확보가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최두선 기자 sun@

데뷔 1년차 걸그룹 '소나무'

"소나무처럼 변치않는 팀워크 약속"

합숙 때 청소·음식물 처리 규칙 정해
여자들끼리 수다떨며 스트레스 날려



빅뱅처럼 존재감 넘치는 그룹이 되고 싶다는 7인조 걸그룹 소나무가 컴백했다. 소나무는 지난 20일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 곡 '쿠션'을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1월 가요계에 첫 데뷔한 소나무도 평균 3~4년의 연습 기간을 거쳐 아이돌로 데뷔할 수 있었다. 소나무는 메인 보컬, 서브 보컬, 하이 랩, 로우 랩 등 자신이 맡은 파트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힘든 고난과 역경, 시련도 있었지만 소나무는 7명이 똘똘 뭉쳐 가요계의 여전사를 자청하고 있다.

소나무는 "연습생으로 지내면서 조금 막연한 부분도 있었다. 언제 데뷔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습만 해야 했다. 힘든 날도 있었지만, 멤버들이 함께 있어서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가 같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주고 응원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 잘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소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소나무는 3년 전부터 합숙 생활을 한다. 그룹에게 팀워크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소속사도 어렵게 합숙을 결정했다. 여자들끼리 생활하는 숙소는 나름의 규칙이 있다. 주변 정리는 스스로 알아서 하고, 먹은 음식의 뒤처리는 깨끗이 한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동은 삼간다.

소나무는 "여자들끼리 생활하기 때문에 불편할 때보다는 재밌는 일들이 많다.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다보면 스트레스도 날아간다"며 "소나무처럼 팀워크가 좋은 그룹도 없을 것 같다. 정말 팀명처럼 변하지 않는 소나무가 되겠다. 음악도, 멤버들의 우정도 말이다"고 언급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

올해 신인아이돌 누가 있나

4년준비 13인조 보이그룹 '세븐틴'
소녀 콘셉트 '여자친구' '오마이걸'
밴드 사운드로 차별화 '엔플라잉'

2015년에도 신인 아이돌 그룹들이 대거 등장했다. 가요계를 휩쓸겠다는 당찬 각오로 데뷔했다. 세븐틴, 여자친구, CLC, 오마이걸, 디아크 등이 그 예다.

세븐틴은 애프터스쿨을 키워낸 소속사 플레디스의 13인조 보이그룹이다. 준비 기간만 4년에 이르는 세븐틴은 보컬, 퍼포먼스, 힙합 유닛으로 나뉘어 있으며, 지난 5월 첫 번째 미니앨범 '17캐럿(17 CARAT)'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아낀다'로 활동했다.

특히 멤버 우지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하고 호시가 퍼포먼스를 완성한 '샤이닝 다이아몬드'를 통해 실력을 드러낸 바 있다. 이들은 데뷔 전 MBC뮤직 리얼리티 '세븐틴 프로젝트-데뷔대작전'을 통해 보다 친숙하게 다가섰다.

예린, 신비 등 6명의 멤버로 구성된 걸그룹 여자친구는 체육복, 교복 등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데뷔곡 '유리구슬'의 무대를 꾸몄다. 활기차면서도 청순한 이미지를 선보여온 여자친구는 23일 두 번째 미니앨범 '플라워 버드'로 컴백했다. 아울러 유주는 최근 MBC '일밤-복면가왕'에서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의외의 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귀여운 소녀를 표현하는 데는 오마이걸의 매력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오마이걸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 '큐피드'는 저스틴 비버, 엑소, 샤이니 등과 작업한 신혁 프로듀서, 히트 작사가 김이나 등이 참여해 심혈을 기울였다.

큐브엔터테인먼트가 포미닛 이후 6년 만에 내놓은 신인 걸그룹 CLC는 '페페'와 '궁금해'로 다채로운 매력을 펼쳤다. 특히 태국인 멤버 1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 CLC는 치열한 연습생 경쟁을 거쳐 선발됐다.

밴드 사운드로 차별화를 공략하는 엔플라잉도 있다. 씨엔블루, FT아일랜드의 FNC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 엔플라잉은 풋풋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최근 화제 속에 방송 중인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4'에서는 래퍼 주헌의 활약이 돋보였다. 그는 올해 데뷔한 몬스타엑스의 멤버다. 몬스타엑스는 앞서 엠넷 리얼리티 '노 머시'를 통해 13명의 연습생 가운데 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멤버로 발탁된 바 있다.

이외에도 디아크(전민주, 유나킴, 한라, 정유진, 천재인), 플레이백(하영, 우림, 소윤, 예나), 로미오(윤성, 현경, 카일, 승환, 민성, 마일로, 강민) 등도 각각 올해 데뷔해 존재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위쪽부터 13인조 보이그룹 '세븐틴' 8인조 걸그룹 '오마이걸' 4인조 밴드 '엔플라잉'.



RAYCOOK GOLF

퍼터는 **레이쿡**이 좋습니다



알에스스포츠 TEL. (02)3280-9607



‘협녀, 칼의 기억’ 이병헌 vs ‘사도’ 송강호

누가 ‘사극 지존’?

매혹적 악인 유백役 비정한 아버지 영조役

천출 출신불구 탁월한 검술과 지략가
군왕 쥐락펴락하는 조선 최고 권력자
고난도 격투·와이어신 대역 없이 소화

1000만 변호인·관상 등 믿고 보는 배우
‘사극 대가’ 이준익 감독의 컴백작품에
‘사도세자’ 유아인과 호흡 기대감 증폭

여름 극장가는 1년 중 가장 큰 시장이다. 때문에 화려한 액션과 시원한 볼거리를 앞세운 사극 영화들이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2011년 ‘최종병기 활’, 2012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014년 ‘명량’,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 이어 올 여름 극장가에도 사극 대작의 계보를 이을 작품이 하나둘 등장할 전망이다.

8월 13일 개봉을 앞둔 ‘협녀, 칼의 기억’(제작 티피에스컴퍼니, 배급 롯데엔터테인먼트)은 칼이 곧 권력이던 고려 말, 왕을 꿈꿨던 한 남자의 배신 그리고 18년 후 그를 겨눈 두 개의 칼, 뜻이 달랐던 세 검객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그린 작품이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악마를 보았다’,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을 통해 충무로 대체 불가 배우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지.아이.조’ 시리즈, ‘레드: 더 레전드’,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로 가장 성공적인 할리우드 진출 배우로 평가 받고 있는 이병헌이 매혹적인 악인이 되어 돌아온다.

이병헌은 천출의 신분에도 탁월한 검술과 빼어난 지략으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유백으로 분한다. 유백은 왕도 쥐락펴락할 만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는 동시에 내면엔 아무도 모를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입체적인 캐릭터로 이병헌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이병헌은 “이 영화는 배우들의 감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감독님이 말했다. 액션을 하는데도 그 감정이 나타나길 원해서 대부분의 액션을 직접 했다. 육체적으로도 고생했지만, 감정적인 소모도 다른 영화보다 심했다”고 말했다. 고난도 와이어 액션과 빗속 격투 등 다양한 액션 장면을 대역 없이 소화해낸 그는 “이렇게 와이어를 많이 사용한 촬영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9월 개봉을 앞둔 ‘사도’(제작 타이거픽쳐스, 배급 쇼박스) 역시 영조와 사도세자의 극적인 역사와 ‘관상’ 송강호의 귀환으로 기대를 모은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을 그려낸 ‘사도’는 2005년 ‘왕의 남자’로 1230만 흥행신화를 기록했던 이준익 감독이 10년 만에 선택한 정통사극이자 송강호, 유아인의 만남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사도’의 티저 예고편은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비정한 아버지 영조로 분한 송강호와 아버지에 의해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는 비운의 아들 세자 사도 역의 유아인의 강렬한 대립으로 눈길을 끌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라는 카피는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의 사연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함께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하얀 상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채 흔들림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도와 붉고 화려한 용포 차림으로 강인한 표정 뒤에 슬픔을 숨긴 군주 영조의 모습으로 두 사람의 어긋난 운명을 암시한다. 지난해 1000만 영화였던 ‘변호인’을 비롯해 ‘관상’, ‘설국열차’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믿고 보는 배우’로 거듭난 송강호의 출연은 영화의 또 다른 경쟁력이다. 최두선 기자 sun@

스타, 고향을 말하다

손호준의 광주



‘응사’ 속 맛깔난 전라도 사투리 순천 명예홍보대사도 되고 무명인 절 배우로 만들어 줬죠

배우 손호준은 여러 매체를 통해 고향 광주광역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특히 절친한 사이인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와의 친분을 말할 때면 어김없이 광주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손호준은 지난 21일 유노윤호의 입대 날짜에 맞춰 경기 양주 26사단 훈련소를 가는 길에 동행했다. 그는 “회사에 정중히 부탁해 21일은 스케줄을 비워달라고 이야기했다. 가는 모습을 봐야 할 것 같았다”며 “유노윤호와는 광주에서 스무 살 시절, 라스베이거스로 여행 가자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유노윤호는 언제나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10년 동안 저를 기다려줬다. 이제 제가 2년간의 군 생활을 보필하면서 기다리겠다”고 웃었다.

유노윤호와의 친분에서 볼 수 있듯 광주에서 손호준의 어린 시절은 정이 많았다. ‘꽃보다 청춘’, ‘삼시세끼’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손호준이었지만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한없이 장난스러운 성격이다.

“학창시절은 평범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한 손호준은 “10년, 20년 된 친구들과 있을 때는 까불까불하고 짓궂은 장난도 많이 친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편이다.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농담을 던진다”고 말했다.

손호준은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 준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도 광주 출신답게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사랑받았다. 극 중 해태 역을 맡은 그는 광주가 아닌 순천이 고향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손호준은 순천 시장으로부터 명예홍보대사 위촉패와 공로패도 받았다. 그는 “광주나 순천이나 같은 전라도다. 둘 다 저에겐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광주 팬들도 그렇게 생각해준다”며 “‘응답하라 1994’는 가족을 만들어 준 작품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두선 기자 sun@

‘아픈 역사’ 어루만지는 창작뮤지컬

명성황후·아리랑 등 완성도 호평



올해 20주년을 맞은 뮤지컬 ‘명성황후’ 공연의 한 장면. 사진제공 에이콤인터내셔날

외국 유명 뮤지컬 라이선스 공연의 득세 속에 약진하는 창작극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눈길을 끈다. 하반기 들어서도 ‘시카고’, ‘데스노트’, ‘엘리자벳’ 등 외국 유명 뮤지컬 라이선스 공연이 관객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아리랑’ 등 완성도와 눈길을 끄는 주제 등으로 무장한 창작뮤지컬이 흥행 선전을 펼치고 있다.

티켓 사이트 인터파크가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월간 예매 순위를 집계한 결과, 창작뮤지컬 ‘여신님이 보고계셔’, ‘아리랑’, ‘명성황후’가 나란히 10위 내에 안착하며 흥행 행진을 펼치고 있다.

한국전쟁 속, 여섯 남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담아 공감도를 높인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중형 뮤지컬로서 매 프러덕션마다 탄탄한 관객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조정래 작가의 동명 대하소설을 각색한 대형극 신시컴퍼니 제작의 ‘아리랑’도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창작극이다. 요즘 관객과 만나고 있는 이번 초연에서 작품 완성도 면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국내창작 뮤지컬 최초 관객 100만명 돌파, 1000회 공연 기록, 미국·영국 공연 등 숱한 창작 뮤지컬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에이콤인터내셔날의 ‘명성황후’ 역시 관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주년 기념 공연을 앞두고 벌써부터 예매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일제강점기 1926년 성악가 윤심덕의 자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사의 찬미’, 국내 첫 야구 뮤지컬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등이 대학로 중소형 창작 뮤지컬의 자존심을 드러내며 관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물이면 다냐?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송추계곡'

물이면 다다!

계곡으로

양주 송추 **수도권 피서명당 인기**
동해 무릉 **'힐링 휴양지'로 각광**
괴산 화양구곡 **물 맑고 풍광 수려**

피서 본능이 살아나는 계절이다. 푹푹 찌는 무더위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피서 욕구를 부추긴다. 어디든 멀리 떠나고 싶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외로 향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로 인해 국내 관광업계와 지자체의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무려 41%나 줄면서 관광업계가 울상이다. 메르스 여파로 힘겨워하는 이웃을 돕고 알뜰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국내 여행지를 모아봤다.

여름 휴가철 피서지는 '계곡'아니면 '바다'다. 산속 맑은 공기와 쾌적한 기운을 느끼고 싶다면 계곡을, 뻥 뚫린 바다를 보며 다이내믹한 낭만을 만끽하고 싶다면 바다가 어울린다.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송추계곡은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피서지다.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많다고 해서 '송추(松楸)'라는 이름이 붙었다. 북한산 등산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접근성이 좋아 오래도록 수도권 피서 명당으로 통한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해수욕장을 찾는다면 인천 중구의 왕산해수욕장이 좋다. 비교적 호젓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이곳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가 펼쳐진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이곳에는 오색 요트들이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모래해변이 넓고, 썰물 땐 조개, 소라줍기 등 생태체험도 가능하다.


강원 동해시 삼화동 '무릉계곡'

강원 동해시 삼화동의 무릉계곡도 피서지로 유명하다. 아이들과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무릉반석과 산책하듯이 다녀올 수 있는 용추폭포 및 두타산, 청옥산, 고적대 등 등산코스도 인기다. 지금은 힐링캠프장으로 자리를 굳혔다.

바다로

인천 왕산 **당일치기 여행도 OK**
동해 망상 **캠핑족 1순위 피서지**
제주 하도 **조용한 곳 원한다면 딱**

강원 동해시 망상동의 망상해수욕장도 캠핑장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특히 백사장 앞에는 캠핑카나 텐트를 설치해놓고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시설도 훌륭해서 캠핑족에게는 최고의 피서지로 손꼽힌다.

늘 푸른 바다예술제를 비롯해 망상해변축제, 화이트견운모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와 비치발리볼 대회, 전국대학 복싱동아리선수권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복싱토너먼트 대회, 해변 비치 사커 대회, 전국 프로격투기신인왕전 등 체육행사도 열린다.

가야산국립공원의 백미 홍류동계곡은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피서지다. 가야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해인사까지 이르는 4㎞의 계곡으로 가을 단풍이 너무 붉어서 물이 붉게 보인다 해서 홍류동계곡이라 불린다. 다양한 등산로와 신라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어 아이들 교육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은 해운대와 광안리다. 하지만 좀 더 로맨틱한 야경을 원한다면 광안리가 좋다. 밤이면 조명을 밝히는 광안대교의 화려한 자태와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의 야경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말끔히 잊게 한다.

좀 더 한적한 해수욕장을 원한다면 제주 하도해수욕장이 좋다.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이름난 곳이지만 관광객이 많지 않아 여유로운 피서를 즐길 수 있다. 수심이 얕고 물이 맑으며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 운치를 더한다.


인천 중구 '왕산해수욕장'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는 화양구곡이 유명하다. 속리산의 북쪽에 위치하며, 수질이 깨끗하고 숲과 바위, 소나무 등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하는 수려한 피서지다. 계곡 입구에는 야영장과 사설 캠핑장 등이 조성돼 캠핑도 즐길 수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여행 단신

◇태백 해바라기축제 = 이달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강원 태백시 구와우 일대에서는 태백 해바라기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이 축제는 해발 800m의 고지대에 펼쳐진 100만 송이의 해바라기밭이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이번 축제는 '해바라기 꽃밭 사이'로 여행을 시작으로 전나무 숲 속 산책, 콘서트, 그림 전시회, 야외조각 작품전, 동물 먹이주기, 화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체험 행사로는 해바라기 손수건, 티셔츠 만들기를 비롯해 해바라기 화분 만들기, 동물 관찰 및 먹이주기 체험, 태백시주민창업협의회 체험 및 특산물 판매 등이 있다.

◇물의 나라 화천 쪽배축제 = 이달 25일부터 8월 9일까지 강원 화천의 붕어섬 일대에서는 물의 나라 화천 쪽배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열린다. 창작 쪽배 콘테스트와 록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수상자전거, 카약 등 물놀이가 펼쳐진다. 붕어섬에서는 월엽편주, 카약, 패들보드, 자전거, 카약과 카누, 수상 범버보트, 하늘 가르기, 나뭇잎·조각배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또 붕어섬과 5분 거리인 세계 최대 실내얼음조각 광장으로 알려진 서화산 다목적광장에서 난초와 DMZ 사진전, 독도 사진전이 마련된다.

◇목포항구축제 =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남 목포항·삼학도 일원에서는 목포항구축제가 열린다. 한여름 밤바다를 만끽할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로 준비된 이번 축제는 개막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풍어제, 항구놀이, 풍어길놀이 등의 볼거리와 얼음조각 체험, 근대역사 유물 탐방, 소원물고기 달기 등의 체험행사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전남 오픈마켓이 제공하는 전남축제&쇼핑 앱으로 축제정보, 주차장정보, 주변맛집정보, 남도여행길잡이, 문화체육관광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전남 각 지역의 농산물들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 해당 앱은 구글스토어에서 전남축제, 전남축제쇼핑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 이달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경북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및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는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린다. '불의 노래, 빛의 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불빛쇼다. 포항제철소 야경을 배경으로 형산강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불빛쇼는 멀티퍼포밍 기법을 새롭게 도입,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현대무용, 아크로바틱 등 공연요소와 불꽃치구 등 특수효과 장비를 도입한 새로운 연출 기법이다. 최근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크로아티아팀이 출전한다.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한화팀이 환상적인 멀티퍼포밍 불빛쇼로 포항의 밤하늘을 빛으로 수놓는다.

입도 몸도 호강… 여름 보양식 열전


전복물회

뜨근뜨근~
'밥맛이 예술' 이천 쌀밥

전북 듬뿍~
보양식으로 거듭난 물회

새콤달콤~
가슴까지 시원한 초계탕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그러나 푹푹 찌는 무더위는 여름휴가로 들뜬 기분을 가라앉힌다. 때로는 여행은 물론 여름철 입맛까지 떨어트려 건강까지 해친다.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여행하며 지역별 여름 보양식을 챙겨먹으면 여행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경기 이천은 밥 자체가 보양식이다. 이천 돌솥쌀밥이 그것이다. 이천에서는 다른 잡곡없이 오롯이 이천 쌀만으로 밥을 지어낸다. 하루 세끼를 먹는 쌀밥이지만 임금님 수랏상에 올랐다는 이천 쌀밥은 아직도 인기 고공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에도 생산량이 늘어날 만큼 웰빙으로 인기가 높다.

3번 국도를 타고 이천으로 향하면 '이천 쌀밥집'이라는 간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온다. '덕제궁', '이천쌀밥집', '임금님쌀밥집' 등 이천을 대표하는 유명 쌀밥 전문점들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찾아드는 손님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주문을 하면 임금님께 진상되던 이천쌀을 돌솥에 넣어 밥짓기에 들어간다. 쌀 이외의 잡곡은 들어가지 않는 흰쌀밥이다. 가끔 검은콩이 들어가는 집도 있다. 다른 영양밥처럼 대추나 밤, 잣 등을 더하지 않고 오직 쌀로만 지어내도 윤기 흐르는 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구수하고 달다. 기름지고 맛있는 쌀밥에 어떤 반찬이 더해져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이천 쌀밥 정식은 정갈한 반찬들이 푸짐하게 더해져 식욕을 잃은 사람이라도 만족스러운 한끼 식사가 가능하다.

물회도 보양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냥 물회가 아니다. 전복이 들어간 프리미엄 물회다. 바다의 보물이라 불리는 전복은 자양강장, 피로회복, 산모건강, 피부미용의 효능이 있으며, 무엇보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복뿐 아니라 싱싱한 제철 해산물과, 활어 등을 푸짐하게 담아주어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즐길 수 있다. 아삭한 야채와 새콤한 특제소스까지 더하면 둘이서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만큼 매력적인 맛을 자랑한다. 전복물회는 강원 속초와 전북 군산, 경북 영덕, 제주도 등에서 지역별 특색이 또렷한 물회를 맛볼 수 있다.

닭육수를 차게 식혀 식초와 겨자로 간을 해 고기와 함께 먹는 초계탕도 여름철 보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청도 사람들의 여름 입맛을 책임졌던 초계탕은 이제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국민 보양식으로 자리를 굳혔다. 뜨겁고 쓴 맛이 있는 삼계탕을 멀리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보양식이다.

오상민 기자 golf5@





왼쪽부터 박인비·김효주·유소연·양희영·전인지·김세영·최나연 선수

리우行 티켓 주인공은…

박인비·김효주 굳히기냐, 전인지·김세영 뒤집기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향한 한국 여자 프로골퍼들의 자존심 대결이 뜨겁다. 2016 리우올림픽 여자골프 대표팀 승선을 위해서는 나라마다 세계랭킹 상위 2명 안에 이름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랭킹 60위 이내 선수에 한해 자격이 주어지는 올림픽 출전권은 국가별 2장씩으로 제한, 여러 나라 선수가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계랭킹 15위 이내에 4명 이상 진입한 나라에 한해 최대 4명까지 출전이 가능하다. 24일 현재 세계랭킹 15위 이내 4명 이상의 선수를 보유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한국은 박인비(27·KB금융그룹·1위)를 비롯해 김효주(20·롯데·4위),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5위), 양희영(26·8위) 등 7명이 15위 안이 이름을 올렸고, 미국은 스테이시 루이스(3위)·브리타니 린시컴(이상 30·10위), 렉시 톰슨(20·13위), 크리스티 커(38·14위)가 15위 안에 포진됐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상위 4명이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된다.

그러나 1년여를 앞둔 리우올림픽 향방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세계랭킹은 최근 2년간의 성적을 합산해 매겨진다. 결국 리우데자네이루에 가기 위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2년간의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박인비, 김효주, 유소연, 양희영 등 상위 랭커들은 분명 유리한 입장이다. 1년 전 세계랭킹에서도 박인비(3위)와 유소연(9위), 양희영(15위)은 15위 이내에 이름을 올렸고, 지금은 순위를 더 끌어올렸다.

하지만 변수도 많다. 김세영(22·미래에셋), 김효주, 장하나(23·비씨카드), 백규정(20·CJ오쇼핑) 등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데뷔한 루키 4인방과 US여자오픈 정상에 오른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무서운 기세로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22위였던 김효주는 4위로 부상했고, 40위였던 전인지는 11위, 39위 김세영은 12위로 도약했다.

이런 기세라면 세리키즈 박인비와 유소연, 양희영의 굳히기와 리틀 세리키즈 김효주, 김세영, 전인지의 뒤집기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인지는 올해 KLPGA투어 삼천리 투게더 오픈과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하며 상금순위 1위(5억5900만원)에 올랐다. 특히 전인지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메이저 대회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과 LPGA투어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에서 우승컵을 거머쥐며 여자골프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전인지는 내년부터 LPGA투어에 데뷔할 예정이어서 올림픽 티켓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매 경기 드라마틱한 명승부를 연출하고 있는 김세영은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과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 가장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올랐다.

아직 우승은 없지만 장하나의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장하나는 올 시즌 15개 대회에 출전해 5차례 톱10에 들었지만 우승컵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장하나는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감을 회복했고, 최근 열린 마라톤 클래식에서는 2위에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하나는 또 지난 2013년 KLPGA투어에서 김세영, 전인지, 김효주 등 라이벌을 모두 제치고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시상한 바 있어 숨은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최근 2년간 성적 세계랭킹 60위 내

국가별 출전권 2장… 최대 4장까지

현재 박인비·김효주·유소연·양희영

내년 7월까지 순위 유지시 출전 유력

LPGA투어 판도 변화 예고 전인지

매 경기 상승세 보이는 김세영도 주목

"매시 소재  없어서 못팔아요"

커지는 골프 액세서리 시장

젊은층 골퍼 클럽보다 디자인

헤드커버·파우치 꾸준한 인기

중장년층도 트렌드 연출 늘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미스테리골프 물류 창고엔 기능성 헤드커버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헤드커버를 손수 포장하며 내주 공급 물량을 점검했다. 김성일 미스테리골프 이사는 "요즘은 헤드커버만 찾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마 이것도 부족할 거예요"라며 달라진 시장 풍경을 설명했다.

골프 액세서리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오랜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골프 시장을 주름잡던 골프클럽이 수년째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성과다.

박상석 신세계백화점 본점 프로골퍼는 "최근 들어 용품과 액세서리를 찾는 고객이 크게 늘었다"며 "매시 소재 모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 박 프로는 이어 "파우치나 벨트 같은 용품도 꾸준히 잘 나간다"며 "골프클럽이 답보 상태라면 용품·액세서리는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골프용품 액세서리 시장이 꿈틀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 클럽 구입 및 교체 주기가 길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고가의 클럽 구입 대신 비교적 저렴한 용품이나 액세서리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골프용품숍을 운영하는 박상선(43)씨는 "요즘은 클럽을 구입하는 사람보다 그립만 교체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신발도 구입 시기를 늦추고 스파이크만 갈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젊은 골퍼들의 증가도 이 같은 시장 분위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중장년에 비해 씀씀이가 적은 젊은층 골퍼들이 클럽 교체보다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나 디자인의 액세서리 구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장년 골퍼들도 최신 트렌드에 맞춰 가려는 모습이다. 화려한 디자인과 컬러가 돋보이는 골프웨어를 비롯해 기존엔 사용하지 않던 다양한 소품과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등 개성을 연출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주요 골프 브랜드에서는 용품 및 액세서리 마케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특히 아쿠쉬네트의 골프 브랜드 FJ(풋조이)는 최근 압구정점과 부산 신세계 센텀점, 분당점, 대구 이시아폴리스점에 이어 내달 강남과 분당, 해운대 지역에 새롭게 매장을 열 계획이다.

이 브랜드는 최근 골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슈피팅(Shoe fitting)을 비롯해 기능성 어패럴과 골프화, 골프장갑 등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며 용품·액세서리 시장 공략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오상민 기자 golf5@

멀어도 좋다… 여름엔 강원도로 Go!

700m 이상 고지대… 평균 기온 26도

쾌적한 라운딩에 가족 휴가지로 인기

강원도 골프장이 주목받는 시기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골퍼들의 라운드 욕구는 시들지 않고 있다. 무더운 여름에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단연 강원도다. 평소 멀다는 이유로 외면 받던 강원도지만 한여름엔 상황이 다르다. 강원도 소재 다수의 골프장이 700m 이상 고지대에 위치, 한여름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골프장은 강원 정선의 하이원리조트 골프장으로 해발 1137m다. 매년 8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이 이곳에서 열리는 이유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용객 선호도가 높은 만큼 그린피는 비싸다. 한여름 강원도 소재 골프장에는 성수기 요금이 적용된다. 이 골프장은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평소 12만원이던 주중 그린피를 15만원으로, 주말 그린피는 17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한다.

하이원리조트 골프장 다음으로 고지대에 위치한 골프장은 강원 태백의 오투CC로 1100m다. 한낮에도 25도를 넘지 않을 만큼 선선한 기후를 자랑하는 이곳은 선선한 바람까지 더해지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강원도 소재 골프장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골프장은 전북 무주의 덕유산CC로 해발 900m다. 그린 주변에 야생화가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100여년 된 적송도 즐비해 삼림욕으로도 안성맞춤이다.

강원 용평CC, 용평버치힐CC, 강원 평창의 알펜시아, 휘닉스파크 등도 전부 해발 700m 이상 고지대에 위치한다. 특히 알펜시아CC는 전 세계 유명 홀을 모아 18개 홀을 구성한 레플리카 코스에 27홀 회원제 코스를 더해 무려 45홀 규모다.

해발 600m에 위치한 강원 횡성의 웰리힐리CC는 성수기 요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이 골프장은 대단위 리조트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휴가지로 인기다. 그린피는 주중 15만원, 주말·휴일 20만원(비회원 기준)으로 평상시와 동일하다. 리조트 투숙객에게는 추가로 그린피를 할인해준다.

오상민 기자 golf5@

비거리로 고민 많은 골퍼님들, 대망의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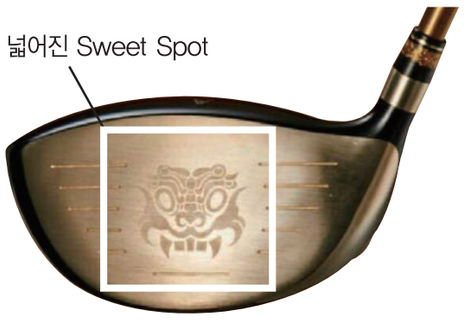
"헤드가 크다"와 "비거리" 상관관계
스윗스폿에서 1cm 벗어나면 20yard 손해 | 헤드가크면 스윗스폿이 커져서 거리와 방향유리 | 큰 헤드가 유리하므로 계속 커지고 있는 것 | 프로골퍼에게 헤드크기를 제한하는 이유도 크면 유리하기 때문.

"드라이버가 가볍다"의 의미
드라이버가 가벼우면 스윙스피드가 증가 | 몸에 무리가 안가며 부상을 방지 | 가벼워도 헤드쪽 원심력을 느끼도록 스윙웨이트를 준다 | 드라이버 무게도 계속 가벼워 지고있는 추세.

"고반발"의 의미
비거리 증가 | 짜릿한 손맛 | 런 발생 증가

"어드레스가 편하고, 믿음이 간다"의 의미
가볍고, 헤드크고, 짧게 만들어 편하다 | 자신감이 생겨 든든한다.

두배로 넓어진 스윗스팟(sweet spot)면적





신제품 론칭기념 20만원 할인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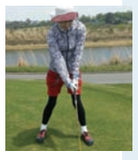
"코스가 길게 느껴진다.
드라이버 비거리가 확 줄었다..."
짤순이골퍼의 아픔을 한방에 날려 드립니다.
243g 초초경량, 500cc 초대형헤드,
CT310의 초반발력의 도깨비방망이가
당신의 10년전 비거리를 찾아 드립니다.

시타하신 열분 중 아홉 분 이상이
20m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방향성은 물론이구요.

2015 신제품
도깨비드라이버
DGB-500
※국제특허 비틀림 방지샤프트 ※충격흡수 Winn 특수그립







유쾌, 상쾌, 통쾌한 도깨비드라이버!
힘을 주지않고 부드럽게 치는데도 비거리가 예전대비 10~20Mm는 늘어났고 왼발이 불편한 관계로 주로 손과 어깨를 사용한 스윙이라 고질적인 왼쪽 훅이 심했는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을 하는 것은 상당한 집중력과 감각을 총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편한 드라이버를 만난 저의 기쁨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큽니다. 〈최규일〉

골프 20년, 가장 맘에드는 드라이버!
과거에 T, C, X, N, K 등등 많은 드라이버를 사용해 봤는데 도깨비는 타 기종 대비 가볍고 다루기가 편하며 최소 20m이상 비거리가 증대되더군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악성훅과 스라이스가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라운드당 두세개의 OB 때문에 90대에 머물던 스코아가 요즘은 80대중반으로 도깨비드라이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왕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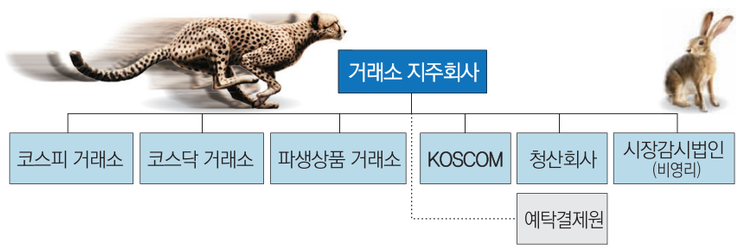
너무나 개운하고 자랑하고 싶은 라운딩!
Golf is life! 맞는 이야기.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숨어있는 골프. 슬럼프를 이기고저 도깨비 드라이버와 인연을 시작. 설렘과 슬럼프의 두려움으로 가득. 결과는 100점 만점에 99점. 수년만에 아우디장식(파 연속4개)거의 파온에 나도 놀람의 연속. 동료들 추카추카. 슬럼프 탈출~. 도깨비덕분. 드라이버가 멀리가니 골프가 이리 쉬운걸 ^.^ 올해는 도깨비와 함께 춤을... 필드에서.... 〈이쁜이 골퍼〉

www.도깨비골프.com
문의 1899-9030

지주사 전환·IPO 추진 중인 한국거래소

"해외서 성장 먹잇감 찾는다"

매매수수료 중심 수익성 낮아
국제화 전략 밝히고 사업 확대
세계 거래소 전략적 제휴 계획
"M&A 적극…상품 인수할것"



지주사 전환과 IPO를 추진 중인 한국거래소가 체제 전환 이후 추진되는 국제화 세부 전략을 밝혔다. 국내에 국한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금융당국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말까지 지주회사 전환 및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주사 전환 체제가 공표된 현재는 단계적으로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13일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주사 전환 및 IPO를 통한 자본 조달로 사업의 다각화와 업무 영역의 확대, 해외 거래소와 협력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이사장은 "거래소의 지배구조 및 운영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주사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국제화에 나설 것"을 공언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국내에 국한된 사업영역, 매매수수료 중심인 수익원 의존 탓에 해외 주요거래소 대비 수익성이 현저히 낮았다. 여기에 국제적인 협력 구도와 주요 사업에서 제외돼 '국제 경쟁력 약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반면 글로벌 주요 거래소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사업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거래소간 인수합병은 물론 특정 상품분야의 인수도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예를 들어 홍콩거래소의 경우 지난 2012년 업무영역을 일반상품까지 확대하면서 글로벌 M&A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런던의 '런던금속거래소'를 인수하기도 했다. 일본과 싱가포르 거래소를 포함해 나스닥과 두바이 거래소 등이 대표적인 전략적 제휴 사례다.

한국거래소 역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시작으로 세계 유수 거래소와 지분교환, M&A 등을 통해 전략적 제휴를 계획 중이다. 구체적으로 IPO 이후 자금조달을 통해 해외 M&A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 거래소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거래소간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은 유럽과 중국 등 글로벌 거래소들과 이미 연계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다른 거래소들도 제휴를 희망하는 매력적인 시장 가운데 하나다.

최경수 이사장은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화도 필수적"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중국 베이징사무소를 확장하고, 싱가포르에도 해외 사무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상장사 의무공시 없애고
잘못된 풍문도 해명
거래소 공시제도 규제 완화

앞으로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공시 항목이 폐지된다. 또 잘못된 풍문, 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 상장사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를 위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

개정안에는 상장사의 공시부담을 낮추면서도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장사의 공시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상장사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활용도가 높지 않은 의무공시 항목을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 의무가 완화된다. 거래소는 '주요 종속회사' 판단 기준을 현행 5%에서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으로 확대해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업 판단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업이 공시부담도 줄어든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측의 공시부담이 연간 약 1591건(지난해 공시실적 대비 7.1% 수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의무공시사항도 새롭게 생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각 시장별로 오는 9월 7일(코넥스시장은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김희진 기자 heejin@



꾸준히 수익내는 인컴펀드 뭐가 있을까

HMC투자증권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펀드' 추천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아 투자자들은 기대수익이 다소 낮더라도 경기 상황에 흔들림 없이 꾸준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HMC투자증권은 24일 올 하반기 유망 상품으로 저금리 상황에서는 안정적 인컴 수익을 추구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보다 높은 이자 수익이 기대되는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펀드'를 추천했다.

이 펀드는 LIBOR금리에 연동되는 대출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그만큼 이자수익이 커져 수익의 기회가 늘어난다. 금리가 연동되는 대출채권은 국제 신용평가사인 S&P기준으로 BBB-등급 미만의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발행하는 변동금리부선순위 담보 대출 채권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등급이 낮은 하이일드급 기업들이지만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수율이 높고 채무상환 순위상 선순위이기 때문에 신용 위험에 대한 노출이 작다.

현재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 기업들은 견조한 기업이익 및 우량한 재무구조를 보여주고 있어 미국 대출채권 발행기업들의 신용상태는 현재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LIBOR와 연동되므로 금리 상승기에 더욱 유리하다. 기존 하이일드 채권펀드의 경우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기초자산의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반해, 변동금리 대출채권의 경우 시중금리와 연동하여 이자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펀드는 다른 시니어론 ETF에 투자하는 상품과는 달리 수수료를 크게 낮췄으며 하이일드 채권 등을 함께 투자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자산을 금리연동채권에 투자하는 등의 차별화 전략을 펼치며 상품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상반기 M&A 대폭 증가… 작년보다 86% ↑

65개사 완료하거나 진행 중
주식매수청구대금은 2710억

올해 상반기 인수합병(M&A)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M&A 등에 의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65개로 전년 상반기(35개) 대비 85.7% 증가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31개사(47.7%), 코스닥시장이 34개사(52.3%)를 차지했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52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양수도 7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 6개사 순으로 진행됐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역시 대폭 증가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회사가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2710억원으로 전년 상반기(920억원) 대비 194.6% 늘어났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대규모 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SK텔레콤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총 주식매수청구대금에서 SK브로드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현대하이스코가 합병으로 491억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영업양수로 173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주식교환으로 1964억원, 동성하이켐이 합병으로 67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2015년 상반기 증권시장별 주식매수청구대금 상위사 현황 (단위: 억원)

유가증권시장

순위	회사명	매수대금
1위	현대하이스코	491
2위	현대해상화재	173
3위	아이에이치큐	3
4위	경남은행	0.2
5위	NH농협증권	0.2



코스닥시장

순위	회사명	매수대금
1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1,964
2위	동성하이켐	67
3위	세종텔레콤	10
4위	바른전자	0.07
5위	세진전자	0.05

펀드 순자산 3122억 달러… 세계 13번째

우리나라의 펀드 순자산 규모가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14년 세계 펀드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한국의 펀드 순자산은 3122억 달러(약 363조원)로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13번째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15조8523억 달러로 1위였고 △룩셈부르크(3조2083억 달러) △호주(1조6011억달러) △아일랜드(1조5473억달러) △프랑스(1조3913억달러)가 5위권 안에 들었다.

이어 △영국(1조1822억달러) △브라질(9895억달러) △캐나다(9818억달러) △일본(7806억달러) △중국(7089억달러) △스위스(4079억달러) △독일(3599억달러)이 6~12위를 차지했다.

한편 세계 펀드 순자산 총액은 31조4000억달러로, 유럽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순자산이 증가해 3개월 전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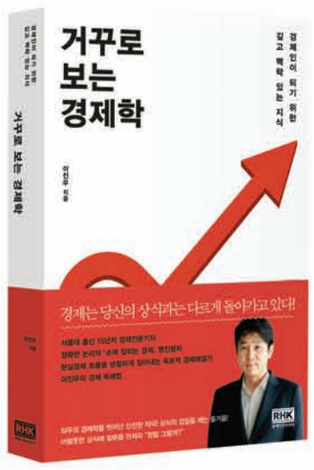
금투협 측은 "미국 Fed의 비둘기파적 태도 유지와 미국의 경기지표 호조, ECB와 일본의 양적완화, 중국 기준금리 인하 등의 호재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세계증시가 상승했다"며 "그 결과 유럽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펀드 순자산이 증가하면서 세계 펀드순자산은 전분기말 대비 0.2%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경제적 자유와 생존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경제 교양 필독서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의
살아있는 경제독법

거꾸로 보는 경제학



경제는 당신의 상식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흐름을 짚고 이면을 들추는 맥락 있는 경제탐구

이 책은 거대한 경제 담론이 아닌 일상의 경제학을 다룬다. '국가의 성장이 과연 나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가?' '나의 경제적 자립과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되묻고, 잘못된 경제 상식으로 경제현상을 바라보면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낱낱이 분석한다. 교양 있고 똑똑한 당신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용 경제학 입문서가 되어 줄 것이다.

좌우의 경제학을 벗어난 신선한 자극!
상식의 껍질을 깨는 즐거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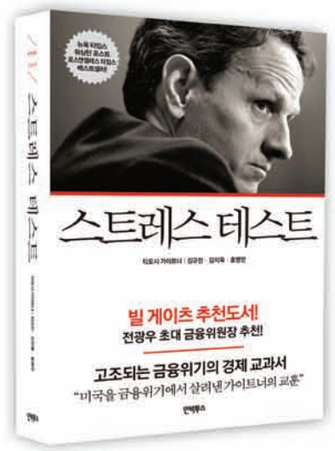
이진우 지음 | 267쪽
알에이치코리아 | 값 13,000원

문의 : 02-6443-8838

뉴욕 타임스·워싱턴 포스트·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베스트셀러!

글로벌 금융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스트레스 테스트
STRESS TEST



빌 게이츠 추천도서!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 추천!

고조되는 금융위기의 경제 교과서
"미국을 금융위기에서 살려낸 가이트너의 교훈"

티모시 가이트너 | 김규진·김지욱·홍영만 양장 | 664쪽 | 인빅투스 | 값 25,000원

각국 정부가 향후 닥칠지 모르는 금융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이자 내수 부진, 심각한 가계 부채로 인한 '한국의 금융위기' 대응 해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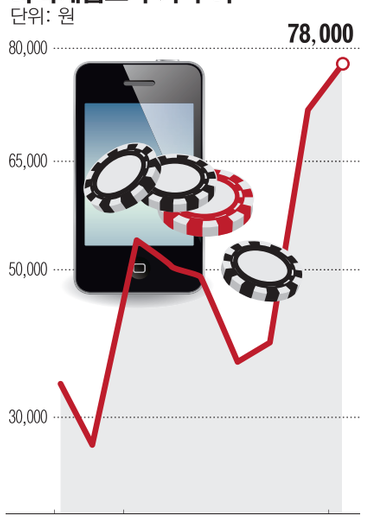
문의 : 02-3446-6206

◉ 출판사 참여문의 ☎ 070-8868-2375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소셜카지노 눈 돌린 파티게임즈…외국인 100억 베팅

파티게임즈 주가 추이
단위: 원



지난 5월 게임 개발사 다다소프트 인수하며 카지노 진출
中 텐센트 통해 '아이러브파스타' 출시 소식에 '사자' 몰려

경쟁이 치열해진 모바일 게임에 한계를 느낀 파티게임즈가 소셜카지노 게임 사업으로 반전을 노린다. 외국인도 파티게임즈 주식을 사들이며 힘을 싣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외국인은 파티게임즈 주식 11만97002주를 사들였다. 종가 7만8000원 기준으로 93억6600만원 어치다.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은 바로 소셜카지노다. 파티게임즈는 지난 5월 게임 개발사인 다다소프트 지분 전량을 227억원에 인수하며 소셜카지노 사업 진출을 알렸다.

다다소프트는 지난 2011년 설립된 회사로 NHN한게임과 넷마블에서 다년간 웹보드와 캐주얼게임을 개발, 서비스한 핵심 인력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2013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소셜 카지노게임 '카지노스타'를 서비스하고 있는 다다소프트는 월 평균 75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소셜카지노라는 분야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파티게임즈 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소셜카지노 게임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 포커, 바카라 등 실제 카지노 게임들을 하는 서비스다. 진짜 돈이 아니라 사이버머니로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소셜카지노 시장은 오는 2017년까지 연평균 27.3%씩 성장해 4조9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월까지 파티게임즈의 주가는 3~4만대에서 횡보했다. 이후 다다소프트 인수와 중국 진출 여부가 주목받으며 주가가 상승해 외국인이 '사자'에 나선 22일에는 52주 신고가인 8만8300원을 터치했다.

파티게임즈 3분기 중 2대주주인 텐세트를 통해 '전민찬정(아이러브파스타 중국버전)'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셜 카지노는 이미 더블유게임즈가 글로벌에 서비스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더블유게임즈는 매출의 100%가 북미·유럽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직접 상장 유치에 나서며 소셜카지노 게임에 대한 관심도 커진 상태다.

회사측도 소셜카지노 사업이 최근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해석했다. 파티게임즈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소셜카지노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축해 다다소프트로 최근 파견을 보냈다"며 "확실한 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소셜카지노 부문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아비코전자, SSD 제조사에 LPP 파워인덕터 공급

국산화 성공…스마트폰 적용
원가 낮아지고 더 슬림해져

아비코전자가 국내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제조사에 LPP 파워인덕터를 공급한다.

권선형 및 박막형 인덕터, 저항기 수동소자를 국내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는 이 회사는 작년 하반기 LPP 파워인덕터를 개발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24일 아비코전자 관계자는 "기존 LED 및 LCD TV용 중심의 파워인덕터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양산한 LPP가 스마트폰에 적용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내 주요 고객사에 SSD에 적용 가능한 LPP 파워인덕터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LPP는 기존 파워인덕터와 달리 코어가 없이 빈 공간에 코일을 감아 원가 경쟁력이 높고, 초소화된 특화 파워인덕터"라며 "일본 업체들이 선점하던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신규아이템으로 올해부터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전자기기의 다기능, 슬림화에 따라 중장기적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SSD에 공급되는 LPP 파워인덕터는 아비코전자의 성능과 개발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SSD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LPP 매출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SSD 제조업체는 최근 차세대(NVMe) 방식의 SSD를 개발해 애플 및 마이크로소프트에 대량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NVMe는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최적화된 기존의 SATA 규격 대신 SSD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초고속 데이터 전송 규격이다.

NVMe SSD는 기존 SATA SSD에 비해 5배 이상 빠른 초당 3000MB의 연속 읽기 속도와 7배 이상 빠른 75만 IOP(저장장치의 속도를 표현하는 단위)의 임의 읽기 속도를 구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최대 시장조사기관인 IHS테크놀러지는 최근 SSD 올해 시장 규모 전망치를 당초 100만여개에서 2500만개 수준으로 수정할 만큼 SSD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SSD를 탑재한 PC 및 노트북은 기존 HDD 기반의 PC 및 노트북보다 빠른 부팅 속도와 응용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강점이다. 최근에는 HDD를 탑재한 노트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SSD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감사의 난' 삼영화학공업… 경영권분쟁 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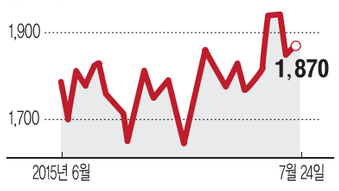
8년차 상근 감사 김부규씨
"이석준 회장 직무집행 정지"
2013년 순손실 172억 기록

삼영화학공업이 '감사의 난'에 휩싸였다. 상근 감사가 회장의 대표이사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내며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영화학공업의 상근 감사인 김부규 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석준 삼영화학공업 회장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삼영화학공업은 기존 이병호 대표 체제에서 이 회장과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삼영화학 주가
단위: 원



이 회장은 33년간 삼영화학공업에 재직한 이 회사의 회장이자 최대주주다. 1분기말 기준 이 회장의 소유 주식은 490만주(지분율 14.41%)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주식수는 590만주(17.35%)까지 늘어난다.

이 회장은 최근 몇년간 실적 부진으로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직접 경영을 맡기 위해 대표이사로 나섰다. 삼영화학공업은 2012년 매출액 2156억7581만원, 영업이익 68억5301만원, 당기순이익 50억7873만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부터 적자에 빠졌다. 2013년에는 매출액 1838억2382만원, 영업손실 75억9289만원, 당기순손실 84억7778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매출액 1593억9366만원, 영업손실 109억3023만원, 당기순손실 172억2180만원으로 더욱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다.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한 김 감사는 8년 동안 삼영화학공업 상근 감사직을 맡아왔다.

김 감사가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을 통해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 17.3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23일 주가 기준 109억4450만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

삼영화학공업 측은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영화학공업은 지난 23일소송 등의 제기 사실에 대한 지연공시를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예고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비씨월드제약, 의료기술개발 국책과제 선정

당뇨병성 고지혈증 신약 개발

비씨월드제약은 보건복지부 국책과제인 '첨단의료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서방성 복합제 개발을 통해 복용편의성 증진 및 당뇨병성 고지혈증 환자의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이다.

비씨월드제약이 이번 선정은 고지혈증과 당뇨병의 높은 발병률로 인한 경제, 사회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복합제 개량신약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당뇨병성 고지혈증 치료제의 세계시장은 오는 2018년 약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일본, 미국에는 이미 특허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비씨월드제약은 DDS 기술을 활용한 개량신약 개발을 통하여 글로벌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비씨월드제약은 DDS 기술을 선도하는 R&D 중심의 제약회사로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 말 인증신청을 목표로 EUGMP/cGMP 공장 건설에도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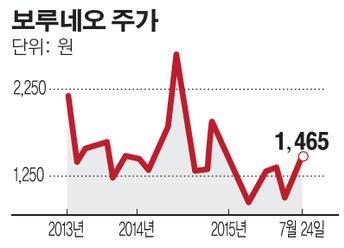
문선영 기자 moon@

공시돋보기

'경영권 분쟁' 몸살 보루네오 전용진 회장 지분 확보 나서

유상신주 335만주 취득
지분율 13.41%로 늘어

보루네오 주가
단위: 원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보루네오의 최대주주가 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루네오가구는 최대주주인 전용진씨가 지난 21일 유상신주 335만8799주를 취득했다. 이번 매수로 전씨의 총 보유주식은 536만3299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보루네오가구는 전씨의 친인척인 전복진씨도 지난 14일 4500주(지분율 0.01%)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최대주주의 지분 매입으로 경영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 씨는 이번 지분 매입으로 좀 더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지분 인수 전까지 전 씨의 지분율은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율 8.51%에 불과했다.

지난 4월 경영권 참여를 위해 보루네오의 주식 200만주를 장외 매수한 것이 전부였던 것.

그러나 이번 지분 인수로 전 씨의 지분율은 13.41%까지 늘게 됐다. 그동안 보루네오의 경영권 분쟁이 최근 4년간 최대주주가 6차례 바뀌는 등 취약한 지분구조로 인해 발생해왔다는 점에서 최대주주의 안정적인 지분확보는 경영권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벌어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보루네오 측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경우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진 등 8명은 인천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박씨 등은 임시주총을 통해 보루네오 이사 7명 전원과 한기영 감사를 해임하고 신규로 10명의 사내외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문선영 기자 moon@

한라, 의료관광 사업 접었다

현대메디슨, 사업부진에 해산
메르스 등 직격탄에 철수키로

한라 주가
단위: 원



한라가 계열사 한라I&C를 통해 진행했던 의료관광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24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메디슨은 사업부진으로 인한 재기불능을 사유로 해산을 결정했다. 현대메디슨은 지난 2009년 6월 한라그룹과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백화점 등이 2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출범시킨 법인이다.

당초 범현대가의 의료관광 알선업 진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던 사업으로 한라그룹의 창업투자 계열사인 한라I&C가 70%의 지분을 투자했으며 올해 한라I&C의 지분은 85%까지 확대됐다.

출범 당시 현대메디슨은 서울아산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세종병원 등 26개 병원과 제휴해 해외환자 유치알선에 나서는 등 의욕적인 사업 전개에 나섰었다.

특히 범 현대가의 해외 네트워크와 서울아산병원,현대해상화재보험,현대드림투어 등 의료·보험·여행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기대만큼 의료관광사업의 사업성이 크지 않았고 이에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한라 측 관계자는 "최근 메르스 등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최종적으로 사업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며 "현재 해산을 결정하고 정리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이스트소프트 '카발2' 대만서 전투 준비 완료

게임회사 OMG와 수출 계약

이스트소프트는 대만의 게임회사 마크로웰 OMG 디지털엔터테인먼트(이하 OMG)와 MMORPG 카발2의 대만 서비스를 위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OMG 산하의 X2game 플랫폼을 통해 대만 지역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OMG는 대만의 주요 게임회사로 카발2의 대만 퍼블리싱을 맡아 현지 마케팅 및 자사 게임플랫폼을 활용한 회원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트소프트는 게임 개발과 운영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유저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여 대만 유저들에게 현지화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발2는 통쾌한 콤보액션과 강력한 이펙트로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즐길 수 있는 MMORPG로 2012년 서비스 시작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정유현 기자 yhssoo@

다날 '페이나우 터치' 출시

LGU+ 와 오프라인 간편결제

다날은 LG유플러스와 오프라인 휴대폰결제 서비스 '페이나우 터치(Paynow Touch)'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페이나우 터치'는 오프라인 최초의 비접촉식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고객이 가맹점에서 주문시 점원에 휴대폰 번호만 말하고, 휴대폰 푸쉬(Push) 인증을 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초간편 결제서비스다.

휴대폰을 단말기에 접촉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비밀번호, 패턴인증 등의 번거로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주문 후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정보만 확인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결제 요금은 휴대폰 요금에 합산돼 청구되기 때문에 별도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필요없다.

초기 휴대폰 결제 서비스는 이모티콘이나 아이템 등 콘텐츠 위주의 소액결제에서 시작해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에서 주로 이용됐다.

하지만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50만원으로 상향되는 호재와 더불어 이번 오프라인 결제서비스인 '페이나우 터치'의 출시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이나 실물중심의 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록 기자 syr@


4,724km의
이동거리
127번의 집밥
15,474,311번의
좋아요와 댓글
682,433명과의 만남
31일간의 무전여행을 통해
연결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기술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는 일
속도를 넘어 진심을 연결하는 일
그렇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끊임없이 알게 해주는 일
SK텔레콤은
그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연결의 무전여행
www.sktconnect.com
#연결의 무전여행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SK telecom